금주법구
부처님을 염(念)하여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고난을 떠나고 고난이 몸을 떠나
온갖 재앙이 무(無)로 돌아간다.
-몽수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시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상복동
시상선원
041)734-2680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303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3성현' 사적공원 만든다

대구분지의 남동부에 자리잡은 경북 경산시는 불교사는 물론 한국 정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원효, 설총, 일연스님 등 세분이 탄생한 유서깊은 고장이다. 해동불교의 초조로 불리우는 원효(617~686)스님은 현재 경산시 자인면인 불지촌(佛地村)에서, 이두를 완성시킨 설총(654~?)과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1206~1289)스님은 지금의 경산인 장산군(獐山郡)에서 출생했다.

신라 선덕여왕 11년 압량주 장산(獐山)으로 처음 명명된 경산시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재가 있다.

일명 '갓바위 부처님'이라 불리우는 선본사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431호)과 불굴사 3층석탑(보물 429호),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을 포함한 보물 5개, 사적 3개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 다수의 도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장을 대표하는 원효, 설총, 일연스님과 관련된 지정문화재는 한 곳도 없다. 다만 원효스님의 탄생지로 추정되고 있는 제석사와 원효스님이 창건하거나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원효사, 불굴사, 반룡사 등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정도다.

최근 경산시가 민족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원효·설총·일연 삼성현(三聖賢) 사적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세 분의 사적이 소실된 아쉬움을 달래주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산시는 오는 5, 6월쯤 삼성현 역사 유적에 대한 전국 규모의 학술 세미나(3성현의 탄생지 '조명을 중심으로)를 개최해 학자 및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모은 후 남산면 인흥리 일대 15만평에 삼성현 추모관, 연구관리시설, 문화전시실, 휴양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이 사업에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



반기내에 도비 1억8천만원을 들여 제석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등 3성현 관련 유적정비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설사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사적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불교홍포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조계종과 관할 본사인 은해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의 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정체성 찾기' 나선 조계종

"수행·교육체계 확립"

무차선회·선원장 연찬회 등 개최
3월 신도교육 전국사찰 의무시행

올 한해 수행과 홉 · 재가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한국불교가 1600년의 장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사회 주류사상에서 밀려난 것은 전통 수행체계와 홉 재가교육체계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반성 아래 한국불교가 수행과 교육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불교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과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일 전통수행체계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과 승려 재교육, 신도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교육원은 올 한해를 '수행과 교육체계 개선의 해'로 정하고 전통 수행체계 확립을 위한 무차선회 개최, 전국 선원장 연찬회, 선원 지원과 안거성만자 방함록 전산 입력 및 분석통계자료화 등의 수행관리체계를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단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불교적 실천과 위상 확립을 위해 홉 재가교육도 활성화된다. 교육원은 승려 재교육진흥위원회를 출범시켜 재교육을 제도화한다. 승려 재교육은 행자교육수료자와 비구 비구니 재교육,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본 말사 주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또 재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승려 양성을 위한 송광사 문화재관리전문교육원을 비롯한 특수학교와 각종 학림, 율원의 신설 추진, 석사 이상의 학술전문인력 및 대학원 재학승 종단관리 등의 재교육 지원사업도 전개된다.

포교원은 3월부터 전국사찰에서 신도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교재발간과 교육시행령 제정, 기본교육 중점사찰 지정, 불교대학 인가제 시행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재교육도 실시해 지역발전과 환경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역할과 활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에 회향하는 신행모델도 제시한다. 김원우 기자

"불교회관 6월 착공"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 새해 종무계획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사진)은 11일 올해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에 불교문화회관 건립불사를 시작 2002년 내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3월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6월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이날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 실장스님들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 완료 △사면 복권 실시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사부대중 교육 활성화 △사회 문화 활동 확대 △종무행정 체계 정비 및 불교정보화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달라이 라마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을 환영하지만, 종단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는 다녀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연합감찰제 실시 총회안건 상정

종단협 9일 간담회

종단협은 9일 열린 종단대표자 간담회에서 연합감찰제 시행 문제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조계종 태고종 등 15개 종단 대표들은 "종단연합감찰제의 시행을 통해 선도 및 규제 활동을 전개하는 문제를 총회에서 진지하게 거론하기로 했다"고 사무국장 법현스님이 밝혔다. 또 북한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각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2001년 새연재

종하 깊이 종더 힘기차게 '새싱 속으로' 21세기의 배두에 선 현대불교의 다짐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있으로도 현대불교는 불교의 세기 로 펼치는 이 시대와 호흡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네 기획과 연재도 불교이념로 새싱 한 지평에서 일을 밀하는 종교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 융성화하자는 의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뜻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해온 것은 현대불교의 자랑 중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담기에 역적히 그릇은 아니었고 못다한 입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큰스님들의 가르침 이외에 큰스님들과의 거리를 좀히 나집 것입니다

문학 속의 불교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문학 또한 그 추구하는 궁극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이념로 문학이 심어야할 거대한 신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을 문학적 자양의 샘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첫째 아래 문학평론가 김홍근 씨는 문학작품에 녹아든 불교의 본질을 탐색해 나가는 이 불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강성으로 보는 절

이름으로 사진 찍기 사찰가 전설 속의 창업 배경을 은 아니고 글이만 있습니다 피사체를 단순히 복제해 낸다거나 사진가의 감회적인 해석을 극도로 자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반 그래로 보되 그 마음처리는 가장 순수한 심정에서 사람 마음의 정수를 찾아 보일 것입니다 종감고도 아이없는 우리 절 보기 의 동행자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스 속 뉴스

이번에 뉴스 기사 라는 것은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나 사람 불상으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과거 모르 비롯되는 일상적인 또는 모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화제은 모은데 그것 때문에 감추기 어려운 진실의 일면을 찾자는 의도에서 〈뉴스 속 뉴스〉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 곳 수 있도록 학과 자료로 감히 확보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중국 산동 학술기행

중국 대륙 속에 뿌리내린 한국 불교의 자취를 찾기 위한 기획인 중국 산동학술기행 팀과 한국 불교 고유 예술 기행을 기획에 집박 나눠 떠 있습니다

조계종 심림으로써 한국불교의 역사은 가능성을 갖추려는 이번 학술기행의 팀장으로 모현스님 보광 스님 위주 스님 조영희 이경자 김문호 등 중국대 불교학과와 역학과의 교수들이 함께합니다



벌써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주최로 8~12일 열린 전통등 강습회 참가자들이 채작의 마지막 단계인 문양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세상을 환한 불빛으로 밝히겠다는 서원을 담은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강습회에는 18개 사찰과 단체에서 4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간 화합 정부 적극 지원"

문화부장관 초청 종교계 대표 간담회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이민신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등 7개 종교대표들을 한국의집으로 초청,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 남북평화협력 등 국정현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각 종단대표들로부터 종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종교간 화합 등 종교문화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종교대표들은 지난 해 추진됐던 종교대표들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년 중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정대스님, 이민신 회장, 김종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신부), 김광욱 천도교 교령, 장응철 원불교 교정원장, 최창규 성균관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순길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서적의 모든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 (02) 737-
Fax : (02) 737-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02-725-2030 / 725-2040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장인정신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중량 3,300관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 설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

새해벽두부터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들이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반갑기 그지없다.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를 '수행과 교육체계 개선의 해'로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포교원도 신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사업계획을 밝혔다.

교육원은 특히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간화선 수행에 대해 논의하는 무차선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각 사찰에서 신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포교원의 계획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 동안 몇 사찰을 빼고 신도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도교육에 무관심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어야 하는지, 가르침의 자기화와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절에 30년을 다녔어도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불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리를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 동안의 사정이었다.

우리 불자들은 또 곧잘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 곧 간화선이며, 불교만큼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만에 가까운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불교에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짐짓 모른 척 했다. 이런 행태의 주요한 원인은 오늘의 한국불교가 지닌 고질화된 반수행적 풍토, 교육 부재의 현실에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중앙종무기관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일선 사찰의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사찰마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사찰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우리가 수행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 불교의 반(反)수행, 교육 부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수행과 교육이며, 수행에 철저한 스님과 교육받은 불자로부터 미래불교를 꽃 피우는 원동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대변화 능동대처 하자

건강한 종교는 사회의 변화를 앞서 나가며, 그 사회가 필요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여 사회를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요즈음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종교로 있으려면 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읽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불교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세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지 못한 것은 모두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장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각오로 뒤떨어졌던 것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펼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는 자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올해는 유엔에서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이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의 해', '한국방문의 해'로 정했다. 이런 큰 흐름에 맞춰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를 통해 불교를 널리 홍포하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불교 신도들을 자원봉사의 체계로 조직화하여, 봉사가 불교인의 기본 신행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조직된 자원봉사의 체계를 활용하여 불교의 여러 낙후된 부분들을 강화 정비하고, 그 힘으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찰을 찾게 될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고 불교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의 요구를 연결시키는 거시적 발상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에 있어서의 불교 역할도 마찬가지로 불교 종단과 신도들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적 연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될 수 있다. 커다란 구호만을 앞세운 일과성의 행사로서는 지속적으로 불교가 현실 속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없다.

각 교단 차원에서 기본틀을 세우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현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그 사업들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불자가 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가 변화한다.

中 "한국불교 배우자"

불교전래 2000년 맞아 중흥방안 모색
인터넷서 교리 · 문화 교육 … 잡지 출간
中 종교학회, 동산불교대와 교류협정

문화혁명이후 50여년간 침체기를 가졌던 중국불교가 한국불교를 역수입하여 불교중흥을 모색한다.

올해 불교전래 2천년을 맞는 중국불교는 이미 100권 분량의 대장경을 간행하고, 불교전래 2000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한 상태다.

중국종교학회는 불교 중흥을 위해 중국문화예술 인터넷 종교문화 사이트에 '한국불교문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불교문화를 알리고, 각종 한국불교 교리학습반과 불교문화강습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국대중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에서 한국불교 서예, 미술, 사진, 시, 논문 등을 번역 출판하고, '한국불교문화' 전문잡지도 출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종교학회 한국불교문화중심 하공송 대표는 "올해 중국불교 전래 2000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지고 있다"며 "문화혁명이후 50여년간 사라진 불교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불교와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를 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종교학회는 6일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과 학술교류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재가불교 학술교류와 우호교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중국종교학회는 승가교육 교류를 위해 종립학교인 동국대, 중앙승가대와도 학술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식에서 중국종교학회는 김재일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관련 인터뷰 4면>키로 했다.

이번 협정 조인에 따라 중국정부 종교성의 간부들로 구성된 1차 불교문화교류단 10명이 3월 방한하여 동산불교대학에 단기 입학, 불교 용어해설, 사찰요리교육을 3주간 받는다. 김재일 이사장은 3월경 중국 북경에서 종교학회 주최 환영식에 참가하고, 한국불교문화와 신행에 대한 강연을 갖는다.

김원우 기자



◇중국 종교학회는 6일 동산불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조계사 일대 사적공원 조성

서울시 2002년까지 개발

서울시가 우정총국 주변을 사적지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계사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우정총국 건물 주변을 내년 9월부터 정비, 2002년까지 1542㎡(467평) 규모의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6억9000만원 예산을 들여 913㎡의 토지와 10개동의 건물을 수용키로 했다. 사적공원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어 시민들이 쉬면서 문화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된다.

서울시의 우정총국 주변 사적공원 계획 추진과 함께 조계사도 도량 정비에 본격 나서고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인사동-조계사-경복궁에 이르는 문화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북에 내의 보낸다

조계종, 1억원 상당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0일 북한에 1억원 상당의 내의를 보내기로 했다.정대스님은 이날 서경석 목사와 (주)태창의 하청업체 연합회 대표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태창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을 조계종에서 돕겠다"며 1월중 조불련에 지원하기로 한 월동용품을 내의로 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국장급 인사

교육-용암 사회-무원스님
총무 · 재무 · 교무 등 유임



◇덕수스님



◇춘광스님



◇용암스님



◇무원스님



◇도재스님



◇진덕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5일 총무부장에 덕수스님, 교무부장에 춘광스님을 유임시키고 교육부장에 용암스님, 사회부장에 무원스님을 새로 임명하는 등 총무원의 부장과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무부장에는 남궁도재스님, 규정부장에는 진덕스님이 그대로 유임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반한 법전스님 후임으로 종정사서실장에 전 사회부장 문덕스님, 부실장에 석구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각 국장에 임명된 스님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장=월중 △인사국장=갈지 △교무국장=월도 △의전국장=개문 △교육국장=필화 △재정국장=지도 △시설국장=마갈 △사회국장=갈웅 △영농국장=장호 △규정국장=경혜 △지도국장=설혜 스님. 이경숙 기자

교육부 "교과서 불교오류 개선"

교육부는 4일 조계종 포교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불교관련 내용 수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과서의 잘못된 기술이나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및 보완사항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문제의 내용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교육부는 "편찬기관별 집필진 위촉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음으로 기관별 개발책임자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집필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7차 교과과정에 의한 초 중등학교 교과용 개발 위탁기관및 편찬책임자 자료를 포교원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포교원은 9일 초중고교 교과서 불교관련 내용 연구보고서를 1종 교과서 편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과 17명의 편찬책임자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종립학교관리위 9일 회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0일 옅기로 했던 31차 회의를 2월 9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 9일 회의에서는 △동국학원 이사장 출석 보고 △종립학교 교역직 종무원 종헌 · 종법 위반 조사결과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정성운 기자

조계종 홈페이지 새단장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1일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전면 개편해 재개통했다.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어른말씀 무서워해야

'불교의식 집전 방법'
조계종 포교사단 펴내

조계종포교사단(단장 김병기)은 6일 불교의식 집전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포교지침서 〈불교의식의 이해와 바람직한 집전방법〉을 발간했다. 의식집전서에는 독경, 정근, 예불, 수계, 법회, 생일, 혼인, 입종염불, 조문, 영결, 가정제사 의식과 불교의식에 대한 해설이 실려있다.

김기병단장은 "포교현장의 시급한 요구에 부응키위해 만든 초본인 만큼 보다 완성된 지침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개화이후 불교사 한눈에 본다

근현대불교사연표 간행

한국불교 근 · 현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국근현대불교사 연표〉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개화기인 1865년 건봉사 강원 신설부터 1999년 정대스님의 종단협의회 회장 추대까지 130년동안 불교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국근현대불교사 연표〉에는 불교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단, 교육, 포교, 사회 · 문화 · 인물로 분류해 각각의 주요사안을 실었다.

교육원장 일면스님은 "한국근 · 현대 불교사 연표의 발간은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거울로 삼아 미래를 조망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연표 발간을 계기로 조계종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조계종 근 · 현대사도 편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H.ch Gallery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茗茶禪院

地鶴堂 혜천스님이 선(禪)수행으로 얻어낸 인간을 이롭게 하늘에 소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인 학변상도(鶴變相圖),전각적 상형문자에 언어로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수행에 결정체인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친필 선서화(禪書畵)특별보급안내 ※ 각 사암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각 사암 특별보급처 문의요망)



극락왕생승무 천도방생선망부모



단결노력근면 연화복덕학


석혜천『釋慧泉』 명다선원 운영


전국서점가 밀알 책보시용 주문


복덕성학 신년대운성취 복덕성취기원


부부심학 수영장수 부부화합 소원성취기원


사업성학 복덕구족 영업성업 사업성취


삼무선학 이사 여행 안전운행기원


가내백신불침지학 업장소멸 룡종퇴치 우환소멸기원


음향수학 남녀음양화합 복덕행운기원


인연성학 인연화합 결혼성취


관재멸학 관재 구설 송사 소멸원


가내화합행운학 무명장수성취원


심인지학 소아 안전 무사고


임원심학 학업소원성취 시험합격기원


삼두선학 사업 영예 권위 계약성취기원


입삼재멸학 수영 복덕장수 입삼재소멸원


중삼재멸학 수영 복덕장수 육은삼재소멸원


출삼재멸학 수영복덕장수 출삼재소멸원


연화복덕학 단결.노력.근면


퇴마기학 아귀.사마.소멸


동심수학 남.녀. 아 무병장수


선정관학 적정심 성취원


병고멸학 무병.신병.병고멸


칠성무학 득남득녀.자손창성


연화복덕학 가내외 행운성취


지장보살 기도용 액자


관세음보살 기도용 액자


심달마도외 업멸달마.수심달마


입월성신칠성민호도 가내 액운퇴치.복덕


천북용신도 호신수호.갑상


무학천마도 추진력성취

천도방생선망부모 극락왕생승무

마두관음 호신소형액자

해탈동자

문수 보현 한산 습득

천수천안관음 동심안 보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종무소 建立宗務所 / 혜천미술관 慧泉美術館 地鶴堂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5번지
전 화 : 031) 774-6953
핸드폰 : 011) 216-0306

장생불사 극락조학

가내 만사대길 복덕형운귀학

입심등학 안정.만남.귀환

여 · 재능성학 재능개발성취

남 · 재능성학 재능개발성취

순금.호신용카드 행운.복덕.소원성취

길상다리니거북 만사형통소원성취

옴마니반메훔 호신소형액자

봉운불사기획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화동 29번지
전 화 : 032)884-9332 FAX : 032)884-9333
온라인 : 국민은행 예금주 전승희 175-25-0001-318
○ 경기북 보급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송동 128-115호 삼작산 여래사
전화 : 02)381-0505 / Fax : 02)382-0503

목어

향기내는 물그릇

우물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우물에서는 맑디맑아서 푸른빛을 띠는 맛있는 샘물이 솟아나왔다. 우물의 소유자인 소녀는 물값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손님들이 주는 대로 받았다.

우물은 사막의 끝에 있어서 사막길을 걸어온 나그네나 물맛에 향수가 있는 사람, 소녀의 친절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은 이들로 늘 붐볐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샘물은 더 솟아 나왔고, 한번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았다.

어느 날 이 우물가에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행색의 청년이 나타나 물을 청했다. 소녀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기쁜 얼굴로 청년에게 물을 떠 주었다. 맛있게 물을 마신 청년은 감사의 표시로 가지고 다니던 향수병을 꺼내 물그릇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놀랍게도 그 이후 물의 맛이 더 좋고 은은한 향내까지 돌았다.

소녀는 계속 우물가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자가 신부감을 구하러 전국을 다니다 우물이 있는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우물이 있는 땅을 관리하는 태수에게 딸이 있었는데, 태수는 그 딸을 왕자의 눈에 들게 하려고 소녀를 쫓아버리고 대신 딸이 우물가를 지키게 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그녀는 거지차림을 한 왕자가 나타나자 물을 주기는커녕 욕을 하며 쫓아버렸다. 그러나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마차를 몰고 나타나자 황금 그릇에 물을 떠서 바쳤다. 하지만 왕자는 원래의 그릇으로 마시고 싶다며 태수 딸이 준 황금그릇을 밀쳤다.

할 수 없이 샘을 지키던 소녀를 찾아나선 태수는 못가에 서 있던 소녀를 못 속에 빠뜨리고 그릇을 빼앗아 자기 딸을 시켜 물을 올렸다. 기쁘게 물을 마신 왕자가 주인을 찾으니 물에 빠졌다고 일러 주었다. 놀란 왕자가 못가로 달려갔으나 소녀는 이미 죽고 그 자리에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그 꽃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그 꽃을 연꽃(蓮花:Lotus)이라 불렀다.

이 이야기는 아라비아의 전설이다. 수행자인 스님을 향기나게 하는 물그릇은 무엇일까?

법현(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6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월 승가대 '김포로' … 초파일 이전 '사면'

조계종 새해 청사진

2월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 완료, 부처님 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 6월 불교문화회관 착공.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1일 밝힌 새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올해 상반기 조계종의 주요 일정이다. 대규모 건축불사를 통해 종도들의 의지를 모으고, 화합 종단을 구현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제시한 올해의 청사진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종책 개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대스님은 이날 "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를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포함해 주요 종무방향을 사면 · 복권 추진, 종단 정체성 확립 등 6개 항목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중앙승가대 이전 완료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3월부터 새학기 수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포학사는 가준공 검사를 받아 새학기 수업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나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마련을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교육원과 기획실, 재무부, 학교당국이 김포학사 운영과 개운학사 활용 방안 마련, 중앙승가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면 · 복권 추진

정대스님은 99년 11월 취임 이후 줄곧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사면 · 복권의 실시를 강조해 왔다. 이날도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중인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면 · 복권 조치를 추진해 종단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장 추대는 총림의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로 이뤄지지만, 정대스님은 3월 종회에서 월하스님을 통도사 방장으로 추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화합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3월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되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사면 · 복권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대스님의 계획이다. 정화개혁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이 2월이면 모두 일단락되므로 종헌 개정안 통과를 낙관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11일 포교원장 정련 스님과 부 · 실장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새해 중앙종무기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론 수렴을 통해 종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종단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원로와 중진, 본사주지스님을 비롯 재가자도 포함한다.

●정체성 확립 · 교육 활성화

총무원은 올해가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일제하 조선불교 조계종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뜻깊은 해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봉행하여 사부대중 결집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불교 조계종 창립 60주년 학술토론회 △전통 수행체계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조계종단사-근현대편〉 간행 △태고보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종조 도의국사 선양 사업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단위 사업으로 제시했다.

도 수행 중심의 승가상을 확립하기 위해 행자교육 교재를 개선하고 상설행자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교육도 강화한다. 신도 기본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교재도 발간한다. 사찰 사무장과 종무원의 교육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남북불교교류 확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해 통일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종책을 수립한다.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문화재 복원불사를 위한 통일기금도 조성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북한 사찰에 남한의 불자들이 보내는 등 달기, 북한사찰과 자매결연도 추진한다.

총무원은 또 "환경과 생명 운동을 확대할 것이며, 인권과 복지, 국립공원제도 개선, 성보보존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찰 오수정화 시설 설치 및 친환경 사찰만들기 종합대책 마련 △본말사 환경교육 실시 △문화재 관리인 내 자료집 발간 △성보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아 불교문화와 사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연등축제의 확대 및 전통등 보급 △사찰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교정보화 추진

사찰종무행정 프로그램인 '가람지기'를 확대 보급하고 이터넷 포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교계 정보화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 본말사 종무행정 체계화를 위해 종무행정을 표준화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교문화회관 6월 착공 어떻게

"재정 마련돼 있다"

3월중 추진위 구성 … 내년말 완공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1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를 올해 6월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절차와 일정,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100억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37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회관 내에 박물관을 입주시키는 방안도 재정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추진위원회는 집행부와 중앙종회, 전문가들로 3월 중 구성된다. 실무팀도 꾸려진다. 곧바로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고 6월 중 공사를 시작, 2002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불교문화회관은 총무원을 비롯한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가 입주할 사무동(棟)과 문화동 등 2개의 건물로 구성된다. 문화동에는 불교중앙박물관과 각종 기관 · 단체의 사무실, 대형 회의실, 공연 · 전시공간이 들어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동 모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다.

불교문화회관이 들어설 위치는 현재의 교육원과 중앙종회 사무처가 있는 지점이며, 회관 준공 후 현 청사 건물은 철거한다. 덕왕전도 이전한다. 대웅전과 회관 사이의 폭 30m 공간은 녹지를 조성한다.

불교문화회관 건립과 함께 조계사 도량정비 불사도 본격화된다. 대웅전 앞 인쇄소와 을유문화사 건물 매입에 이미 나섰다. 또 서울시에서 우정총국 일대를 사적공원으로 지정하기로 8일 밝힘에 따라 조계사는 인사동-조계사-경북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정대스님은 이날 불교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관을 짓겠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올해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이며 "대작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지난 70년대에 현 청사를 건립한 이후 종단의 발전에 비하여 도량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며, 더구나 청사는 수차례의 종단 내홍을 거치며 훼손되어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을 어떤 사업 펼치나

종무행정 투명화 공부풍토 강화

태고종(총무원장 종연)은 5일 열린 2001년 종단 시무식에서 새해 종무행정 지표를 △공부하는 풍토 조성 △부장 중심제를 통한 투명한 종무행정 추진 △대승교화종단 위상 제고 △재정 안정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종무행정의 전산화를 마무리하고, 조직정비를 통한 종단의 응집력을 강화, 종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선양함과 함께 종도들의 종단관 확립을 위해 승려 및 교임의 연수교육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부하는 풍토조성과 관련 동방불교대학이 정식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선암사 강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종도들의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추진한다.

종단 기간조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장중심제를 통해 종무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중 장기 발전안 수립, 전구비구니회 전국교임협의회 태고부인회 전국신도회 한국불교청년회 등 산하조직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비를 꾸준히 해나간다. 대승교화종단 위상제고와 관련해서는 종조인 태고 보우스님의 탄신 7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걸맞게 종조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는 사상강연회, 논문집 발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봉행한다. 이와 더불어 보우스님의 부도탑, 비가 모셔져 있는 북한산 태고사를 명실상부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성역화 불사를 본격 시작한다. 한국불교의 정확한 법난사를 밝히는 세미나 개최와 태고종 종전 편찬사업도 착수한다.

태고사 성역화
복지사업 활성
재정안정 역점

4월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장경각에 봉안돼 있는 경판을 성보박물관 보장각에 이전하는 경판정대불사를 종단차원에서 봉행하며 성보박물관을 개관, 선원과 강원을 활성화하는 등 선암사를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불교교류를 활성화해 통일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지난해 계획했다 연기한 구족계 수계산림을 21년만에 부활해 6월중 실시한다. 또한 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설립 등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난해 개설한 종단홈페이지 태고넷의 콘텐츠를 강화해 인터넷 포교에도 역점을 둔다. 종단소속 각 사찰에 홈페이지 개설을 독려, 종단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종단 네트워크사업에 주력하며, 각종 자료의 체계분류 및 전산화를 가속화시킨다.

특히 태고종의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재정안정을 위해 먼저 종단에 대한 종도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공유사찰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책정하는 등 다각도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30년 축적된 어린이 · 청소년 · 일반신도 포교 자료집

전법도량 시범사찰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의 생생한 포교현장 체험 자료집들. 한 가지 수련과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하여 기획하고, 연구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장엄스럽고 상름하게 행사를 잘 회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들은 행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환희심이 물결치게 해줄 좋은 포교 지침서입니다.



• 현대판 음기도 영험록 **기도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 근간
신흥사를 찾은 전국의 수천 수만의 불자들이 기도 수행 공덕으로 일군 불가사의한 영험 모음집

최신간



청소년 포교 지침서
값 10,000원/440면/신국판
한 수인의 참회 편지를 보고 청소년 수련원 문을 열고 청소년 교화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란 연륜이 쌓였다. 그 오랜 세월 힘드는 줄 모르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정말 열심히 하였다. 그 동안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워 갔고, 그들이 벌써 부모가 되어 그들 자녀를 이 수련원에 보내고 있다. 이 책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 포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과 생애와 가르침을 미래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이루어진 실제 진행 자료들이다.
– 머리말 중에서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값 6,000원/346면/신국판
대중교화, 특히 어린이 포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원장 성원 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천한 사례들을 묶어 책으로 펴낸 것. 그 동안 어린이 포교활동을 하시면서 쓰셨던 글들과 어린이 포교의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어린이 불교학교 임장과 프로그램, 자료와 놀이지도, 설법, 예화 등을 관련 사진들과 함께 편집, 실제 진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이 법회를 처음 이끄는 스님이나 지도법사,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고 있다.



신도포교지침서上 연중행사편 –
값 8,500원/406면/신국판
이 책은 포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법 홍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안고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창안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였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상권은 모든 사찰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중행사들으로 행사 안내문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수록, 신도 포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도포교지침서下 특별행사편 –
값 9,500원/450면/신국판
사찰의 특별한 불사들은 불사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고 봉행할 때는 실로 막막하다. 이 책은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성일 스님이 특별행사 때마다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고산 큰스님께 여쭈어서 지도해주신 대로 봉행한 것을 정리한 자료들이다. 상량식 진신사리 탑 제막식, 법종 및 종각 불사, 가사불사, 보살계 수계불사, 시삼식, 화혼식 등 갖가지 특별한 행사의 안내문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 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수록하였다.

138-844 송파구 석촌동 160-1 | 전화(02)420-3300 전송(02)420-3400 | http://www.bulkwang.org E-mail:webmaster@bulkwang.org 불광출판부

일주문



日 부사학원 15돌 법회 참석

혜성 도선사 회주는 청담학원의 자매결연 학교인 일본 부사학원의 15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키 위해 15일 출국했다.



부산 삼광사 주지 맡아

도원 천태종 前 교육부장 스님은 5일 부산 삼광사 주지로 발령 받았다. 취임식은 2월1일 삼광사에서 열린다.



선원사 4천일 지장기도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6일 선원사에서 '선원사지 복원 4천일 지장기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선원 8돌 기념법회

초격 서울 광명선원장 스님은 7일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을 증명법사로 광명선원 개원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와 카오스' 특강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18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논현동 무불선원에서 '불교와 카오스이론'을 주제로 특강한다.



전주광역신도회장 취임

김백호 전주광역지역신도회장은 4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취임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불청 회장 취임

김규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은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회장이·취임식'에서 제 2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 별세



〈오세암〉을 쓴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9일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써 '성인동화'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정 씨는 전남 승주에서 태어나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꽃다발'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대한민국 문학상, 소천 아동 문학상, 세종 아동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 〈오세암〉은 오세암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로 다섯 살 소년의 성불이야기를 다뤘다. 동화의 소재와 주제를 크게 확장시킨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아 새싹 문학상을 받았다.

"자비의 등 손수 만드세요"

신사년을 뛰는 우 바 이 ②

봉축위 박상희 간사



부처님 오신날이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도 조계종 봉축위원회 박상희 간사(44)는 바쁘다. 조계종 총무원청사 1층에서 9일부터 시작된 전통등 강습회 현장을 찾아 이것저것 챙기느라 한겨울인데도 외투조차 벗어버렸다.

"올해 봉축행사도 연등축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등(燈)은 불교의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장엄물인데, 아직도 불자들 손으로 만든 것보다 공장에서 파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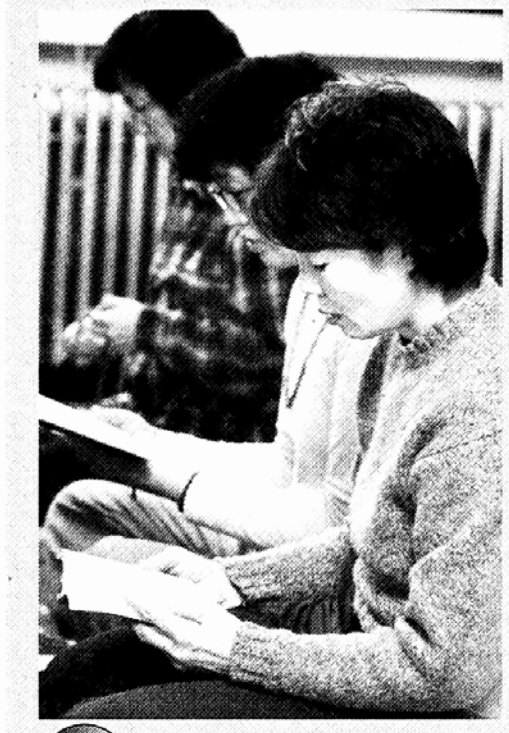
박 간사는 등문화 대중화를 올해의 화두로 삼고 있다. "불자들이라면 당연히 등을 밝혀야죠. 등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이며, 자비를 널리 펼치겠다는 서원의 표시입니다"라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간사가 등의 중요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다. 어떤 등을 만들까 고민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축제이기 때문이다.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 신도조직들간에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 사찰에서 하나의 장엄등을 만든다면, 등을 만드는 반 년 동안은 사찰에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연등축제'로 이름붙인 것은 96년부터.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올 연등축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연등축제는 여타 축제와는 달리 불자들 스스로 전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축제의 전형이 되고 있다. 연등축제와 함께 거리행사도 박 간사를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축제는 주객의 구분없이 스스로 참가해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축위원회는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간사의 축제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Focus

'수험생 부모의 기도

대입 논술고사와 면접이 있던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회장 이상명) 동아리방의 부처님 앞에서 10여명의 수험생 부모들이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루종일 추위에 떨면서도 교내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총불교학생회는 동아리 방을 기도 공간으로 제공한 것. 또 이날 수험생들에게는 재학생이 됐을 때 불교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게 친절한 상담도 해주었다.

고영배 기자

인 사

◇서울 관문사= △종무: 갈지 △재무: 덕중 △섭외: 성해 △노전: 석구 스님

◇부산 삼광사= △총무: 덕재 △교무: 도응 △재무: 거홍 스님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장: 김갑성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양창헌

"한-중 사찰결연 교류 강화"

中 종교학회 고문 추대 김재일 법사



"한-중간 불교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6일 중국인민공화국 종교학회 고문으로 추대된 김재일 법사(동산불교대학 이사장)는 "한-중간 불교문화교류를 통한 민간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동산불교대학에 중국학과를 신설해 중국문화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법사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진지 2천년을 지나온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며 새롭게 부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며 "문화혁명이후 50여년간 쇠퇴기를 지나온 중국불교가 한국불교를 모델로 일어서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국 불교간 협력은 함께 공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법사는 "정토불교의 발상지인 중국여산 동림사와 자매결연을 통한 양국간 염불운동도 전개하겠다"며 "중국진출을 통한 북한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토론과 사색의 넷공간 만들터"

천리안 불동 김용태 회장



"게시판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너른들판'과 '장경각'에서 불교 소양을 높여 침체된 천리안 불교동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랍 29일 천리안 불교동호회 11대 대표 시삽으로 선출된 김용태(32·동부한농근무) 씨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불교 시사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너른들판'의 침체가 천리안 활성화의 걸림돌이라 생각해 시삽이나 운영진이 좋은 토론 주제를 찾아내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제나 문제제기 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년간 선배들의 원력과 노력으로 많은 불교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장경각'이나 공부방을 통해 회원들이 불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모임 및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해 침체된 천불동에 생기를 불어넣을 생각이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부산불교신도회 신년 하례법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가 주최한 신사년 불교계 인사 신년하례회가 5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등 5백 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강선태 회장은 "부처님의 정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이타의 실천행으로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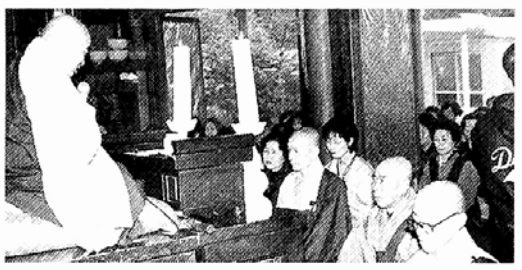
서울·경기포교사단 신사년 정진법회

서울·경기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6~7일 양주 회암사에서 서울,경기포교사단 포교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맞이 발원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병 단장은 "올해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지원 및 조직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의식, 상담, 스피치, 사찰안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선우 청소년 겨울 캠프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5~8일 충북 음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13회 청소년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전래놀이, 화엄법계놀이, 영화를 통한 불교의 재해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청소년 50여명이 참석했다.



대원사 기금마련 만등불사 입제

조계종 대원사(주지 법지)는 9일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입제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산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잇는 바른 행"이라며 "좋은 뜻으로 시작된 만등불사가 회향되어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행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대법회

새해를 맞이하여 교승대덕스님과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각급 주요단체장님을 모시고 신년하례를 겸한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경제의 회복과 사회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체대비와 동사섭의 정신으로 화합하여 국운을 되살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이 법회에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의 관심과 적극 동참을 바랍니다.

— 안 내 —

■일 시 : 불기 2545년 1월 19일(금) 오후 3시
■장 소 : 하림각 특설법회장(세검정)
■법회내용 : 부처님께 하례, 축원, 봉행사, 대통령메시지, 기원사, 발원문
■후 원 : 문화관광부
■문의전화 : 사무국 (02-732-488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 합장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2월 24일

모집 내용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TAPE수강)
· 인터넷 수강가능
(Homepage : http://www.moobool.com)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 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발표
2001년 2월 26일~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 강좌

과 목 명	강 사	요일 및 시간
선어록 강독	홍선스님(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주간 / 14:40~16:10(화)
		야간 / 18:50~20:20(화)
선과 서양철학	심재룡(서울대 철학과)	주간 / 14:40~16:10(월)
		야간 / 20:30~22:00(화)
한국선사상사	최병헌(서울대 사학과)	주간 / 13:00~14:30(화)
		야간 / 18:50~20:20(월)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 학 식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 http://www.moobool.com
E-mail :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 불 선 학 대 학 원

직장 불자들 '경전삼매'로 겨울나기

감사원불자회,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유니텔 불교동호회, 금강회 등 많은 직장직능불자회들이 경전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며 내실 다지기로 새해를 열고 있다. 특히 경전공부에 대한 직장불자들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단체 조직력과 불자회 운영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원불자회 천수경 강설 법회
서울 정신병원 한글 아함경 강독
경산 조폐창 금강경 독송 신행

감사원불자회(회장 노옥섭)는 9~11일까지 3일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천수경 강설법회를 봉행했다. 정초부터 조직개편, 업무보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회에는 회원 20여명이 동국대 김호성 교수의 천수경 강의를 들었다. 감사원불자회가 새해부터 천수경 강설법회를 계획한 것은 법회시간에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의 이해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장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다. 참석자들은 교재인 〈천수경(민음사)〉에 감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적으며 어느새 경전삼매에 빠졌다.



◇신사년 새해, 많은 직장불자회들이 경전공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며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불자회 천수경 강설법회.

노옥섭 회장은 "올바른 수행과 실천은 올바른 불교관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자들이 경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짧지만 3일 동안의 천수경 강설이 회원들의 신행활동과 불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교대 근무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회장 김주효)도 경전공부를 통해 불교공부를 체계화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지도법사인 명성여고 이학주 교법사로부터 부모은중경, 초발심자경문, 율장 등의 경전을 배웠고, 지난 15일부터는 한글 아함경 강독을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강독은 아함경 가운데 재미있고 기초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우선적으로 강의한다. 매주 한차례씩 열리는 경전공부법회를 계기로 자주 만나다 보니 애경사가 발생하면 위문을 하는 등 회원 상호간의 유대가 높아졌고, 이는 불자회 운영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창립한 국립춘천정신병원불자회(회장 이경덕)도 병원이라는 특성에 맞게 약사여래경 강의를 매달 한차례씩 열며 불심을 다지고 있고 지금은 창립 당시보다 회원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삽 오기석)는 8일부터 조계종 국청회 법당에서 아함경 강의를 시작했다. 온라인상의 경전공부방에서 회원 개개인이 경전공부를 하고 매달 첫째주 오프라인에서 동국대 조용길 교수를 모시고 강의중심이 아닌 질의 응답 및 토론방식으로 아함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있다. '배워야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야 발전할 수 있다'는 옛 성현의 말처럼 이들은 경전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사고하면서 불교관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강남포교원에서 참선방을 열어 수행정진하고 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오기섭 대표시삽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경 공부가 신입법우와 초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도 경전공부를 기획했다"며 "꾸준한 공부를 토대로 한 수행과 보살행 실천으로 회원 모두가 일당백 포교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수)는 지도법사 정악(대구불교회관 보리원 주지) 스님을 강사로 지난해 11월 넷째주 법회부터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 20여명의 회원들은 모두 기본교리강좌를 이수한 법우들. 얼흘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내 법당에서 교리부장에게 불교에 대한 기본 소양을 집중적으로 배워 불교소양을 익힌 이들이 지금은 경전 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는 독실한 불자로 거듭나고 있다. 윤종우 회장은 "그 동안 뜻도 모르고 수지 독송한 금강경을 공부해 신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금강경 강좌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회원들이 금강경 수첩을 들고다니며 여가시간에 독송하는 등 공부하기 전과 다른 신행모습을 보이고 있고 법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회장 전진한) 회원 20여명도 인근 성주사 수다라경전학교에서 유식 강의를 듣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회원들이 지금은 경전공부를 통해 타력에서 자력으로 신행패턴이 변했고 나름대로 불자라는 자부심도 높아져 불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 외에 경주구치소 불심회, 운불련, 창원 한중법우회, 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도 꾸준히 경전공부를 통한 내실다지기에 주력하고 있고 석불회, 국립의료원, 한일병원 등 많은 직장불자회들도 침체된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경전공부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8일 명동성당에서 3대 개혁입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원하고 있다.

"정의 바로서는 나라 만들자"

종교인 '3대 개혁입법' 제정·폐지 기원대회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 운동가들의 단식농성이 12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민, 종교인 기원대회'가 8일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에서 열렸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인 50여명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운동가들의 단식을 지지하고, 개혁입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수경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3대 개혁입법 실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투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완결지어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서고 의로움과 공정함이 흐르는 진정한 화합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불교계에서 수경, 도법(실상사 주지), 명진(조계종종회 부의장)스님 등 32명이, 기독교에서 김광수 목사 등 26명이, 천주교에서 문정현 신부 등 60명이, 원불교에서 이정택 교무 등 24명이 참석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재경 기자

환경사업 기금 신청하세요

민간단체 진흥회 재정지원

지난 94년부터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는 1월31일까지 2001년 지원사업계획을 공모한다.

지원내용은 2001년 3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이며, 대상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단체이다. 지원원칙은 1개단체 1개사업에 한하며 신청금액은 2천만원이하이다.

불교계에서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주로 교육사업과 환경네트워크분야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맑고향기롭게모임이 총무원사회부, 불교신문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함께 진행한 사찰생태문화기행 프로그램의 사업지원을 받은 바 있다.

신청서류는 www.kengo.or.kr에서 다운로드.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ARS 후원 전화 개통=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ARS 후원전화 (02)700-0807을 개통했다. 각 가정의 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가능하며 1회 통화시 3000원의 후원금이 적립된다. 후원금은 불우이웃을 위한 결연사업, 물품후원, 무료급식 등으로 사용된다.(02)806-1376

▲우리옷 바자회=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15~20일까지 복지관 지하매장에서 우리옷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042)633-1141

강좌

▲옷 만들기=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27~31일까지 4박5일 동안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제 5기 옷 만들기 강좌를 실시한다. 자원활동가 김성희씨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바지, 치마, 조끼 등을 실습을 통해 직접 만든다. (02)733-1884 김혜수

▲불교문화와 반야심경=광주불교문화대학은 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불교문화대학 강의실에서 불교문화와 반야심경을 주제로 무료 강의를 개최한다.(062)228-9098

▲묘법연화경=양산 반야암은 19일부터 묘법연화경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지안 통도사 강주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055)382-3211

모집

▲미술강사 및 청소년신문 기자=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을 지도할 강사와 부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창간 예정인 '청소년신문' 기자를 모집한다.(032)677-0108

▲전문편집인=민족사는 IBM컴퓨터 사용 가능한 경력 2년 이상의 전문편집인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원서접수는 1월27일까지다.(02)732-2403~4

▲여성장애인 모임 단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 권익옹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인 '별이 되는 사람들'의 단원을 모집한다. 강북구 및 인근지역 거주 20~40세 미만의 지체장애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야외나들이 소식지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02)989-4215~8

▲독거노인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어르신들에게 차량운행 서비스를 통한 밑반찬 배달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와 밑반찬*서비스에 필요한 1회용 용기를 기증할 후원자를 모집한다.(02)2203-0855

이전

▲월간 여성불교 사무실 서울 중구 1가 3-6 서울빌딩 507호로 이전했다.(02)2285-6796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38-3 조계사내 종앙종회 건물 3층으로 이전했다.(02)730-8586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은 구랍 27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505호로 이전했다.(02)701-6830

우리 모임에선

법륜교수회 부석사 순례

법륜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는 13~14일 영주 부석사로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다. 경산대 성동환 교수의 불교와 풍수지리학 강의, 근일스님 법문, 부석사 문화재 소개 및 가람 탐방 등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교사불자련 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경주 불국사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유산 답사, 석굴암, 경주남산 등 경주 불교유적지 참배, 예불 및 108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11-740-9494 조건균

대전청사반야회 수덕사 참배

정부대전청사 반야회는 13~14일 수덕사로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관세청, 통계청, 특허청, 철도청 등 대전정부청사내 7개 정부부처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순례법회는 문화재청 김창균 문화재 전문위원의 사찰 소개와 1080배 철야정진 등으로 진행됐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지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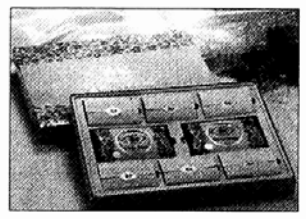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http : //www.dongsanbud.org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괘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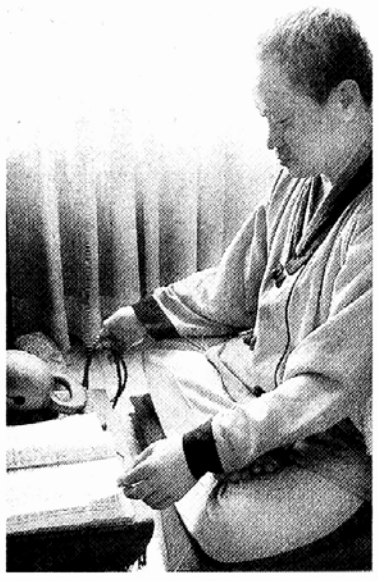
※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새벽 예불…저녁 독경…"철저한 불자"

신행현장 MBC불자회 장영효회장



◇독경삼매에 빠져 있는 장영효 거사. 장거사는 매일 30분 독경으로 하루를 정리한다.

야구 중계방송을 듣다보면 어떤 선수를 지칭해 '공·수·주 삼박자를 갖췄다'는 해설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공격, 수비, 주루플레이를 모두 잘한다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야구선수임을 일컫는 것이다.

MBC 불교신행단체인 '불교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영효 거사(51·관리운영국 위원)는 '신행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불자다. 직장·사찰·개인 신행 생활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8일 오후 서울 강남 도곡동 역삼한신아파트. 월차휴가중인 장 거사는 이날도 어김없이 〈금강경〉 독경삼매에 빠져 있다. 편안한 생활한복 차림의 장 거사는 한 손에 염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전을 넘긴다. 이렇듯 장 거사의 일상은 불교로 시작하고 불교로 끝을 맺는다.

장 거사는 매일 새벽 3시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재적사찰인 봉은사엘 간다. 새벽예불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다.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벌써 6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빠진 날이래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2시간여의 예불과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출근준비를 한다.

"처음엔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서 안될 게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해서는 바삐 돌아가는 격무 속에서도 불교연구회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들과의 교류는 물론 정기법회, 성지순례 등의 일정과 프로그램 등 각종 현안을 꼼꼼히 챙긴다.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96년 5월 불교연구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기에 어느 누구보다 불교회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대단하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시에 이사람 저사람을 찾아다니며 불교회를 만들자고 외치고 다녔던 것 자체가 장 거사의 깊은 불심을 그대로 말해준다.

장 거사는 웬만해서는 사람들과 저녁약속을 하지 않는다. 저녁시간은 〈금강경〉 독경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보통이다. 4년전인 97년 1월1일 저녁, 새해를 맞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금강경〉을 손에 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끔은

직장법회 이끌며
'더불어 신행' 실천
휴가땐 사찰순례

아내와 아들 호준이(포항공대 1년)도 함께 한다.

"처음엔 그저 경전 한 번 읽어보자고 한 것뿐인데 매일 독경을 하다보니 그 깊은 이치에 점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아직 〈금강경〉의 깊은 이치를 깨치진 못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공부도 없을 겁니다."

93년부터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부모님과 함께 봉은사 일요법회에 참석하곤 했던 장 거사는 신도회 총무를 맡으면서 사찰과 신도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새벽예불을 권했던 아내는 물론 호준이도 봉은사 도반이자 신심깊은 불자다. 호준이는 지난해 포항공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 호준이는 "아버지의 정성이 있었기에 그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장 거사는 지난해까지 모두 10여차례 이상 3천배 정진을 했다. 새벽기도를 나갔다가 우연히 한 도반이 3천배 정진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냈다. 1천배 정진은 몇 번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을 정도다. 휴가나 휴일이면 사찰순례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

"어떤 서원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밝히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도 설날 전까지 3천배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장영효거사에게 있어 삶은 곧 공부고 수행인 셈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누가 참된 스승인가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듯, 불법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원효는 대안대사를 만났고 혜가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역대 조사들도, 큰 스님들도 다 눈밝은 스승을 만나 인도를 받았다. 이 혼탁한 세상에 중생의 심안을 밝혀줄 스승은 누구인가?

승보에 귀의한다 함은 스님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다. 자·비·희·사의 구도정신,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정진력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단지 삭발염의한 모습이 남다르다 하여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다. 금강경은 분명히 '상으로 여래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친다.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어쩌자고 임제 스님은 이런 과격한 선언을 했을까?

이른바 임제 스님의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정신은 '자기 밖의 스승'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요, 타력에 매달리는 중생에 대한 경고이다. '너 자신' 밖의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설사 내 앞에 달마대사가 있다 해도 깨닫는 주체는 '나'이지 달마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깨달아 줄 수는 없다. 밖에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만약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상 숭배자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인 것이다.

선지식은 지팡이요 목발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이정표이다. 음식점의 메뉴판이요 땅의 대강을 보여 주는 지도(地圖)이다. 결코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혜가의 스승은 달마대사였지만 깨달은 이는 혜가였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 먹고 배부른 것은 혜가였지 달마가 아니었다.

무엇이 참 스승인 줄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마도, 대안도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신비와 초월적 힘 이끌린 타력신앙은 불교아니다"



대효스님
제주 원명선원 회주

불법에는 나 자신이 무한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부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법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네 할머니가 손자를 곁에 앉히고 옛날에 들었던 동화를 재밌고 알아듣기 쉽게 들려주듯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있는 법을 아셨을 뿐 한 법이라도 만들거나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아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바로 '중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있는 이 법을 알아서 쓸 수 있는 분이 깨달은 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에 의지하라. 그리

내속에 무한한 지혜
'법에 의지하라' 상기

고 법에 의지하라"고 설하셨습니다.

지혜가 넓어지면 번뇌는 엷어지고, 번뇌가 엷어지면 지혜는 깊어져서 넓고 깊은 지혜는 맑고 밝아 사물을 바로 보게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로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대하는 대상인 이 세상과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구속하지도 해탈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대상 즉 내가 상대하는 세상, 나와 일, 관념등 모든 대상이 나눠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관이 없으면, 나를 상대하는 대상인 객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세상은 갈라지려 해도 갈라질 수 없습니다. 나와 남, 나와 세상을 가르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재가 아니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물론이요 선도 버려야 악을 해결합니다. 증오(憎惡)와 사랑을 함께 버려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곳을 떠나서 저 곳으로 갈 곳이 있다면, 이 곳과 저 곳을 가르는 것이니, 이 또한 불교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서방정토를 갈 곳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아니며, 구하고 구할 대상으로서 불보살을 의지처로 삼는 것 역시 불교가 될 수 없습니다.

타력신앙을 강조하는 한 바른 불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불교에서 염불, 주력이 너무 타력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의지처로 삼는 내로라하는 스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감히 누가 나서서 거역하겠는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염불만을 권하는 것이 불자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까요? 그러나 불법의 원리는 한 시대 스님들의 말에 있기보다 법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을 갈라놓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지혜에 반하는 것이며, 이런 삼매는 바른 삼매가 되지 못하며, 삿(邪)된 삼매는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집착에 빠져 있으면 욕망을 성취하려는 자극에 쉽게 넘어가 신비와 초월적인 힘에 매료되기 십상입니다. 지혜의 종자를 말살하니 자신을 어리석고 무력하며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비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나머지 외적 욕망으로 충족하고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또 그런 눈으로 대상을 가름합니다.

타력신앙의 풍토가 지배하는 오늘날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치인들 그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바라는 불교는 타력신앙이 아닙니다. 지혜의 종교인 불교가, 새해엔 더 이상 타력에 의존하는 신앙에 발목이 잡혀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1월 18일 (목)

■조계사 관음기도 회향=조계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연담스님을 모시고 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2)732-2115

■무량회 부처님 이운식=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는 오후 6시 올림픽회관에 있었던 법당을 올림픽 수영장으로 확장 이전하고 부처님 이운식을 봉행한다.(011)9879-1494 이완배

■장기기증 캠페인=생명나눔실천회는 21일까지 제6회 설악눈꽃축제에서 장기기증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02)734-8052

1월 19일 (금)

■종단협 신년하례법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후 3시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국운번창 및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26개 종단협 소속 종단 총무원장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다.(02)732-4885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개원식=진각종 진각복지회는 1시 30분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개원식을 거행한다.(02)914-8556

■불교의상 제안전=불교의상디자인연구원은 오후 2시 30분 불교방송 3층에서 제1회 한국 불교의상 제안전을 연다. 이날 육법공양법복, 신행활동복 등이 발표된다.(02)756-7516

■좋은벗들 통일강좌=좋은벗들은 오후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이종훈 국회연구관을 초청해 '까레이스키·고려인·재러동포'를 주제로 통일강좌를 개최한다.(02)587-8996

1월 20일 (토)

■동화사 철야용맹정진=대구 동화사는 오후 9시에서 21일 새벽 3시30분까지 설법전에서 철야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한다.(053)982-0101

1월 21 일 (일)

■강남포교원 달마어록 강설법회=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원장 성열스님을 강사로 달마어록 강설법회를 봉행한다.(02)539-2631

1월 22일 (월)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아함경 강독법회=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는 정오 병원내 법당에서 명성여고 이학주 교법사를 모시고 아함경 강독법회를 봉행한다.(02)2204-0115

1월 23일 (화)

■봉은사 미륵천일기도 200일 회향법회=봉은사는 오전 10시 미륵전에서 미륵천일기도 200일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2)547-4255

200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범 패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2. 응시 자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3.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4.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년 1월 15일(月) - 2월 17일(土)
(평일은 10:00-17:00, 트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 : 2001년 2월 18일(日) 10:00 - 17:00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8.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9. 기 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여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6)

동 방 불 교 대 학
(우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02)763-0229, 763-8536



박태원 교수의 21

불교로 보는 신생

"나는 텅 비어버린 무아의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노력 끝에 그런 체험이 오던가요? 체험 이전과 이후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체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주던가요?" "아, 글쎄요. 뭐 그런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예전에는 전혀 맛보지 못하던 것이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런 저런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그리고 그 체험을 귀동냥하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최근에도 '깨달음을 단기간에 확실하게 얻는 수행법'을 만나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분과 대화를 했다. 그 분은 자신의 체험을 불교 언어와 결합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특별한 체험에 기대만큼 감동해 주지 않고 이모저모 세밀하게 음미해 보려는 나의 태도를 그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내 생각을 솔직히 전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그 특별한 체험에 갇혀 버린 게 아닐까요? 혹 그 체험은 당신을 활짝 열린 보편적 존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강하게 굳어진 자아의 과시와 방어를 위해 쉽게 화내고 공격하는 성향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존재 성숙의 길(向上一路)에서 비껴 나는 일이 아닐까요? 깨달음이라는 말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는 것인 지부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소개한 적 있는 진주 한의사 어른과 처음 만나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인상 깊었던 또 한 대목. "한의학에 입문한 뒤 처음에는 침술에 몰두하였습니다. 열심히 탐구하다보니 한방으로 기사회생시키는 침점이 직감되기까지 하더군요. 침술에 관해 한 소식 한 것 같아 자신만만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때 다시 자기 상태를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체득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의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면서 약 쓰는 법을 중심으로 기초를 다시 다졌지요."

팔정도를 보면, 참선 수행(正念) 앞에 '올바른 정진'이라는 수행 항목이 놓인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은 계속 나타나지 않게 하고, 이미 나타난 좋지 않은 것들은 없애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좋은 것들은 계발하여 드러나게 하고, 이미 드러난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라'는 것이 그 기본 원리. '올바른 견해'의 수립을 위시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종합적 자기 계발 과정〈생각 · 언어 · 몸 행위 · 생계 활동의 친(親)해탈적 조정 과정〉을 토대로 '참 모습 직접 확인 통로'인 참선으로 접어들기 직전에, 자기 점검 및 반성의 힘을 키우는 일이 '정진'(원어의 언어적 의미는 '올바른 노력')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의미가 깊고 또 요긴하다. 참으로 절묘한 구성이다.

정진력은 단순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다. 잠 안자고 앉아 있는 것을 '용맹정진'이라 부르는 것은 의미의 축소이다. 정진은 '강한 향상의 의지로써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힘 키우기'라 하겠다.

특별체험의 덫

"정진력 결핍된 채 내달리면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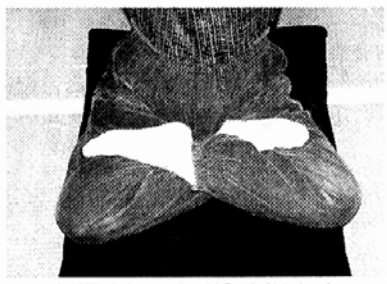
정진력이 결핍된 채 수행 길을 내달리면 위험하다. 모든 수행 체계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체험과 득력(得力)의 통로가 널려 있는 법. 목적지와 관련시켜 현 상태를 올바로 점검하는 태도와 힘이 결여된 채 참선으로 접어들면, 이후의 체험은 그것이 특별할수록 오히려 질기고 강한 족쇄, 깊은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대 궁핍에서 탈출하려는 한국인의 강한 집념과 그 놀라운 압축 근대화. 그러나 어느 덧 우리는 그 특별한 체험에 갇혀 버렸다.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현 좌표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점검하며 반성하여 자신을 언제나 향상의 노선 위에 놓으려는 정진의 태도와 능력은 심히 결핍된 채 말이다. 비록 화려하지만 복잡하게 왜곡된 정치 · 경제의 특별 체험에 갇혀 버린 행보들이 심히 위태로워 보인다. 그 특별 체험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정진력을 키울 수 밖에 없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2개의 방석을 준비, 하나는 바닥에 바르게 펴고 또하나는 포개어 뒤쪽에 놓는다.



◇양쪽다리로 포개고 앉은 결가부좌모습.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을 올려 양손의 엄지손가락이 맞닿게 한다.

몸에 힘 빼고 허리 곧추세워라

참물자의 길 참선②-올바른 자세

호흡 자연스럽게 초심자는 반가부좌

일반적으로 선(禪)은 마음을 가다듬어 무아적정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을 일컫는다. 재가불자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는 스님들은 자세를 묻는 질문에 "먼저 방법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 수행에 있어 자세는 방편일 뿐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초심자들의 경우 자세는 마치 계곡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처럼 중요하다.

그렇다면 참선 정진에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서울 강남 무불선원 동안거에 동참한 30여명의 재가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성산 스님을 만나 재가불자에 맞는 좌선 방법에 대해 들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2개의 방석이다. 하나는 바닥에 바르게 펴고, 다른 하나는 뒤쪽에 포개어 놓는다. 방석 자체가 좌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방석을 필요로 한다. 좌선이 잠깐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방석 없이 바닥에 앉으면 신체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줄이고 정진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방석이 중요하다. 방석은 얇은 것보다 두꺼운 것이 좋다.

앉는 방법은 양쪽 다리를 포개는 결가부좌(結跏趺坐)와 반가부좌(半跏趺坐)가 있다. 좌선수행에 있어 결가부좌가 가장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오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초심자의 경우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주로 반가부좌를 한다. 결가부좌는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리면 된다. 반가부좌는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두 자세 모두 왼쪽다리를 위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는 번뇌망상을 가라앉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 내 · 외의 마를 제압했다는 항마(降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손은 다리 위에 놓는데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맞닿게 한다. 그리고 몸 전체의 힘을 빼고 허리를 곧추세운다. 이 때 지면과 배꼽 그리고 코끝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또 좌선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부딪치는 문제가 눈의 처리다. 시선은 전방 1m지점을 향하면 되는데, 본다는 생각을 하지않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몸은 삼각형 모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좌선의 가장 안정된 자세다.

좌선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하지만 호흡은 보조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산 스님은 "호흡에 치중하다보면 화두는 커녕 호흡하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고 고르게 호흡을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지나치게 호흡에 신경 쓰다보면 좌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호흡의 분별심을 끊을 수 있어야 일심으로 화두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이 중요한 이유다.

성산 스님은 "선 수행이란 잡념을 잘 다스리는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자세와 같은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제대로 좌선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禪과 21세기

화두는 '말'을 넘어 '마음' 가리키는 말

42 선과 언어 (6)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선의 본질은 이해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아서 알게 된다. 맛을 본다는 것은 언어적 논리적 이해가 아닌 체험을 말한다. 이 체험은 흔히 '물을 직접 마셔보고 스스로 그 차가움과 따뜻함을 안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선에 대한 언어적 이해를 넘어서 직접적 선 맛보기로 나아가는 길로서 조사선에서 개발한 독특한 방편이 바로 화두(話頭)이다.

'화두'란 '말[言語]'인데 겉으로는 '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말'을 넘어서 '마음'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화두를 해설할 수는 있으나 화두의 해설을 '말'의 의미로서 이해하였다고 하여 화두를 깨친 것은 아니다. 화두를 계기로 하여 '마음'을 직접 깨달아 맛볼 때에 비로소 화두를 깨쳤다고 한다. 여기서 화두를 해설할 경우 중요한 것은, 지식적 이해를 저지시키고 직접 체험으로 요령껏 이끌어 주어야 하는 점이다. 선지식의 지도력은 얼마나 체험으로 잘 이끌어 주느냐에 있는 것이지, 흔히 보듯이 무조건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언어의 금기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선에는 어떠한 규칙이나 격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개의 화두를 해설해 보겠다.

잘 알려진 화두 가운데, '삼라만상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 一歸何處]'라는 것이 있다. '삼라만상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은 쉽게 이해되는 말이다. 예컨대 기독교에서라면 하나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불교라면 마음-일체유심조를 상기하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든가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여, 하나님을 알았다거나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하나님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하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은 하나로 돌아간다'처럼 의미를 통하여 진리를 표현한 말을 교(敎)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는 '삼라만상은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의미로써 이해하지 말고 직접 맛보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禪)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다시 의미로써 풀이한다면 그 풀이가 어떤 것이건 그것은 요구하는 바의 해답인 선은 아니다.

〈전등록〉에서 보면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어느 것도 의미로서 해답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베옷을 한 벌 만들었는데 무게가 일곱근이었다."(趙州從諗) ㉡"스님 혼자만 바쁜 것이 아닙니다."(信州鵝湖智孚) ㉢"묻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군."(洪州百丈安)

이 답들은 사실 묻는 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그러나 이 말들이 해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들은 일종의 모범답안으로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들을 지금 여기서 누가 해답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한 흉내내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누구나 자기만의 정답이 있는 것이고, 그 정답은 스스로 맛을 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맛보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맛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선 언어로써 형상화된 체험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 경험중인 사건으로서의 체험 그 자체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언어화되어 나온 의미-형상화된 관념-가 아니라,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음'이라는 현재진행의 일을 가리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선의 맛봄'에는, 늘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체험이고 형상화되지 않은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임제(臨濟)는 이러한 체험을 '지금 눈앞에 드러난 작용[即今目前現用]'이라는 말로써 즐겨 나타내었다.

2001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최고의 불교학교수님들이 펼치는 주옥같은 강의로 불교의 진수를 만나보십시오.

☞ 최봉수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현재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인터넷 불교대학 책임교수.
지서로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원시불교와 초기대승불교 사상》《근본불교의 가르침》 외 다수.

☞ 장휘옥
부산대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 졸업,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지서로 《해동고승전연구》《불교학개론강의실》《대승기신론 이야기》 외 다수.

☞ 허경구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 불교학 박사.

☞ 김사업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불교 전공.
일본 국립 경도대에서 인도철학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초빙교수
월운 스님, 혜거 스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 넉넉한 교육환경
학년별 강의실과 큰법당, 참선실 등 넉넉한 교육신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층 1만 여권의 불교학술 및 교양도서는 교수님들의 명 강의와 더불어 폭넓은 불교공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불교계 각계 각층에 포진한 대원불교대학 동문들과 만나 보십시오. 생생한 불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동 · 하계 수련대회와 전국순회 강연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열린불교, 대중불교의 실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 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포교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2년제 야간전문 불교대학이다.
1972년 고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원정사를 설립하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고자 「自我를 發見하고 地上에 樂園을 이룩하자」는 설립이념 아래

☞ 1972년 대원불교강원(2년제)을 개설하여 원전강독을 시작하였다.
☞ 1974년 대원불교교양대학으로 개칭하여 법사과와 통신과를 신설하다.
☞ 1982년 대원불교대학으로 개명하고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출가, 재가 사회 각급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교대중화운동의 기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 1997년 미국지역에 대원불교대학 분교(워싱턴, LA)를 설치하여 국제포교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지식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의식수련 등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존경받는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전당이다.
☞ 2000년 대원도서실 개관.

2001년 대원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강의시간 3월 1일 개강, 주 3일(화, 수, 목) 출석, 야간 수업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6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2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7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 범사과정 이수 후 범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이렇게 들었다

DNA와 業

생명현상의 엄정한 인과법

"세계는 업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도 업에 따라 존재한다. 수레바퀴가 쐐기에 얽혀 굴러가듯이 생존하는 모든 것은 업에 속박 당하고 있다." 〈숫타니파타〉

불교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업'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조건은 과거 업의 소산이며, 현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래의 업을 정한다' 는 사상이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등 정신적 육체적인 행위 모두가 업의 요소가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전자 검색기술을 이용해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DNA(디옥시리보핵산, 유전자)와 업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야뢰야식과의 상관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현대과학의 최대 발명은 컴퓨터, 최대 발견은 DNA구조 규명' 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DNA는 모든 생물의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유전자의 본체다.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며, 생명체의 속성을 규정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근본식인 아뢰야식에 비견된다.

인간의 마음(識)의 상태를 여덟 가지의 단계로 설명하는 유식론에서 제8 아뢰야식(藏識, alaya-vijnana)은 가장 근본적인 의식으로 지칭된다. 제7 말나식에 의해 상주불변의 자아로 착각, '집착' 되는 이 아뢰야식에 습기(習氣, vasana)의 형태로 종자(種子, bija)가 '저장' 되어 아득한 옛적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이 식의 흐름이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물론 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는 DNA 속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단순한 생리학적 저장물은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정신적 힘, 에너지(功能差別)' 로서, 정신현상의 주체와 작용이 발생 ·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윤회를 끊고 해탈을 이루는 주체로서 차별성이 있다.

"온갖 중생은 제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몸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하나하나 제 몸과 사는 세계와 수용해 지니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현상이, 업을 제쳐놓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화엄경〉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규칙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일을 하고도 마음에 께름칙한 구석이 없다면 아마도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사람일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부자간의 비밀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간직하고 있는 DNA.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일들을 빠짐 없이 저장하는 아뢰야식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하루하루를 별 생각없이 무심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정한 인과의 법칙은 일상의 반듯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타' 좇는 청소년 '올바른 氣 살리기'

불자세상보기

어느 시대인들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놀라게 해 주는' 재주를 한 번씩 보여주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만, 20세기만큼 청소년들이 기존의 상식을 깡그리 뒤엎으며 전혀 낯선 것을 끊임없이 가져와 어른들과의 충격적인 '차별' 을 계속 선언한 적은 없다.

옛날 타령을 좀 하자면 농경시대 패션에는 거의 변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의 패션은 거의 모든 스타일이 선보이며 어지러운 바람을 한 번씩 일으키고 지나갔다. 지난 10년만 따져도 청소년들은 내의가 들여다보이는 초미니 스커트나 핫팬티로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하거나 바짓가랑이를 길게 늘여 그 바지 아랫단으로 길거리의 먼지를 휩쓸고 다니는가 싶더니 드디어는 머리카락을 노랑 빨강 초록 보라 등으로 물들여, 기괴함마저 보여주기 시작했다. 기성세대도 지난 한 세기의 어지럼증에 이제 얼마간 면역이 생겼는지 컬러풀한 머리 색깔 등 패션의 변화에 지금은 그다지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곤란한 것은 그런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인기 스타들을 무리 지어 따라 다니며 괴성을 질러대고 기절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클릭 B' 라는 남성 7인조 보컬그룹을 무리져 환호하며 따라 다니던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자기안에 '나' 아닌 '허상' 채워 자기상실 '마음다스리는 법' 어른들 모범보이자

'서태지와 아이들' 이 은퇴한다고 했을 때 이를 막아 보겠다고 자살예비군까지 마련했다던 팬클럽이며, 유명 외국 가수 공연에서 '무더기 기절' 로 가수의 인기도를 증명해 보였던 '극성 팬 현상' 은 분명 20세기 한국 사회의 어지러운 변화상의 하나였다.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리' 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나' 라는 존재는 인기스타에 매몰되고, 그런 '나' 를 되돌아볼 시간마저 박탈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 안을 '내' 가 아닌 '다른 사람' 으로 채우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좇는 것이다. 자기를 빼놓고 무엇을 찾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사회의 '자기상실' 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인 셈이다.

여기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진부한 지적일 수도 있겠으나 첫째 원인은 TV 등 대중매체들의 역기능적인 면과 각종 상업주의의 교묘한 계략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TV나 인터넷 비디오 등 영상정보매체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의 관심은 매체에 보다 많이 등장하는 스타나 그밖의 유명 인사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김징자
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위원

또 하나의 원인은 아이들의 기(氣)살리기에서 찾고 싶다. 20세기 한국의 교육은 자녀들의 기죽이기가 아닌 기 살리기에 있었다. 극성 팬 신드롬은 청소년들의 펄펄 살아있는 그 기(氣)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기 살려주기' 에는 성공했어도 스스로 '기' 를 어떻게 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려나갈 수 있는가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

기(氣)는 펄쩍펄쩍 뛰면서 기괴한 소리를 지름으로써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보다 잘 살리고 다스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배운다. 변화에 대한 어지러움으로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어른 세대들은 이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기 살리기' 와 21세기에 걸맞는 '올바른 가치관' 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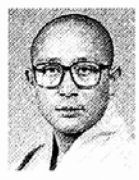
출 · 재가 위상 정립

최근 발간된 〈불교평론〉 2000년 겨울호에 실린 홍사성 불교방송 방송본부장의 '출가와 재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시론' 은 출 · 재가가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불신과 경계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출 · 재가는 서로의 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과 재가단체 대표자에게 들어보았다. <편집자>

"출가 세속화-재가 맹목성 경계"

수완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한국불교의 출가 수행자들 대다수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이 치열하게 수행정진에만 몰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출가교단이 무수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식민 불교정책으로 인한 세속화와 타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정의 노력이 정화운동으로 1954년부터 전개되었으나 운동전개 과정의 문제점으로 더욱 나빠졌다. 이후 반복된 종권분쟁과 출가승단의 타락은 승가의 위상과 도덕성을 추락시켰다.

비승가적 분쟁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교단재산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종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해방이후 40여 차례나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종권분쟁의 심화와 교단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출가승단의 타락에 신물이 난 재가자들은 교단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재가자의 교단운영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불 법 승 삼보중 승보가 되는 자격과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동일한 규율에 승복하며, 규율의 범위인 결계(結界) 즉 계율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재가자 또한 삼귀의가 그 자격과 조건의 첫째가 된다. 출가수행자와는 달리 전문적인 수행보다는 최선의 도덕적 생활과 보시를 통한 교단 외호자로서의 역할이다. 부처님께서 행한 교화의 내용을 보면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 진다.

출가자가 수행정진과 교화의 본분에 충실하려면 세속적 소유욕에 더이상 집착해서는 안된다. 재가자들은 출가수행자들이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하되, 특정인(스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오히려 교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단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감시기능도 함께 행사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 바탕 역할분담 모색"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최근 불교계에서 불교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구성원의 두 축인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관계재정립 및 역할분담에 관한 논란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출가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수행과 교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재가신자나 일반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 출가자에게는 수행과 교화에 대한 원력과 함께 도덕적 권위가 요구되며, 수행과 교화를 소홀히 하거나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출가자는 '거룩한 삼보' 로서의 귀의처나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재가자는 출가자로부터 부처님 가르침과 출가자의 수행의 내용을 배우고 실천함과 동시에 출가자의 교화활동을 직간접으로 도와야 한다. 특히 사회구조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부처님 정법의 올타리인 교단을 외호하거나 받쳐주는 일은 재가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서 재가자이기에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복지, 인권, 환경, 통일, 화합 등 중생구제 불사를 폭넓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여야 한다.

한국불교의 출가와 재가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출재가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특히 출가자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에 비해 불교교단의 미래를 더 이상 출가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 있다. 지난 반 세기의 교육부재와 상처 투성이의 출가교단으로는 효율적인 교화와 불교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재가자는 아직까지 출가자로부터 불교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이기보다 보시의 원천이나 동원의 대상으로밖에 대접받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출가공동체의 고유하고 민감한 일부 사안을 제외한 교단운영 전반에 출재가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위상정립과 역할분담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재가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출가 수행전념 재가 교단외호"

홍사성씨 '불교평론' 에 기고

재가연대의 교단정화 운동이 교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가의 출가 비판은 적절치 않다,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심의 발로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모양일까. 계간 〈불교평론〉 겨울호에서 홍사성 불교방송 보도본부장은 출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시론을 내놓았다.

홍 본부장은 "초기교단에서 출가중은 수행에 전념하고 그 결과를 재가중에게 설법하는 것이 임무였다. 재가중은 성심을 다해 출가교단을 외호하고 공양하는 것이 임무였고 역할이었다" 고 밝히고 이같은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출가중의 역할을 수행과 교화로 전문화하는 것이다. 출가중이 이런 역할에만 충실한다면 종교적 권위는 물론이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둘째, 사찰운영과 같은 세속적 업무는 재가중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재물을 가까이함으로써 출가중을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재가법사의 설법은 출가중 중심의 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 반대로 불공이나 예불과 같은 공양의식 집전은 오히려 재가자에게 허락하는 것이 옳다.

넷째, 재가중과 출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가중의 의견수렴 창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가중의 종회 참여는 어불성설이다. 정성운 기자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보이차(푸어차)는 인체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감비작용, 감기예방등 일반적인 차의 성분과 효능을 두루 갖춘 순수 자연 전통차로서 발효기간이 오래될수록 맛이 부드럽고 깊어지는 중국 명차이다. 이 책은 등시해(鄧時海) 교수의 "보이차(푸어차)"원문을 한글로 번역, "보이차의 종류 및 보이차란 과연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풀어 놓은 책이다.



『매 차마다 진기(陳氣)가 30년 50년 등은 반드시 그 차의 연도가 꼭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해당차 생산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년 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진기의 계산은 대략 기준 년도에서 몇년 짧을 수도 있고 몇년 길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푸어차를 애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차의 연도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성품에 맞는 차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차는 결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 주지만 다만 사람들이 차를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다" 고 스님과 茶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훌륭한 명차(名茶)는 돈과 명예, 권력이 있다고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믿고 싶습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

목 차
제1장 史話篇 제2장 陳香篇
제3장 品茗篇 제4장 茶普篇
附錄 푸어차의 의학적 증명
附錄 용어해설

지은이 : 등시해(鄧時海)
옮긴이 : 김동희(휴휴)
발행처 : 도서출판 대우문화사
값 : 50,000원

한글판 "보이차"
[중국운남 진년 푸어차]

판매처 : 푸어명가(普洱名家)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4-1 우삼빌딩 1층
전화 : 02) 544-9649, 019)553-3013 팩스 : 041)531-3986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한 약재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약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본사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진 입장

사·부·대·중

응담스님 49재날



주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연말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수덕사에 갔다. 1월 1일이 뜻밖에 응담(應潭) 노스님의 49재날이었다. 다비식을 마치고 한번도 재에 참석하지 못했고 스님이 떠나셨다는 생각조차 아직 가슴에 심어지지 않았는데, 어느덧 시간은 벌써 그렇게 지나고 있었다. 스님의 방문고리에는 여전히 스님의 손때가 그대로 남았고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발자취가 지금도 뚜렷한데, 무상(無常)을 업으로 사는 출가인이지만 시간은 아프도록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다시 실감했다.

인사를 드리려면 잘 받지도 않으시고 어쩌다 굳이 절을 받게되시면 "한번만 해, 한번만!"하고 큰소리로 말리시며 결코 삼배를 받지 않으시던 고집스러움. '노스님'이란 호칭으로 만족하며 군더더기 없는 일상을 지내셨다. 산중의 어른들이 대부분 그러하시듯 당신의 상좌와 시봉에게는 더 엄한 모습을 보이시곤 했었다. 그래서 그럴까 당신의 상좌들은 당신이 살아계신 듯 당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때로 고명한 '큰스님'의 유언도 그 제자들과 문중의 이해에 따라 종종 무시(?)되고 평소에 소박했던 큰스님들의 바램은 화려함과 거대함의 규모로 탈바꿈하곤 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49재등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라.…너희들이 내 상좌라면 내가 이야기한대로 꼭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니 소홀히 하지 말라."

수덕사 산중스님들은 노스님을 모시고 산 '도리'로 조촐한 49재를 마련하였지만 교계신문에 실린 당신의 유언대로 당신의 시봉들은 근처에 사는 몇분을 제외하곤 49재에 참예하지 아니하였다. 능력과 여건이 남 같지 않은 스님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노스님의 시봉들은 명리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는 겸허한 모습으로 제자의 도리를 다했다.

출가사문이 출가인다운 삶을 살다가고 그 남은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따라 출가의 도리를 지켜가는 모습이 같은 먹물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신선하고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목탁소리

낯붉힌 포교원 - 군승단

김 두 식 (취재1부 기자)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이 지난해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양상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포교원이 발행하는 〈법회와 설법〉에 난 기사를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법회와 설법〉 1월호 칼럼란인 '회광반조'에는 "진급과, 이른바 목좋은 법당에 배치되기 위하여 인사청탁이나 검은 거래가 분분하다",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군승단은 포교원이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1군지역 군승 정례 모임에서 일부 군승들의 강성 발언이 나왔고, 군승단 운영위원 전원이 군승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포교원장 정련스님과의 신년하례 자리에서는 〈법회와 설법〉 2월호에 사과문과 군승단의 입장을 담은 반론문 게재,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봉급을 털어 가며 군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군승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을 두고 포교원이 군승단의 기강을 바로잡고, 서로 맞서고 있는 군불교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98년 공금횡령사건과 지난해 진급과 관련한 청탁으로 물의를 빚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볼 때 당연한 말을 한 것 가지고 군승단이 왜 저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는 포교원장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반론권을 준다는 약속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포교원과 군승단의 관계가 늘 그랬듯이 뒷전에서 북 치고 이를 맞받아치는 식의 줄다리기는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간의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드러내놓고 격론을 벌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기자만의 시각은 아닌 것 같다.

불교 NGO 국제 구호 활동

'世界一花' 영글어 간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방 선진국 및 국제개발기구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개발원조를 받았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무상원조는 45억불, 유상원조는 158억불에 달한다.

90년대이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빈약한 실정이다. 국제협력사업은 상호의존 및 호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교역 및 투자확대, 자원확보 등 경제 · 외교적 국익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정부 · 민간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 불교 NGO들의 국제 구호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민간원조활동 가운데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은 어디쯤 와 있을까.

● 한국 국제협력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사업은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해 개도국 연수초청훈련을 실시한 것이 효시다. 무상원조는 1977년 외교통상부가 9억원의 국산기재를 공여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1987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창설,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설립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실시체계가 갖추어졌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 등록된 33개 NGO중 22개 단체는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이중 불교단체는 이웃을돕는사람들, 한국JTS, 진각복지회 등 3곳이다.

2000년도 국제협력단의 국내 NGO지원사업의 규모는 6억3천만원으로, 총 22개 단체 22개 사업을 지원했다. 활동지역은 아시아가 17개 단체,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의료보건이 11개 단체, 교육훈련이 6개 단체, 농림수산 등이 3개 단체다.

민간차원의 원조는 정부차원의 공적원조사업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국민의식의 국제화 및 참여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국내 불교 NGO의 구호활동

우리나라 불교 NGO의 제3세계 구호 활동은 일회성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순히 식량이나 물품을 후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현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법인을 설립, 교육과 의료 · 문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 · 이사장 법륜)는 인도와 미국, 중국에 JTS 현지법인을 설립, 다양한 교육 · 의료 ·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의료시설이 전무한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지역에 지바카 병원을 개원, 본격 의료지원을 개시하기도 한 한국JTS는 7년전 수자타아카데미와 12개 부설 유치원을 건립, 구호활동 및 교육 · 마을개발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갑작스런 한파로 가축 60%를 잃은 몽골 난민들에게 밀가루 36톤을 지원한데 이어 5월에는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바닥난 에디오피아에 실무자 2명을 파견해 구호 사업을 펼치는 한편 모잠비크와 케냐 등 아프리카 내륙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은 96년부터 NBSC(Nepal Buddha Sewa kendra: 네팔 불교복지서비스 모임)란 네팔현지 법인을 발족, 교육과 의료 · 급식 사업에 나서고 있다. 99년 5월 카투만두에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을 설립, 강의실 메디컬센터 도서관 식당 법당 등을 갖추고 자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진각종 진각복지회(이사장 성초)는 99년 11월 스리랑카와 네팔에 각각 JGO(The joy of genuine oneness: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란 명칭으로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국제구호사업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무상임차한 3천800평의 부지에 사회직업훈련센터를 개원, 이 지역 저소득층 자녀와 부녀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 자동차 · 전기 · 용접 · 제빵기술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어강좌, 한국불교문화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94년 발족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95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UN기구인 UNHCR(UN 국제난민대책기구)와 협약을 맺고 르완다 난민돕기에 나섰다. 99년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터키에 1천만원의 구호금을 전달했다. 또 네팔 룸비니에 2개의 초등학교를, 포카라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무료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이화여대 이근후 교수가 이끄는 네팔의료봉사단은 10년 전부터 매년 초 네팔의 무의촌 벽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단장 홍광표)은 3년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 미얀마에서 의료봉사 및 컴퓨터 지원 및 교육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95년부터 98년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활동해 온 우리는선우는 국제선우회와 승보공경선우회를 발족, 내전으로 고통받는 고아와 스님들을 지원해 왔으나 98년 IMF사태이후 자금난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JTS는 9일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개원 7주년 기념식에 이어 망코시힐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또 10일 지바카병원 개원식을 갖고 천민부락에 대한 본격 의료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카투만두 주민 공동체 운영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인도 · 몽골 등 의료구호사업 한국 JTS
스리랑카 · 네팔에 JGO지부 진각복지회

● 해외 불교단체 활동사례

해외 불교 NGO들의 국제 구호활동은 경제력이 있는 일본과 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1966년 대만에서 창립된 불교자제기금회(Tzu-chi, The Buddhist Compassion Relief Foundation). 세계 전역에 15개 츄치 지회에 40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지구촌 난민을 위해 식량 및 물자 지원, 재정 및 장학금 지원, 의료 지원 등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8년 출범한 불교빈민구제사업단(BRM, Buddhist Relief Mission)이 아시아 지역 불교국가들의 빈민들을 위한 불교자선봉사운동 및 빈민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도 카투만두의 노약자를 위한 불교수용소, 캘커타의 판자촌학교, 미얀마의 상가병원, 방글라데시의 차크마고아원 등을 설립해 불교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태국 및 미얀마 스님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일본의 사찰 300여곳이 공동결성한 국제 NGO 지원기구인 아유스(Ayus)는 해마다 3억원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 인권 · 환경 · 북한돕기 분야의 30여개 NGO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티베트 후원단체들이 티베트의 난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미타 호스피스' '선 호스피스센터' 등 자원봉사단체들이 의료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이제는 국제자원활동 시대

이같은 '국제민간원조활동'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국제협력인 '국제자원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자원활동은 상호의존과 공존의 인류공동체 이념, 문화상대주의와 호혜성의 원리, 인도주의사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문제와 미래의 전망을 밝게 변화시키고 있다.

전 지구인의 동체대비를 이루고 지구촌을 불국토로 가꾸기 위해서라도 종단 및 불교단체들의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민간교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④

본래 갖춘 여래장 개발하라

'진실한 가르침 펴겠다' 삼대원 세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공통적인 것이 수계라고 한다면, 소승불교에서는 서원을 세우는 일은 없다. 내면적으로 계를 받고 난 뒤 다시 밖을 향해서 서원을 세워 이타행(利他行)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특색이다.

◇삼대원장(三大願章)

승만부인은 다시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우는데, 삼대원이란 차차 수행을 쌓아가서 마침내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실행하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조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가지 서원은 ①진실된 가르침을 아는 지혜를 추구하겠으며, ②그 지혜를 얻는다면 게을리하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가르침을 일러주고 교화하겠다, ③진실된 가르침을 지니게 되는 데에 즈음하여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진실된 가르침을 호지(護持)하겠다는 것 등이다.

부처님은 승만부인이 세 가지 서원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보살의 서원이 모두 이 세 가지 서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섭수정법장(攝受正法章)

앞의 십대수나 삼대원에도 그 끝에서는 '섭수정법(攝受正法)'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섭수정법이란 곧 부처님의 정법을 잘 이해하고 믿어 그것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승만부인은 부처님께 섭수정법의 공덕을 설명하고 진실된 가르침은 그야말로 가르침을 몸에 지니는 일(攝受正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사뢰고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섭수의 정법과 섭수정법자는 정법과 다르지 않으며 섭수정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은 즉 섭수정법인 것입니다."

섭수정법은 보살이 행하는 여섯 가지 실천행(六波羅蜜) 바로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라는 실천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일승장(一乘章)

정법(正法)이란,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바를 털어놓아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곧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에는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밝혀, 소승이라는 것은 요컨대 대승에 들어가는 단계로서 소승만 배우고 그만두게 되면 모처럼 불법을 배운 보람이 없음을 밝혀서 반드시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 일승장이 〈승만경〉의 중심이다.

◇무변성제장(無邊聖諦章)

제(諦)란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라는 말인데, 소승에서 보인 성제(聖諦)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소승은 아직 진정한 성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성제는 대승이라는 것이다. 대승의 가르치심은 절대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 가르치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것을 무변(無邊)의 성제라고 하고 그 가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하고 있는 장이다.

◇여래장장(如來藏章)

부처님의 성제라는 것은 무엇을 근본으로 하여 설하신 것인가 하면, 그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여래장(如來藏)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여래장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심을 설하는 것이고, 이 대목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설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는 여래의 씨앗에 물을 주어 키우는 것이고, 그 여래장이라고 하는 불씨에 점화하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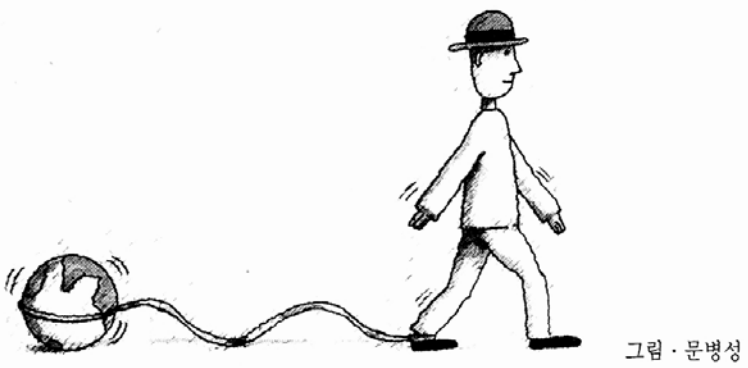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나의 인연 어디까지일까

불교와 과학 〈14〉

안 보이는 암흑물질 우주 90% 차지
돌·나무·알수없는 존재도 인연 해당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는 왜 태양에 달라붙지도 않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는 일정한 궤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태양과 지구가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만유인력법칙 자체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에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태양 쪽으로 조금만 기울게 된다면 여지없이 태양 인력에 끌려 태양과 충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궤도에서 태양 반대쪽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태양계의 미아가 되고 만다. 그래서 결국은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어느 일정 공간 안에 서로 모여 있다면 그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결국은 그들 모두가 충돌하여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모두 서로 더 떨어지게 되어 끝내는 분산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하계가 모여 있는 우주 공간에 적용해본다면 우리의 우주가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별들이 서로 모여 있다면 끝내는 은하계가 축소할 것이고, 별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은하계는 확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 공간 안에서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는 것이 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그런 별들만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을 천체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dark matter)이라고 부른다.

인연의 타래

얼토당토않게 암흑물질이란 존재를 왜 필요로 할까? 60년대 츠비키라는 물리학자는 우리의 은하단이 우주공간 안에서 자체 회전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동력학적 평형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존재하는 별들만 갖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별들 말고도 다른 존재 방식의 질량을 갖는 물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생각은 70년대 말 루빈의 나선은하 속도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이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의 질량의 합은 우주 전체 질량의 90%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물질은 전체의 1/10에 그치고 마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암흑물질의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즉 암흑물질이 일정 공간에 몰려 있다면 우주는 축소하고 말 것이며, 널리 퍼져 있다면 우주는 확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암흑물질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도 암흑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질의 세계가 아닌 삶의 공간에서 볼 때, 암흑물질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나의 인연을 지배한다는 말과 비슷하다. 나의 인연은 나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나 아닌 타자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속한 가계의 선조와 친지들, 내가 속한 사회의 친구들과 이익집단의 구성원들만이 나 아닌 타자의 모두인가를 반성해야 한다. 저 산 위의 상수리나무,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개울의 돌멩이들, 몇 십 년만의 처음이라고 떠드는 눈송이들, 모두 나 아닌 타자의 범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책상 위에 쌓이는 먼지와 들에 피어 아무도 보지 않는 꽃대에 붙은 잔털들, 맑게 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들 모두 타자의 한 구성원이다. 그것말고도 내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란 아주 적은 한 구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의 암흑물질들 모두가 나의 인연을 꿰어가는 우주적 관계의 타래들이다.

보이는 물질에만 나의 인연의 끈을 찾는다면, 내 연분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될까라는 자조와 인과율이 맞지 않는 현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업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대부분 거대한 운명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조적인 분위기를 띄고 그 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보이는 물질에 국한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삶의 암흑물질에 섭동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이미 부처의 마음에 많이 근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에이즈 환자 돌보다 스님들도 병균 감염

지구촌 불교 / 불교와 에이즈

불교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지난해 12월 1일을 기점으로 '뉴욕타임즈'나 'AP통신'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유엔이 지난해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 날'로 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 탓도 있겠지만, 불교 국가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가 에이즈 환자와 보균자의 밀집 지역이라는 점도 언론을 부추기는 데 적잖은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중국 등에서의 에이즈 확산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다고 지적했다.



◇단기출가 희망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태국의 스님.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타임즈'(지난해 11월 14일자)의 "미얀마와 태국의 스님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는 보도는, 에이즈라는 문제를 불교계가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뉴욕타임즈'에서 밝히고 있는 스님의 에이즈 감염은 일반인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에이즈 증세의 악화로 사경을 헤매며 사찰을 찾아온 환자들을 경내에 모두

미얀마·태국 사찰 에이즈방역 곤혹
샤론스톤 등 모금·예방캠페인 눈길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단기 출가를 희망하며 사찰을 찾은 사람들의 머리를 삭발한 칼을 스님들이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이즈라는 병을 앓고 있는 중생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에이즈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헌신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자 스타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리처드 기어는 미국 MBC 방송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 프로 '생존'에 출연, 에이즈 환자들의 참상을 담은 다큐멘타리 해설자로 나섰다. '원초적 본능'의 섹시 스타 샤론 스톤 역시 '전미에이즈연구재단(AMFAR)'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공헌한 점을 평가받아 여성지 〈글래머〉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출연한 아일랜드 배우 리엄 니슨은 제작진과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광선검'을 경매에 내놓아 에이즈 바이러스의 태아전염 예방활동을 벌이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이 경매에는 줄리아 로버츠, 멜 깁슨 등 다른 불자 스타들도 소품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미얀마 여성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에이즈 환자가 집중된 나라들에 대한 지구촌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불자 스타들의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아시아 스스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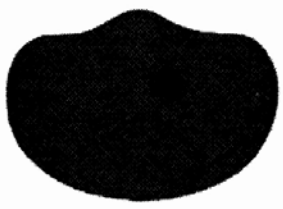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신년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 108 나한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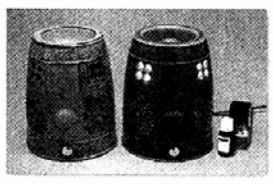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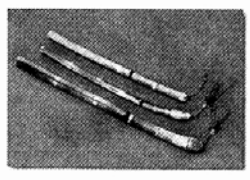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90,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 大, 뿌리 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전통 개량 한복(남성용)



· 남성용 (소 재 : 폴리)
· 색 상 : 진회색 검곤색 붉은밤색
· 사이즈 : L / XL · 가 격 : 49,000원

●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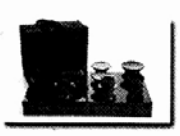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 남원 동천목(孝)제기



· 재 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203,000원
· 구 성 : 촛대2, 탕기3, 술잔3, 술잔받침대3, 나물그릇3, 편기2, 적기2, 큰접시4, 중간접시5, 작은접시6, 지방틀, 어틀, 편틀, 향로 + 제례서식1권

● 성묘용이동식(휴대용)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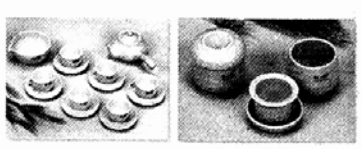
· 구성 : 중간접시3, 작은접시3, 탕기2, 술잔2, 술잔받침대2 + 성묘용제기함 + 휴대용가방
· 재질 : 지리산 오리목
· 가격 : 88,000원

● 제기함



· 규격 : 58Cm × 42Cm × 48Cm
· 가격 : 75,000원

● 옥산가 ® 춘천옥 ® 다기 상품



· 옥(玉) 개인다기
구성 : 찻잔(2p) 거름기(2p) 찻잔받침(2p)
가격 : 70,000원

· 옥(玉) 다기세트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가격 : 330,000원

● 왕사성의 비극



비디오 (1시간35분) 책 포함 가격 : 20,000원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은하수

별의 세대교체와 인연

별이 죽어 성간 물질
성간물질 모여 성운
성운에서 새별 탄생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모두 태어난 나이가 같을까? 1942년 미국 천문학자 바데는 지구에서 약 2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결과 은하 중심부에 있는 별이 젊은 별이고, 외곽에는 나이 많은 별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별들은 은하계 중심 주위로 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하는데, 별들 중에 질량이 큰 것은 진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며 빨리 일생을 마치고, 질량이 태양의 0.8배보다 적은 별들은 그 수명이 150억 년 이상이다.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은 태양보다 작은 별들의 수에 비해 월등히 적지만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큰 별들이 일생을 마치며 방출한 물질이 식어서 차가운 성간 물질이 되고, 이것이 다시 응축되어 제2세대의 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2세대의 별들에서 방출된 물질이 다시 제3세대의 별을 이루게 된다.

밤하늘에 밝게 보이는 별들은 1세대의 젊은 별이다. 한 별이 죽으면서 흩뿌린 물질은 공간 밖으로 흩어져 나가 성간 물질을 이룬다. 이것은 어느 별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다른 성간 물질과 합쳐져 더 큰 규모의 성간 물질을 이룬다. 이러한 성간 물질이 점점 많이 모여 큰 규모의 성운이 되면 여기서 별들이 탄생된다. 별들은 인간과 달리 그 뿌리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여러 세대의 별들이 남겨 놓은 잔재물에서 탄생될 뿐이다. 그러기에 별들은 세대간에 인연줄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인간처럼 인연에 따른 과보를 받지 않는다.



◇맑은날 초저녁에 희미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리온대성운.

"별과 사람의 일생 닮은꼴"

산문밖의 수행자 천문학자 이시우박사



폭설의 흔적이 아직 도시 곳곳에 남아있던 날, 이시우 박사(63 ·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찾았다. 그는 세상살이에 서툰 아이마냥 수줍은 듯 엷글만 붉혔다.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친 사람이라 하기엔 말수도 적었다. 평생을 별만 보고 살아서일까. 그러나 일단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말자 눈빛을 반짝였다. 목소리도 힘이 넘쳤다.

"몇 년 전 1학년 학생들에게 교양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빠진 과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리학이든 천문학이든 결국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10년 화두 '가질 취(取)'
선시집 '똥막대기' 펴내

대부분 경력 짧은 강사 몫인 교양 강좌를 맡으며 그는 우주의 질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듯한 별들의 일생이 사람과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금강경을 접하곤 그 속에 무소의 단상들이 모두 들어 있음을 알고 놀랐다. 그 때부터 밤늦도록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고 했다. 작년엔 불경공부와 참선 수행 틈틈이 떠오른 생각들을 〈똥막대기〉라는 시집으로 묶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허공이냐/ 만유가 들어 있으니/ 빈 것은 아니로다/ 이 속에서 만물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또 흩어졌다가 모이면서/ 생멸을 이어 가고/ 우주를 밝히는/ 불법이 세워진다.

"별들도 인간처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합니다. 별들 사이에 떠다니는 작은 물질이 모여 하나의 별을 만들고, 다시 그 물질을 우주에 되돌려주고 별은 죽습니다. 마치 인간이 지 수 화 풍 사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요. 별은 모두 돌려주고 떠납니다."

우주의 별은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킨다. 바로 가장 적은 에너지로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또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별은 불안하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중심부의 핵만 남겨 놓고 모두 방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버릴 줄 모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최소의 에너지로 안정을 추구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별들의 삶. 이시우 박사는 그 별처럼 살고자 노력했다.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요즘도 버스를 타고 다닌다. 언제부턴가 학교와 집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화두 아닌 화두 하나를 붙들었다. 쉰을 넘기면서부터다.

"언제부턴가 가질 취(取)자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욕망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것 게 아닌가는 일종의 자기 반성이었던 셈이죠."

98년 정년퇴직을 5년이나 남겨놓고 스스로 교수직을 물러난 것은 그 때문이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부터 그는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켰다. 20년 넘게 교수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에겐 당연한 듯이 보인다. 자기한테 꼭 필요한 에너지만 '취' 하는 별들의 삶을 닮기로 한 그였으니까.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면 못 가진 사람에게 돌아갈 게 없습니다.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땐 욕심을 내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별들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더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불교와의 만남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혜성의 80%는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혜성이 충돌하면서 물이 공급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된 것입니다. 생명체의 씨앗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죠. 우주엔 지구 같은 별이 무수히 많고 그들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그게 곧 평등이고 불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식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 속에 불법이 들어온 것은 아내의 소개로 한 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그 스님이 계신 절에서 함께 예불 드리고 절하면서 며칠을 묵었다. 서울로 올라온 뒤 그는 보통 새벽 두세 시에 마치는 공부 끝에 108배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다. 절에서 했으면 집에서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예불과 절은 해인사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그는 빠져들면 들수록 불법이 우주 전체의 진리를 품고 있음에 놀랐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 빠져 사는 게 안타깝게 보인단다.

물체는 서로 끌고 밀치면서/ 가는 길 돌아서/ 굽어 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인연 따라/ 조화롭게 이어 가네.

"무질서하게 보이는 별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그 힘이 조화를 이루며 나름의 질서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 조화와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사람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배 앞길 막지 않겠다"
정년 5년전 교수직 사퇴

최소한의 것만 가지려 한다는 이시우 박사에게도 욕심은 있다. 별들이 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고 싶은 욕심. 타(他)가 있어야 아(我)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별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픈 욕심. 무엇보다 별과 같이 제약을 받지 않은 무위의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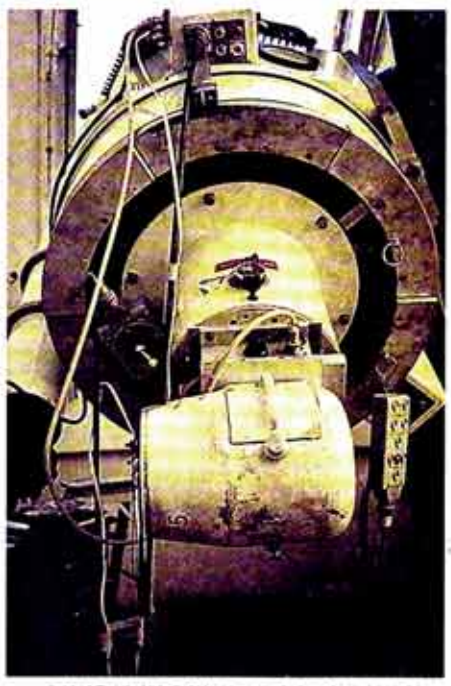
말을 마치자 이시우 박사는 또 눈길을 떨구며 예의 그 수줍음으로 돌아간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 때문일까. 하지만 그는 쓸데없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변'은 그의 몫이 아닌 모양이다. 평생 별만 보았고 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우주와 나

별들의 생멸과 운동에는
삶의 조화로움이 들어 있으며
이것이 곧 만유(萬有)가 따르는
우주의 섭리이다
신비스러운 밤하늘의 우주!
그 속엔 나의 정겨운
열정이 담겨 있다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이젠 그 이야기를
별들에게 남겨 두고
우주의 신비를
마음 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찾아
이렇게 새벽을 지새고 있다

- 시집 〈똥막대기〉 중 '우주와 나'의 한 부분.



◇이시우 박사가 유학했던 호주 국립대학교 부설 천문대에 있는 60cm 반사망원경.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복령콩떡

수행자 동안거 별식 '머리 맑게'

금오 스님(1896~1968)이 칠불사에서 선풍을 진작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수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칠불사에는 당장 저녁 공양거리마저 없었다. 밤새 참선을 끝낸 금오 스님 앞에 수좌 스님들이 말을 꺼냈다.

"저희 수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용맹정진코자 했으나, 어제 저녁을 굶고 오늘 아침마저 없으니,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가봄까 합니다." "지금 조석(朝夕)을 끓일 양식마저 없다는 말인가?" "예." "잠시 기다려보게."

스님은 뒷방에서 동안거에 대비해 옹기그릇에 넣어둔 복령콩떡을 찾았다. 그런데 옹기뚜껑을 열어보니 두어 조각만 남아 있지 않은가. 할 수 없이 다시 대중방으로 돌아오신 스님이 수좌들을 향해 이르셨다. "우리가 전생의 빚을 지고 오늘 칠불사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 헤어진다면 누가 우리를 수행자라 하겠는가. 한 3일만 기다려 보세."

그런데 3일이 다 되도록 스님은 참선만 하고 계셨다. 답답한 건 기다리기로 한 수좌들이었다. 하지만 더 초조했던 이는 동안거용으로 준비해둔 복령콩떡을 몰래 꺼내 먹은 한 수좌 스님이었다.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를 하며 눈물을 똑똑 흘리는 제자에게 금오 스님은, "떡을 먹고 나니 몸은 좀 좋아졌느냐"며 탁발을 나가자고 하셨다. 그 수좌는 만성간염 환자였는데, 1말에 가까운 복령콩떡을 먹고는 몸이 많이 좋아졌던 것이다.

그렇게 나선 탁발길에서 스님은 다시 복령콩떡을 시주 받아 오셨고, 동안거에 모인 수좌들은 그 떡으로 겨우내 죽을 끓여 먹으며 용맹정진할 수 있었다. 콩은 간을 보양하고 눈을 밝게 하며, 복령은 머리를 맑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복령가루 100g, 쌀가루 500g, 여러 가지 색콩 100g, 볶은 소금

요리법 ① 쌀을 불렸다가 소금간을 해서 빻아 복령을 섞어 체에 내린다. ② 위 가루를 주먹으로 쥐어서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준다. ③ 색콩을 살짝 쪄서 소금으로 간한 뒤 찜기에 반죽한 떡가루를 담고 쪄낸다.

효능 ① 복령은 소변의 양을 조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콩은 밤에 땀을 흘리는 허약 체질에 좋다. ② 매일 꾸준히 먹으면 대한(大寒)에도 땀이 나고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⑯

近於故人處 得五位修證圖
근어고인처 득오위수증도
乃建州大中寺講學沙門永年 排定
내건주대중사강학사문영년 배정
杭州祥符寺傳華嚴教明義大師曇慧
항주상부사전화엄교명의대사담혜
重祥定 其序云 夫無上菩提
중상정 기서운 부무상보리
在三數劫外 五位修行 六道圓滿
재삼수겁외 오위수행 육도원만
方能證得 今列頓漸兩途 若圓頓門
방능증득 금열돈점양도 약원돈문
從衆生界 善男子等 具佛種性
종중생계 선남자등 구불종성
一念背塵合覺 不歷僧祇 直至悟界
일념배진합각 불력승지 직지오계
謂之頓超見性成佛 若三乘漸次
위지돈초견성성불 약삼승점차
五位聖賢 須歷三祇 方成正覺
오위성현 수력삼지 방성정각

근래 친구한테 〈오위수증도〉를 얻었다. 건주 대중사의 강학사문 영년이 초안했고 항주 상부사의 화엄학자 명의대사 담혜가 세밀히 감정한 것이다.

지지 하득남종 유돈문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그림 가운데 돈 · 점의 구체적 내용을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잘 배열해 놓았는데 이는 중생의 근기가 이승적인 성품도 있고, 보살의 성품도 있고, 부처의 성품도 있어서 예리하고 둔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종에서도 부처의 성품을 갖춘 중생이 생사의 땅에서 부처의 경지를 단박 깨달아 한꺼번에 증득하고 닦는 이치가 있는데 어째서 남종(南宗:혜능을 개조로 하는 돈오〈頓悟〉의 종파)에만 단박 깨닫는 법이 있겠는가?

但學教學禪之者 難遇妙旨 高推聖境
단학교학선지자 수우묘지 고추성경
自生怯弱
자생겁약
未能深觀自心日用見聞覺知之性
미능심관자심일용견문각지지성
是無等等大解脫故 生多般疑惑耳
시무등등대해탈고 생다반의혹이
此後更引誠證 具明頓超見性者
차후갱인성증 구명돈초견성자

나날이 쓰고 보고 깨닫는 마음의 성품이 바로 큰 해탈

그 서문에 '위없는 지혜는 아승지겁을 두고 오위(五位)의 수행과 육바라밀이 원만해야 증득한다. 그러나 지금은 돈(頓) · 점(漸)의 두 길이 있다. 만일 원돈문(圓頓門)으로 본다면 중생계의 불성을 갖춘 선남자들이 한 생각의 번뇌를 버리면 깨닫게 되므로 아승지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는데 이는 단박에 초월하여 견성 성불하는 길이요, 차츰 닦아가는 삼승의 길은 오위의 성현이 삼아승지를 지내야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하였다.

雖不藉三乘漸次行位
수불자삼승점차행위
亦不碍悟後圓修行門 如是悟修本末
역불애오후원수행문 여시오수본말
不離圓明 覺性惺寂之義 願令修心人
불이원명 각성성적지의 원령수심인
遷權就實 不枉用功 自他速證無上菩提
천권취실 불왕용공 자타속증무상보리

다만 교(敎)나 선(禪)을 배우는 사람이 오묘한 뜻을 만났다 해도 성인의 경계로만 미루고 지레 겁을 먹는다. 나날이 쓰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제 마음의 성품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큰 해탈임을 깊이 관찰하지 못하므로 온갖 의혹을 낼 뿐이다. 이래서 다음에 다시 진실한 증거를 대어, 점차로 닦아가는 삼승에 의지하지 않고도 단박에 견성하는 자가 깨달은 다음에 원만히 수행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없고, 이렇듯 깨닫고 닦는 본말 그대로가 원만하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떠나지 않은 부처의 경지임을 자세히 밝혀 마음 닦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학(權學)을 버리고 진실한 곳으로 나아가 헛된 공력을 들이지 않고 자타가 빨리 위없는 보리를 증득케 하리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如是辨明 至於圓中 排定頓漸行相
여시변명 지어도중 배정돈점행상
亦不相雜 所以然者 以其衆生根機
역불상잡유 소이연자 이기중생근기
或有二乘種性 或有菩薩
혹유이승종성 혹유보살
種性 或有佛種性 利鈍各別故也
종성 혹유불종성 이둔각별고야
教中亦有如是具佛種性衆生
교중역유여시구불종성중생
於生死地面上 頓悟佛乘 齊證齊修
어생사지면상 돈오불승 제증제수
之旨 何得南宗 有頓門耶
지지 하득남종 유돈문야

가까이서 뵌 큰스님

지유스님

범어사 조실

"공부, 자기모습 제대로 보기"

"어떻게 오셨어요?"

"스님 뵈러 왔습니다."

"잘 보고 가시오. 허허"

뭐라고 답할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은 분명히 내 앞에 앉아 있으나 스님의 마음 한 자락도 헤아리지 못하고 보니 막막할 뿐.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을 뵙기 위해 비 오는 산길을 30분 남짓 걸어 올라온 원효암. 빗줄기와 안개로 인적 드문 금정산 원효암으로 오르는 길은 없는 듯 이어져 결국엔 원효암 부도탑까지 이어졌다. 언젠가 누군가도 이 길을 올랐구나. 20년 전부터 이곳에 주석하는 지유스님의 발자취 위에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수좌들의 그것이 겹쳐지고 법회날마다 이곳을 찾는 불자들의 한 발 한발이 또 모여 이 길이 되었구나. 이런 저런 생각으로 한달음에 오른 원효암 지유스님의 방에서 그만 뚝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차 한잔에 전체가 들어 있어요. 차 한잔 속에 불성이 다 들어 있다는 말이지. 마음을 깨닫는 성불을 어디 먼 곳에서 구할게 아니라 차 한잔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18세에 출가했는데 미륵암에 올라가 보니 마루에 심시불心是佛이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그 글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멀었던 삼천년 전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마음 안 가진 이 없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참 환희심이 절로 났지."

이런 저런 생각을 턱 내려놓고 앞에 놓인 차 한잔부터 제대로 마셔보라는 스님의 일갈이다.

'심시불'이라는 말에 '역시 출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스님. 일본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내고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스님은 해방 후 한국으로 와 속가 동생이던 법종스님과 함께 출가자를 걷게 된다. 젊은 나이에 몸을 바꾼 법종스님은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청담스님의 각별한 아낌을 받았던 스님.

지유스님은 출가 후 6 · 25 전쟁의 어지러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수행을 늦추지 않았다. 이십대에 마음의 깊은 세계를 맛본 스님은 밤잠을 잊고 공부에 전념했다. 잠이 습관이라고 생각한 스님은 정진이 끝나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산 하나를 걸어서 왕복하며 어슴프레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했고 새벽 예불로 일과를 시작하곤 했다. 수행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수마를 그 시절 이미 조복받은 셈. 지금도 스님은 특별히 장좌불와라고 생각지 않는 가운데 장좌불와를 하고 있다.



◇7일 원효암의 법회 후 방으로 찾아온 신도들에게 자상하게 마음 공부법을 일러주시는 지유스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갈등과 욕심과 감정 실체 그대로 비춰

"늡지 않는다는 생각에 매이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장좌불와가 아니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것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님 회상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한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인연 닿은 대로 오는 것을 취하되 한번도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 스님은, 세간이나 출세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소유가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임을 항상 실천으로 보여준다. 세상에 존재하는 숱한 고정관념들, 큰스님은 이래야 한다거나 혹은 공부는 이런 것이다 라는 통념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라는 스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굳이 특별한 법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인연있는 사람은 찾아와서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스님의 믿음대로 원효암에는 많은 수좌들과 재가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원효암 법회는 불법의 정수를 구하려는 진지한 눈빛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불법은 자기의 모습을 말함이요,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자기의 모습이란 곧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맑은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물이 와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고 걱정하고 불안한 이런 생각들로 굴곡이 생겨 실체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거울에 굴곡이 생겨버리죠. 그럴 때는 그 굴곡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굴곡이 가라앉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설하신 소소영영한 마음에 귀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파도를 비유해서 설하자 한 거사가 "근본자리에서 보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고 물, 파도 또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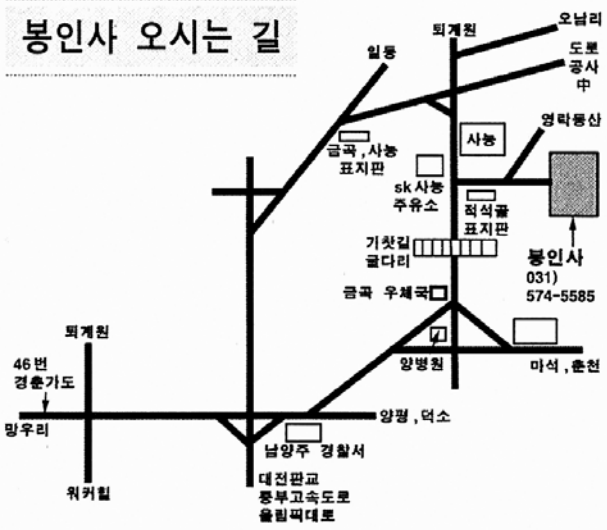
"물과 파도는 하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들로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것이 마음의 파도인 셈인데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물을 파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저런 상황에서 일어난 파도를 가라앉혀서 사물을 비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깨달아야 겠다 거나 고요해 져야겠다는 생각에 매이면 또 그것이 파도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면 파도를 쳐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면 저절로 파도가 자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몇 번이고 반복되는 질문에도 스님은 세세한 비유와 설명으로 자상하게 일러준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 방으로 찾아온 이들에게도 스님의 세심한 공부지도는 이어진다.

"눈앞의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해요. 온갖 생각으로 출렁이는 마음으로는 눈앞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찾아온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보아서 정말 콱 막히는 의구심이 나야 해요. 그것이 마음을 아는 출발이예요."

"요즘은 너무 알게 살아요. 좋으면 금방 웃고 싫으면 또 금방 찌푸리고 또 마음에 조금 맞으면 너무 쉽게 수긍해 버리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하게 와 닿아 깊이 깊이

봉인사 오시는 길



봉인사 겨울 수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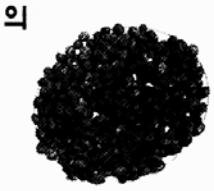
■ 1월 16일(화) ~ 22일(월) 6박7박
■ 2월 12일(월) ~ 2월 18일(일) 6박7일
■ 수련내용 : 아봐타 1부(다시떠오르기) 와 위빠사나
■ 참가비용 : 40만원
(아봐타1부를 이미하신분은 참가비용 15만원)

■ 1월 23일(화) ~ 31일(수) 8박 9일
■ 2월 24일(토) ~ 3월 4일(일) 8박 9일
■ 수련내용 : 아봐타 프로그램
■ 참가비용 : 220만원(숙식포함)
아봐타의 감동을 다시나누고 싶은 복습자를 환영합니다 (복습자 참가비용 40만원)

▶ 신청문의 : · 전화 : 031- 574- 5585 · 전송 : 031-574-080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로 옮기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2-737-8881

지유 스님은

동산스님 은사로 출가
유머 곁들여 쉽게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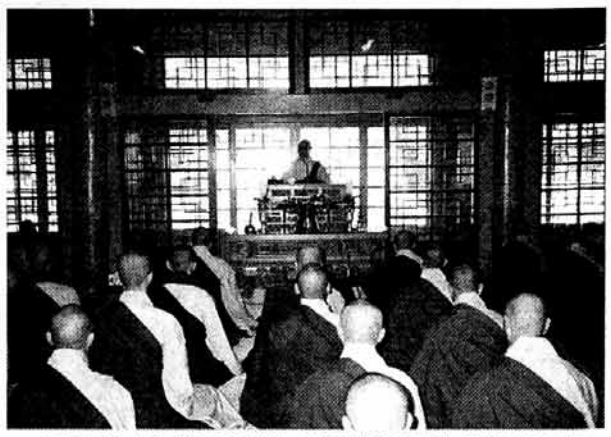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기에 생겨난 오해인, 무척이나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스님이리라 하는 고정관념이, 지유스님을 실제로 대하자 여지없이 무너진다.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와서는 인사만 하고 불상처럼 앉아만 있어요. 차를 주어도 쓰다 달다 말도 없고… 나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지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저 사람 혹 나를 감시하러 왔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신도들이 따라 웃는다. 유머감각이 돋보이는 말씀이기에 그 가르침이 한결 가슴에 와 닿는다. 차 한잔에서 우주를 보는 스님만이 대중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선물처럼 보였다.

평소 막연한 기대로 무언가 신비적이고 색다른 가르침을 기대하며 지유스님을 친견하러 오는 사람들을 경책하는 것이리라.

지유스님은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를 일본에서 마쳤다. 15세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스님은 18세 되던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암사를 비롯한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하고 문경 봉암사 ·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유스님은 원효암과 문경 관음사에 주로 주석하며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 후학들을 제접하며 선풍을 떨치고 있다.



◇구랍 25일, 동안거에 들어간 선방 스님들이 반결제를 하는 날 범어사 보제루에서 스님들에게 법문하시는 지유스님.



◇지유스님은 오랜 욕심과 컨뇌를 녹이기 위해서는 매시간 치열하게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일을 하든
시간이 지루해지면
번뇌망상 들어선것

에 바로 갈 수가 있듯이 업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천년동안 한다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 천년을 왜 못 참느냐? 당장 되려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을 하나 짓는 불사도 당대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억겁 동안 쌓인 업의 세력을 몇 마디 염불이나 돈 몇 푼에 갚았다거나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씩 갚는다는 생각으로, 천년동안 하겠다는 발심으로 꾸준히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문제를 걱정하자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예, 권력, 권속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허망한 것이라,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원한 보배를 챙겨야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바르지 못하다면 자신부터 마음을 바로 잡고 안팎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말고 목전의 차 한잔 잘 마시는 것으로 출발하세요." 단호한 말씀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본심이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는 아무런 재주나 기교가 필요치 않아요. 순수무구한 본심에는 일체 티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붉은 사과를 붉다고 하고,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이렇게 만인이 공감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는 마음을 밝혀 알아야만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영삼매 빨래삼매
일상사 모든 일
본성 밝히는 재료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인연도 진정으로 화를 내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묘가 있어야 해요. 겉으로만 화내고 겉으로만 웃어주는 피상적인 것으로는 안돼요."

진정으로 화를 내라니, 마음의 고요를 말씀하시던 스님이 불쑥 던진 한마디가 또 오리무중이다. 목석이 아닌 인간이 희노애락의 감정까지 자유롭게 조절하는 경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자비와 엄함을 넘나드는 경계를 맛보라며 건네주는 스님의, 알사탕같이 자상한 말씀. 마음에 넣고 굴려보니 더욱 달고 깊어 말이 끊긴다.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나 수행을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의 공부는 스님에게 통과되지 않는다. 어묵동정(語默動靜) 행주좌와(行住坐臥) 그 언제라도 참선할 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공부라는 것이다.

스님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일면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스님께서 범어사 주지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하안거 해제 후 수좌들과 함께 바닷가로 갔다. 다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살을 거스르며 해야 하는 수영이고 보니 젊은 수좌들도 금방 지쳐 쓰러지는데 스님은 5~6시간을 계속 수영을 했다. 숨을 헐떡이는 수좌들을 향해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야. 앉아 있거나 걸을 때나 수영을 할 때나 언제라도 마음이 한결같아야 해. 앉아서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수영할 때는 온 마음으로 수영을 하는 것 또한 삼매인 것이지."

이날 수영삼매에 누가 오래 드나 보자는 스님의 말씀에 한철 잘 공부했다고 우쭐대던 수좌들은 혼쭐이 났다. 평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상에 바빠 공부할 수가 없다고 짐짓 자신의 게으름을 위안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스님의 방(棒)인 것이다. 칠순을 넘긴 지금도 수영 등 스님의 스포츠 실력은 젊은 사람을 능가한다. 스포츠를 하는 것이 여실히 깨어있는 자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정형화된 염불이나 기도만이 공부가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들이 공부이며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밝히는 재료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지유 스님은 물론, 원효암에 머무는 스님이나 신도들은 하루 일식(一食)만을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모두가 일을 한다. 교통이 불편한 암자이고 보니 먹을거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텃밭을 일군다. 몇 년전 불사를 할 때도 케이블을 직접 설치하고 원효암 내의 모든 전기 시설을 상좌와 함께 손수 했을 정도. 이처럼 스님의 일상은 보편적이고 평범하며 특별한 것이 없다. 밥 먹고 잠자는 가운데 도가 있다는 가르침이 원효암 곳곳에서, 지유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 살아나고 있었다.

"빨래를 하면서, 아이구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빨래 때문에 못하네! 하고 망상을 피우면서 빨래를 해요. 그러나 빨래를 하는 것도 공부예요. 빨래는 할 때에는 오로지 빨래밖에 없어야 해요. 과거의 망상 부리던 것을 없애고 목전에 있는 것이 전부임을 아는 것이 바로 된 공부입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망상 번뇌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일념으로 한다면 일겁이 무량겁이 되고 무량겁이 일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래로 가지고 있는데 욕심과 번뇌에 가려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해요."

스님은 덧붙여 또 한번 현재의 중요성을 일러주시며 현재의 실천, 현재의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일체유심조라 했는데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업이 있어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업을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있다보면 업의 세력이 커져 버려서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려면 한꺼번에 못 가요. 한발자국 한발자국 정확하게 떼어놓아야 서울에 바로 갈 수가 있듯이 업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천년동안 한다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 천년을 왜 못 참느냐? 당장 되려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을 하나 짓는 불사도 당대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억겁 동안 쌓인 업의 세력을 몇 마디 염불이나 돈 몇 푼에 갚았다거나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씩 갚는다는 생각으로, 천년동안 하겠다는 발심으로 꾸준히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문제를 걱정하자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예, 권력, 권속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허망한 것이라,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원한 보배를 챙겨야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바르지 못하다면 자신부터 마음을 바로 잡고 안팎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말고 목전의 차 한잔 잘 마시는 것으로 출발하세요." 단호한 말씀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본심이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는 아무런 재주나 기교가 필요치 않아요. 순수무구한 본심에는 일체 티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붉은 사과를 붉다고 하고,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이렇게 만인이 공감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는 마음을 밝혀 알아야만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종주스님

절 집에서의 스승과 제자사이는 스승 제자 사이 이상의, 속가의 부모, 자식관계가 부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흔히 쓰이는데 이 말은 '스승 없이 함부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어찌 자식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부모 곁을 떠나 출가를 하면 내 머리를 깎아준 스승은 바로 절집의 부모이다. 나의 정신적 지도는 물론이고 물질적 배려까지 은사가 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은사 스님과의 인연은 어쩌면 부모와의 인연 이상으로 더 소중한지도 모른다.

출가하여 한동안 은사 스님의 배려가 없으면 공부하기는 참 어렵다. 자상한 은사 스님들은 상좌에게 이것 저것을 챙겨주지만, 그렇지 못한 스님은 이름만 걸어 놓고 홀로 살아가라는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둔다. 무섭고 어려운 은사 스님 보다는 자상하고 무엇이든지 의논할 수 있는 은사 스님들은 상좌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도반 중에 정말 은사스님과 마음을 열어 놓고 지내는 스님이 있다. 강원시절 이야기이다. 종주스님은 한철의 용돈이 부족해서 인지 은사 스님께 용돈을 좀 달라고 편지를 드려야겠다고 했다. 은사스님께서는 많이 주었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종주

용돈 보내달라는 그림편지
스승과 제자사이 신뢰확인

스님한테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다른 스님 같으면 은사 스님께 또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들어 그냥 지낼텐데 종주스님은 그러지 않았다. 평소에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스님인데도 꼭 은사 스님한테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스님이다. 어느 날 용돈이 떨어진 종주스님은 정말 편지를 썼다. 나는 그 편지 내용이 몹시도 궁금해 한번 읽어보자고 했더니 종주스님은 스스럼없이 보여주었다. 편지는 상식을 뒤엎은 그런 내용이었다. 당연히 "존경하옵는 은사스님께 올립니다" 하고 서두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말들은 모두 생략하고, 모든 내용을 압축한 듯한 큰 나무 한 그루 그림이 전부였다.

어리둥절해 하는 나에게 스님은 설명을 했다. 이 나무는 대추나무이며 열매는 대추이고, 대추안에 돈을 써 넣은 것은 내가 남에게 빌려쓴 돈이 이렇게 대추 영글 듯이 영글어 있으니 빨리 보내 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은사 스님이 이 뜻을 아실까 몰으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용돈 더 보내달라는 것이 뻔뻔스러운 일이라 말로 구차하게 무어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 그림을 그려 보내는 거예요. 제 간절한 뜻을 이해하신다면 보내주실 것이고, 이해를 못 하신다면 안 보내주시겠지." 엉뚱하면서도 유머스러운 스님의 행동에 한바탕 웃었지만 과연 은사 스님이 용돈을 보내주실까, 아니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호통을 칠까 하는 궁금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며칠 후 은사 스님은 그 그림 한 장을 무난히 해독하셨는지 종주 스님이 요청한 용돈을 보내주셨다. 종주스님과 그 은사 스님과의 관계는 보지않아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있을까 하는 것을, 그 그림 한 장으로 모두에게 보여준 셈이었다.

종주스님은 자기 법명을 이렇게 소개한다. '종바리 종자에 술 주, 종주'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절집의 계율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의 위트덕분에, '종주'라는 법명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잊어 버리지 않는다.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나는 종주스님의 학구열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내가 책상 앞에 끙끙거리고 있을 때, 스님은 적당히 하고 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학문보다는 다른 쪽을 택해 정진하겠지 했는데 스님은 졸업을 하자말자 아무도 몰래 일본 유학 길에 올라 나름대로의 학문의 길을 다졌다.

나는 스님이 유학갔는지도 몰랐다.



어느해 초가을이었다. 코스모스가 그려진 엽서 한 장이 일본에서 왔다. 코스모스 꽃을 유독 좋아하는 내가 가을이 되면 생각이 난다고.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찾아 가서 같이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길을 걷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이 엽서로 대신한다고 하며 당분간 일본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수소문해 본 결과 종주스님이 일본에서 몇 년째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스님은 남들이 다 원하는 강사직이나 논문을 앞세워 자기의 명성을 다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산중으로 돌아가더니 지금은 은사 스님 시봉을 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다. 제자를 편안하게 해 준 은사 스님의 노후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그림 한 장을 해독하시고 용돈을 바로 보내주신 은사스님의 덕망을 알기 때문일 거라고 믿는다.

나는 가끔 상좌들이 용돈을 요구할 때 종주스님의 '용돈 그림 일화'를 들려준다. 그때의 그 모습이 참 부러워서 나도 이다음에 상좌를 두면 그런 이심전심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했는데 나는 좀처럼 그런 은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종주스님은 여전히 내 가슴에 부러운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세원사 주지

불가인생론



공명을 구하면 공명을 얻고,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으며 아들이나 딸을 구하면 아들이나 딸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이제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의 뜻이다.

지장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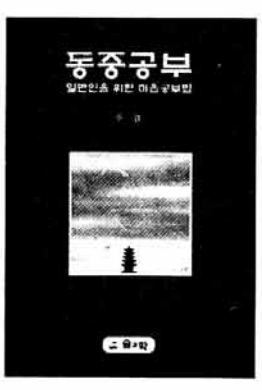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혹시 집안에 원한을 품고 죽은 영가가 있으면 하루 빨리 원한을 풀고 죄를 참회해야 업장이 녹습니다. 영가의 장애로 병명도 없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영가의 장애가 걸려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관세음기도법



진실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가 성취 될 것이고, 거짓으로 기도한 사람이면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죽을 고비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중공부



서두르지 안고 느긋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수숭한 사람은 한 달이면 족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때마다 관찰한다면 최소한의 행위로 줄어들 것입니다.

아미타불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삼계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히 안락한 복지(福地)로서 시간 공간과 인과율을 초월한 경계이며,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 할 때 우리 스스로 보고 느끼고(感見)누리는(受用) 상주불변(常住不變)한 법락(法樂)의 경계입니다

환생을 위한 기도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하신다.

행복한 전쟁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됨을 위해 사랑과 믿음을 불사른다면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삶의 어두운 적막감을 사정없이 부숴버리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돌진한다. 지치다 쓰러져도 일어서고, 일어서며 마음과 영혼은 극락을 향해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극락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시를 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도를 위해서...

도서출판 솔과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츄리오피스텔 1110호
전화 : 02-876-4655 팩스 : 02-876-4656
핸드폰 : 011-9075-9787

지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 문화 축제다.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 축제는 지역 문화 축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불교 문화 축제로 내세울 만한 지역 문화 축제는 전체 400여 건 가운데 약 20여 건. 하지만 각종 축제에서 범패 시연이나 연등제는 이제 일상화했다. 대구 갓바위 축제

하동 야생차 축제 · 초의문화제
만해축전 · 해운대 연꽃문화제
•••
미리보는 올 지역불교문화 축제

화합 북돋는 '열린마당'

의 찬불가요 음악회나 단양 온달 축제의 연등제, 창원 시민의 날 기념 유등제 등은 불교 문화 행사가 종교 행사의 차원을 넘어 지역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행사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동 야생차 축제가 작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무안 연꽃 축제가 하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지역 불교 문화축제를 찾아 가슴으로 불심을 키워보자. 대표적인 지역 불교 문화축제를 알아본다.

하동 야생차 축제는 범패의 발생지이기도 한 경남 하동 쌍계사 일원에서 펼쳐진다. 하동 지역은 우리 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녹차 생산지이다. 신라 흥덕왕 3년 김대렴이 당에서 차씨를 가져와 쌍계사 근처에 처음으로 심었고 진감선사가 널리 보급시킨 차 시배지로 유명하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독립과 불교 개혁 정신, 문학혼을 기리기 위한 만해축전은 '만해학의 고향'이라고 일컫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8월 15을 전후해 4일간 열린다. 99년부터 시작한 만해축전에는 특히 일반인 대상의 만해 시인학교에 해마다 100여 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리고 있다.

97년 시작된 무안 연꽃 축제는 9월 2일부터 4일간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회산 연꽃방죽 일대에서 열린다. 그 동안 지역 문화 축제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불교문화제로 키워갈 계획이다.

한국의 다선으로 불리는 초의 선사의 삶을 기리기 위한 초의 문화제는 10월 25일을 전후해 이틀간 전남 해남 대둔산 일지암 일대에서 벌어진다. 초의 선사가 40년간 주석했던 대둔산 일지암에서 초의 선사의 입적일인 음력 8월 2일에 맞춰 지내던 다례제를 92년부터 초의 문화제로 확대했다.

천불 · 천탑으로 유명한 전남 화순 운주사에서는 96년부터 '운주 대축제'를 열고 있다. 운주사 천불 천탑과 와불에 얽힌 설화를 현대적 의미로 살려낸 행사가 4일 동안 펼쳐진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지난해 5월 9~23일 열렸던 하동 야생차 축제.

대표적인 지역 불교 문화축제

축 제 명	시 기	행 사 내 용	지 역
하동 야생차 축제	5월 중순	학술세미나, 차밭 따기 대회 녹차 시음, 차 덖조과장 시연	경남 하동
동학사 벚꽃 축제	5월 중	심야 퍼스트벨, 가족 등반 대회, 산신제 민족혼일 기원제	충남 공주
만해축전	8월 15일 전후	만해장 시상 시인학교, 백일장 학술세미나	설악산 백담사
초의 문화제	9월 2일 전후	학술 강연 다례 시범, 특별대회	전남 해남 일지암
무안 연꽃 축제	9월 2~5일	불교 문화제, 연꽃 가요제, 무용 음악회	전남 무안
신라 문화제	9월 초	불교문화, 신라역사대전, 백일장, 음악제, 민속놀이	경주 경주
화순 운주 대축제	11월 초	운주사 시조전, 천불천탑 만들기 민속공연	전남 화순 운주사
낙산 해맞이 축제	12월 31일~1월 1일	소망기원 연등달기, 해맞이 법회	강원 양양 낙산사
함입의 일출제	12월 31일~1월 1일	새해의 꿈 자축 일출제, 풍물의식	전남 여수 함입일
창원 시민 유등제	4월 중순	시민화합 기원행사, 연등 만들기 민속 놀이	경남 창원
하동야 연꽃 문화제	8월 중순	토속 조형물 만들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부산 파른대

"사찰갈때 입으세요"

'한국불교의상 제안전' 법복 · 신행복 소개



한국불교의상 디자인 연구원(원장 정영자)은 1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제1회 한국불교의상 제안전'을 개최한다.

10년 동안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 입는 '육법공양법복'을 제작해 온 정영자 원장이 법복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불교의상 디자인 연구원을 개원하며 마련했다.

이날 전시되는 의상은 크게 육법공양법복과 신행 활동복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신행 활동복은 솜과 우단으로 만든 겨울옷 11벌, 수직실크를 원료로 한 사계절용 5벌 등 20여 벌이 선보인다. 또 옷에는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수놓아 한 눈에도 법복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육법공양을 올릴 때 입는 법복은 우리 고유의 전통 관례복과 주름이 생략된 장삼의 형태를 복합해 제작했다.

정영자 원장은 "10여 년 동안 조계사 새벽 예불에 참석해보니 불자들이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육법공양법복을 만들게 됐다"며 "상의는 깊이를 조금 길고 단정하게 곡선미를 주고 하의는 외출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 해 법회나 예불시는 물론 외출복으로도 적합하도록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jkm@buddhapia.com)


◇철조천수관음보살좌상

프랑스 기메박물관 한국실 확대 재개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동양미술품 전문관인 기메 박물관이 5년여의 개 보수 작업을 마치고 15일 재개관했다. 이번 재개관에선 특히 20여 평에 불과하던 한국실이 108평으로 늘어나 눈길을 끈다.

박물관은 한국실 확장을 기념해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철조천수관음보살좌상, 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도병, 이한철의 화조도병 등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000여 점의 한국 유물 가운데 최고의 유물 400여 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무소유 삶의 자취를 찾아

장욱진 10주기 회고전

2월 15일까지 갤러리 현대

박수근, 이중섭 등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장욱진의 10주기 회고전이 서울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2월 15일까지 열린다. 49년 작 '독'에서 타계 직전에 그린 '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고른 대표작 7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작 가운데 '소' '아이와 나무' '까치와 호랑이' 등 23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장욱진은 그림과 술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린 화가다. 지난 60년 그림만 그리려고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둔 그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홀로 화업에만 몰두했다. 자연히 아내인 이순경(80) 씨가 생계를 떠맡아야 했다.

70년 작 '진진묘'는 이런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찬사의 표현이다. 보살상처럼 보이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그는 꼬박 일주일 동안 밥도 술도 끊고 매달렸고, 그림을 완성하고는 탈진해 석 달 동안 앓아 누웠다는 일화가 전한다.

그가 버린 것은 서울대 교수 신분만은 아니다. 그가 칩거했던 수안보나 덕소의 화실은 마치 선승들의 방처럼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최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불교가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평생 불교와 가까웠다. 7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그렸던 먹그림은 책방 일을 놓은 아내에게 사경을 권하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02734-6111 권형진 기자


◇1978년 작 '사찰'.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가만히 앉아 창 밖을 내다본다. 거리엔 벌써 어둠이 내렸다. 문득 창에 비친 얼굴과 눈이 마주친다. 낯선 내 모습. 무언가 말을 건네 오는 것 같다. '당신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가?'

현대인은 너, 나 없이 마음이 허전하다. 속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존재의 상실감은 더욱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바쁜 일상의 와중에서 정신 없이 뛰어다니다가, 때때로 이렇게 가슴을 엄습해오는 이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그립다.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하나라도 가지는 것이 아닐까? 문득 며칠 전 읽었던 이윤기의 '세 동무'가 생각난다.

아내를 잃은 '그'는 사망신고를 하러 고향에 들렀다가, 중음(中陰)을 떠돌 가여운 영혼의 먼 길을 배웅할 스님을 소개받기 위해 친구 동생이 비구니 스님으로 있다는 암자를 찾는다. 그곳에는 마침 스님과 동갑으로, 친하게 지내는 수녀가 놀러 와 있다. 오빠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스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어느 보살이 만들어 놓고 간 국화주를 대접한다. 스님과 수녀는, 아궁이에서 대나무 타는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잔을 비우는 그를 위로한다. 스님은 슬픔을 잊도록 그에게 노래 부를 것을 권한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이어 스님과 수녀의 답창이 뒤따른다. 이윽고 그가 옛 노래인 '세 동무'를 부르자, 그의 처연한 감정이 '한지에 먹물 배듯' 듬는 이들의 가슴을 적신다. 두 사람은 그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청하고, 그는 몇 번이고 노래를 되풀이해 부른다. 그 사이 산사의 밤은 깊어만 간다. 마침내 세 사람은 노래 제목처럼 '세 동무'가 되고, 함께 나는 슬픔은 점점 바래져 투명해진다.

이윤기의 '세 동무'

종교 다른 세사람 암자에서 하룻밤 '마음이 통했다'

비구니 스님과 수녀, 그리고 세속인이 함께 보낸 밤은 아름답다. 그들 사이에 진정한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교감이, 특히 종교적 입장이 다른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값지다. 이 이야기는 '삼소회(三笑會)'의 미담을 연상시킨다. 이 모임은 비구니 스님, 수녀, 원불교 정녀들이 함께 모여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이다. 희색, 검은색, 흰색의 옷을 입은 그들이 나란히 서서 합창하는 모습은 종교간 대화가 끊어진 황량한 이 세상에서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첫 망울을 터뜨린 산수유 꽃처럼 신선하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아름답다. 먼 옛날 중국 호계라는 곳에서도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었다(虎溪三笑). 당대의 정신적 거봉들이었던 유교의 도연명, 도교의 육수정 그리고 불교의 혜원 스님이 호계 개울가에서 터뜨린 호쾌한 웃음이 아직도 우리들 귀에 쟁쟁한 듯하다. 21세기는 종교간의 대화가 앞장 서서 이루어져, '슬프게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도 따라 열리기를 기원한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남미문화으로 박사학위 ●성현문화재단 연구실장 ●문학평론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만 월 등



(빨 강) (노 랑) (핑 크) (노 랑)
(오 색) (차걸이등) (오 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심포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 주문시 전구간격
기존은 2주전 주문(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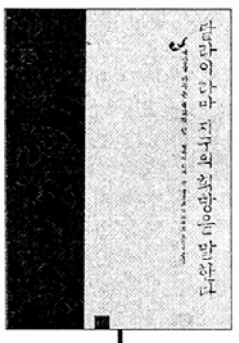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TG 반도체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위기의 인류에 던지는 깨침의 메시지

'달라이 라마 지구의 희망을 말한다' 까리에르 지음

동서양을 아우르는 정신적 스승으로서 빛나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티베트의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는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 지구의 희망을 말한다〉(롱셀러, 오정숙 옮김)는 교리나 수행 중심의 법문집도, 달라이 라마의 개인사나 종교적 관점을 분석한 연구서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달라이 라마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은 대담집이다. 대담자는 영화 〈양철북〉의 시나리오를 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장 끌로드 까리에르.

달라이 라마가 꼽은 인류의 큰 문제는 '인구 증가'다. 그의 입장은 '비극'이라 말할 정도로 단호하다.

"시야를 넓혀 보면,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내일이면 인구 과잉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윤리의 문제도, 정신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아 제한은 널리 알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순간 지구상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50억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려면, 수적 증가를 하루빨리 막아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는 그는 생명의 존재를 미리 막는 산아 제한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는 불교가 이런 장벽을 깨뜨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 생명 하나가 모든 삶을 위협한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이 라마의 입장은 현실적이다. 심지어 '경전도 세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다면 바꾸어야 한다', '여성이라도 달라이 라마가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특히 경전에 대해 그는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이 세상에서 죽어라 경전 말씀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지요. 틀린 점이 밝혀지면 경전도 바꾸어야 합니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꼭 해야 할 일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불교적으로 금지해온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문제 풀려면 산아제한 조치 필요

경전 시대맞게 재해석



◇지난해 6월 다람살라를 방문한 우리나라 방한 준비위원회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달라이 라마.

이러한 인류의 문제는 오랜 시간과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인구 폭발과 생태 등 지구적 생명이 걸려 있는 생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모든 지도자, 과학자, 교육가들이 총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류의 큰 흐름에 대해서 그는 낙관론을 편다. '하나로서의 인류'라는 개념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처럼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앙숙이었던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사라진 점, 그리고 점차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책은 막연히 티베트 불교의 수장쯤으로 여겨지던 달라이 라마의 순수한 생각을 간접 체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덧붙여,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꼭 귀띔해 주고싶은 것은, 이 책이 지닌 묘미의 상당 부분이 대담자의 솜씨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적절한 질문과 다양한 예시, 그리고 독백은 독자들을 달라이 라마의 생각 속으로 보다 가깝게 안내해 준다. 값 8천8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사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술술 읽을 수 있는 불서는 없을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불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책은 드물다. 불서가 쉽게 대중화되지 못한 것도 그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얼마든지 좋은 불서를 찾을 수 있다. 이제열(유마선원장) 법사가 지난 96년 펴낸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강좌〉(여시아문)도 바로 그런 책이다. 눈 여겨 살펴보지 않으면 〈금강경〉 해설서쯤으로 보아 넘기기 십상이지만, 서문정도만 읽어봐도 '내책'으로 만들고픈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독자라면 자신 있게 이웃에도 일독을 권한다. 〈금강경〉 이해는 물론 불교이론의 체계를 잡는데 이만한 책이 없다고.



불교 기초 다져주는 금강경 신행 입문서

이 책의 서술 태도는 철저히 일반인들의 눈 높이에 맞추고 있다. 게다가 글쓴이가 재가불자수행도량 유마선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금강경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혀준다. 사실 〈금강경〉은 지금까지 여러 석학들이 많은 역서를 내놓았다. 그러한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이 책은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글쓴이는 그 대표적 이유로 기존의 책들이 너무 선(禪)적으로만 해석된 점은 든다. 선사들의 〈금강경〉 해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법과는 다른 선사들 특유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불자들이 접근하기에 난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금강경〉의 요체에서 벗어나 쉽게만 쓰여진 것은 아니다. 〈금강경〉을 뼈대로 불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 차원에서 쓰여졌다.

이 책은 사전(?) 역할도 하고 있다. '부처님(佛)'의 의미 등 불교의 기초부터 학술적인 분야까지 놓치지 않고 풀어낸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에 대한 내용이 4쪽에 이르는 것도 그 이유다. 한마디로 이 책은 어느 독자의 말처럼 '이 책을 읽으면 불교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게 해 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21세기 새벽여는 화쟁사상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1



불교전기문화연구소(소장 최석환)가 지난 99년부터 원효 스님의 전기 설화 사상 업적 유적 등을 집성하고 있는 원효사상전집 시리즈 두 번째 권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 1〉이 도서출판 불교춘추사에서 나왔다.

이 책은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등 모두 3장으로, '원효의 화쟁에 대하여(최유진)', '원효의 정토왕생 신앙의 교학적 근거(정태혁)', '새 천년을 새롭게 열어갈 화두, 원효사상(최창규)' 등 모두 20편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최석환(불교전기문화연구소장) 씨는 "5년 간 원효 관련 자료를 모으는 한편 국내외 원효 유적 1백여 곳을 현장 답사하여 가능한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최대한 복원하려 했다"며 "원효 스님이 중국에서 온 1천명을 제도했다는 화엄벌 발견과 8백년 전에 필사한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지범요기〉 등을 찾아낸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값 2만원.

원효사상전집 시리즈는 〈원효어록〉, 〈원효와 인물〉, 〈원효유적답사〉 등 전 7권으로 오는 2003년 완간 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정직과 슬기로 엮은 행복 우화집

'인생은 어떻게 역전되는가' 이옥순 편역



한 성자가 갠지즈 강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본 다른 성자는 오랜 수행 끝에 얻은 자신의 초능력을 그 성자에게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강물 위로 가로질러 명상중인 성자에게 다가갔다.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보셨나요." "그럼요, 강물 위로 걸어오시더군요. 어디에서 배우셨지요."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12년 동안 고행을 했답니다. 한 쪽 다리로 선 채 일주일에 엿새를 굶으면서 노력한 결과죠." 명상하던 성자가 강 위를 가로질러 온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걸 배우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했나요. 단 2루피(60원)만 주면 언제나 뱃사공이 나룻배로 강을 건네주는데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님을 일러주는 짧막한 인도우화 한편이다.

〈인생은 어떻게 역전되는가〉(푸른숲, 이옥순 편역)는 고대부터 인도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우화들 가운데 현명함과 정직함으로 어수선한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만을 가려 뽑아 엮은 우화집이다. 설산에 들어가 30년을 고행하고 갠지즈 강가에서 명상하는 수행자들이 이 책의 주인공은 아니다. 복작거리는 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잔꾀를 부려야 하는 토끼와 생쥐들이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눈물겹게 투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삶은 지극히 선량하다. 이처럼 이 우화들에는 누추한 일상 이면에 깔린 인도인의 지혜롭고 낙천적인 인생관이 짙게 배어 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깨달음은 어디서 오나

무심 - 나는 진아다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진인으로 평가받는 슈리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제자 두 명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탐구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도서출판 탐구사의 '아루나찰라 별서'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된 〈무심 - 나는 진아다〉는 슈리 락슈마나 스와미와 마뜨루 슈리 사라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다.

스와미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진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가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때 진아의 은총이 어떤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르침의 중심주제이다.

사라다는 스와미의 법제자로 수행과정과 진아 체험의 이야기는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서 후학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진아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과 제자의 생애담과 함께 수행과 깨달음에 관한 그들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3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5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	세 등	문화동네
6	선, 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7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8	유식학개론	이 만	민 족 사
9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0	무심-나는 진아다	대 성	탐 구 사

도서 안내:(02)737-0695

서점가-화제의 책 ①

평생,
일년,
열두달,

삼백 예순 다섯 날, 날마다…
희망을 설계하십시오!



정겨운 12가족이
전국 서점에 소문없이 모였습니다.

5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운세이야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12명의 전문 집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화제의 책.

사랑하는 연인, 친구, 부모님께
365일 운세를 선물하세요.

취업 · 창업자에게, 나의 사업파트너는?
영원히 뜻을 함께할 동반자는 과연, 누구?

12가족 운세 이야기™

2001년 뱀띠 해[辛巳年]

점집이나 전화상담, 인터넷의 운세내용과 얼마든지 비교해 보십시오.
문제는 적중률……
이제, 최고의 적중률을 책으로 만난다!

오늘의 운세 시리즈①~⑫권
12가족 가운데 띠별로 한 권씩 고르십시오.
1질(전 12권)을 구입하시면 2001년 한 해 동안 온 가족의 운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전12권 각권 값 6,000원

(주)가족이야기 | 전화:02-542-2769 팩스:02-2266-2760 불교전문서점 공급처:법우당|02-994-4437~8

"도심사찰 현대화 외형만 치중"

홍광표 교수 사찰조경硏 학술회의서 주장

"부지매입 애로 고층화" "문화공간 역할 필요"

—조정식 교수—


◇홍광표 교수


◇조정식 교수

지난 82년 불광사(서울시 송파구 소재) 개원을 기점으로 도시의 중심이나 변두리에 현대식 사찰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사찰 건축 및 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수행, 예배, 포교라는 사찰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지은 도심 사찰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13일 '현대 도시 사찰의 이해와 불사 방향'을 주제로 열린 동국대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의 제4회 정례 학술회의에서 '바람직한 현대 도심사찰의 조경'을 발표한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이 논문에서 홍 교수는 "건축 자재만 현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전통사찰의 상징과 기능 외에도 도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심 사찰 건축의 원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도심 사찰은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관과 그 공간 활용에도 적잖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도심 사찰 대부분이 외부 공간을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도심 사찰들은 수행과 예배 이외에 도심 속의 휴식처로서, 불자의 모임이나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포교 활동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는 건축 자재나 조경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과 다를 바 없이 철근콘크리트나 화강석으로 지은 사찰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도시 사찰의 위상 정립을 위한 건축적 접근'을 발표한 조정식 교수 역시 "도심 사찰은 기존의 전통사찰이 갖고 있는 예배와 수행의 장소라는 성격 외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필연적인 요구조건"이라며 "도심 사찰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설계의 원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도심 사찰을 짓기 위해 우선 고가(高價)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고층'만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사찰이란 넓은 장소에 다양한 상징물이 있는 곳'이라는 일반인들의 개념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건축된 도심 사찰들은 기와 지붕이나 열주 등과 같은 전통사찰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심 사찰 건축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현대 불교 건축의 원형은 전통적 불교 교리에서 찾되 단순한 복제나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먼저 사찰의 현대화에 대한 관련 학계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 스님들은 이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김개천(이도건축 대표) 씨의 '현대 도심 사찰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최응천(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씨의 '도시사찰의 불교 공예', 손연칠(동국대 미술학과) 교수의 '불교 미술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전자문화지도에 '한국불교' 담는다

홍콩 ECAI회의 대장경硏 등 프로젝트 발표

가상공간에서 전자문화지도를 클릭하며, 한국의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이카이 코리아(ECAI Korea)는 15~20일 홍콩에서 열린 전자문화지도추진위원회(이하 ECAI) 회의에 참석하고,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ECAI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점검했다.

ECAI란 96년 루이스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세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술, 전적, 종교, 생태학, 철학 등을 지역이나 시대별로 전산화하고 이를 전자지도 위에 표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남아시아, 러시아, 실크로드 등 13개 나라와 단위 지역에서 1백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종림 스님,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허인섭(동국대 강사) 박사 등 고려대장경연구소 측과, 이혜은(동국대), 성효현(이화여대), 심재룡(서울대) 교수 등 이카이 코리아 측이 참여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고려대장경 2000'을 시연·발표했고, 이어 '한국불상-시험버전'을 발표했다. '한국불상'에는 국내 30여 개의 국보급 불상에 대한 정밀 측정 자료는 물론 얼굴, 손, 발, 옷주름, 앉은 자세 등 모양새까지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것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올린 자료들이 제공됐다.

이카이 코리아는 설화·판소리·무속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김흥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교수의 '구비문학', 원효·지눌·서산·만해·경허 등을 비롯해 한국의 위인을 전산화하고 있는 심재룡 교수의 '성인전', 윤이흠 교수의 '종교문화' 등을 발표했다. 이혜은·성효현 교수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경도와 위도를 산출해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카이 코리아의 문화 인프라를 전자지도에 옮기는 방법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김흥규 교수는 "불교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불교학·철학·지리학·역사학 등 모든 영역의 불교 관련 성과물을 응집시킬 수 있는 사이버 대작불사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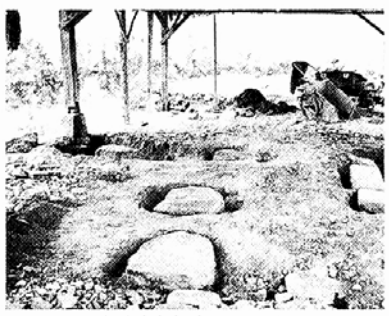
도종욱 기자

충주시 3월부터 김생사지 발굴

신라의 명필로 해동서성(海東書聖)이라 불렸던 김생이 창건한 사찰 터로 추정되는 김생사지가 3월부터 발굴된다. 충북 충주시는 김생사지가 도 기념물(제114호)로 지정됨에 따라 6천여 만 원을 들여 발굴키로 했다.

충청대 박물관이 지난해 7월 지표를 조사한 결과, 1만 1천 738㎡에 이르는 사지에서 항아리 형태의 석조물과 탑의 부재로 각종 석재, 길이 124㎝, 높이 52~90㎝의 석축 등을 발견했다.

충주시는 우선 김생사지에 대한 정밀 발굴 작업을 실시한 후, 명문기와와 같은 김생사지임을 입증하는 유물이 발굴될 경우 국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생사지 지표조사 모습.

동국대 2000학년도 전기 불교관련 석·박사 논문 22편

유식·불화연구 '눈길'

동국대 대학원 2000학년도 전기 불교 관련 박사·석사 학위논문은 모두 22편(박사 6편, 석사 16편)으로, 유식과 불화를 조명한 논문이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사 학위논문은 '세친 유식사상의 기원과 성립에 관한 연구'(김진태·불교), '〈유가사지론〉의 보살지 연구'(김봉회·불교), '유식설과 밀교의 실천 원리 비교 연구'(이승호·인도철학), '한의학 정신과 불교 유식학 중심 법과의 상계성에 관한 연구'(김경선·한의) 등 유식 관련 논문으로, 젊은 학자들이 유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무득해도(無得解道)의 수행관 연구'(임승택·인도철학), '조선후기 사찰계 연구'(한상길·사학) 등 수행 관련 논문들이 나왔다.

석사 학위논문은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대 환경설계'(이승주·조경), '경주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연구'(신용철·미술사), '조선후기 사불산(四佛山) 불화 화맥 연구'(김경미·미술사),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황규성·미술사), '17세기 전반기 대형 소조불상의 연구'(심주완·미술사), '조선후기 용주사 불화의 연구'(강영철·미술사) 등 16편이다.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장보고의 적산법화원 새단장

판교진에서 숙성촌까지

조 영 록 〈동국대 교수〉



우리 중국불적답사팀 19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8박 9일간 산동성 한국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산동반도는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래로 양국 간의 불교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진 곳이다. 신라의 화엄종조 의상대사나 고려의 천태종조 대각국사가 이 곳으로 상륙하였으며, 9세기 동아시아 세계에 강력한 해상세력을 행사하던 장보고도 여기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적산 법화원을 건립하였다.

고려정관 기념비 제막

우리는 주로 이들 불적을 중심으로 하되 태산, 곡부와 같은 명승지도 포함하여 되도록 한국 관련 유적지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탄 중국민항은 1시 30분, 한시간이 채 못 걸려 청도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답사에서 한가지 특기할 일은 12월 25일, 교주시(膠州市)에서 고려정관(高麗亭館) 기념비의 제막식에 우리를 초청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다. 교주시는 대각국사가 상륙한 옛 판교진(板橋鎭)이며, 고려정관이란 북송시대 고려사신이 상륙하면 그들을 맞아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이다. 교주시에서는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고자 일년 전부터 이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일행의 답사기간에 맞추어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답사 경로

판교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우리의 답사는 26일과 27일은 적산 법화원과 등주(登州)지역으로 옮겼다. 판교진에서 위해까지는 동북방으로 3시간 반이 소요된다. 필자는 6, 7년 전에 적산 법화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산문이 새로 서고, 대웅전 뒤로 법화원이라는 현판을 단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다.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를 맞아 차를 대접하였다. 주지 스님은 구화산 방장 인덕(仁德) 스님의 상좌라고 하니 간접적으로나마 한국과의 친분이 있는 셈이다. 다음날 아침 답사단은 등주를 향했다. 당대 전기까지의 등주(봉래시)는 해상교섭의 중심지로써 신라방이 있었다고 전한다. 부슬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해안에 자리잡은 봉래각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며 옛적 의상대사가 하선하여 묵었을 곳을 찾아보았다. 오후에는 등주에서 발해를 따라 내륙으로 8시간 반이 걸려 제남(濟南)에 도착하였다. 이 길은 아마도 의상대사가 등주에서 장안으로 갈 때 지났을 그 길일 것이다.

28일과 29일 양일은 제남에서 아래로 태산과 곡부(曲阜)를 차례로 지난다. 동아시아 한문화권에서 영산으로 여겨 온 태산의 등정은 날씨마저 화창하여 우리들 마음을 한결 명랑하게 해주었다. 오를 때는 다도가 박동춘 씨의 '태산이 높다하되' 시조창이 일품이더니, 내려올 때는 동림(혜림사 주지) 스님이 산상에서 산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지연(기원사 주지) 스님이 다라니경으로 화답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청정심을 나게 했다. 태안시 산기슭에 위치한 보조사(普照寺)를 찾아 조선 초기의 고승으로서 태산불교를 중흥한 운공 만공선사의 공덕비를 확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다음날 공림(孔林)을 참관할 때도 스님의 목탁소리가 울려 퍼져 진기한 장면을 이루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공자의 묘소 앞에 이르자 특별한 의도도 없이 스님이 선창하고 우리는 뒤를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니 그야말로 불교와 유교가 일치를 이루는 뜻깊은 장면이었다.

시조 읊으며 태산 올라

29일 늦은 점심을 임기(臨沂)에서 먹고, 저녁 무렵 강소성 연운항(連雲港)에 도착하였다. 연운항은 옛 해주(海州)로서 위로는 교주로 통하고, 아래로는 회안(淮安) 양주(揚州)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다. 30일 아침, 해안으로 옛 신라방이 있었다고 하는 숙성촌(宿城村) 답사에 나섰으나 볼다른 자취는 찾아 볼 수 없고, 이웃한 시가지에 한국음식점 간판만 보일 뿐이다. 숙성촌 답사 후 해안을 따라 북으로 차를 몰아 일조시(日照市)에서 점심요기를 하고 대주산(大珠山)과 교남시(膠南市)를 지나 교주만에 다다랐다. 이 해안은 우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서 최치원과 대각국사, 그리고 일본의 구법승 엔닌이 여기를 지나 다니면서 남긴 시문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제 1기 禪友募集

마음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如來禪) 전문 수행처.

근본불교 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Fax : 02)512-4406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Dagon Yangon Myanmar
E-mail : buddhapia_@hanmail.net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하여 쉼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 수행일정표

서울	에비기초반	매주 火, 木 - 오전 11:00~12:30
	일반수행반	매주 月, 水, 金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토요정진반	매주 土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火, 木 - 저녁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토요정진반에는 阿含經(원시경전의 게송집)과 金剛經을 강설 1시간에 이어 정진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40M 귀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250M 귀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의 뉴-다곤에 위치 (직접 문의)

오직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선우들만을 위한 시민선방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좋고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만 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 교재, 회비무료, 단, 천도제, 일반제사 사절 ≫

法山 붓다피야 合掌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관음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法華三部經講院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3.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5.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6.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7. 卒業惠擇 ■ 수학증서 수여
■ 교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崔 光 永 책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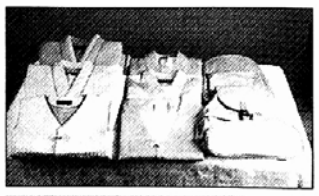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엽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람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 女	130.000
누비 (上, 下)	男 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 女	130.000
누비조끼	男 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 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폭풍우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배를 덮치고…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⑯

(15) 동녘으로 출발하다

비록 동녘 땅 진단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달마의 심정은 편치 않았다. 조카 도견왕의 간곡한 말과 행동에 새삼 혈육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더군다나 남천축에서 태어나 이 곳의 물을 마시고 이 곳의 곡식을 먹고 자란 터에 어찌 향토에 대한 일말의 애정조차 없을 수 있겠는가.

도견왕은 기왕 떠나기로 한 숙부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냥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내관에게 종이와 붓, 먹과 벼루를 갖고 오라고 명했다. 숙부께 가르침의 글을 한 수 남겨 주실 것을 간청했다. 달마는 흔쾌히 청을 받아들였다.

도견왕은 친히 먹을 갈았다. 방 안 가득 묵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달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살며시 눈을 감았다. 이윽고 눈을 뜬 그는 승복을 걷고 힘차게 붓을 잡았다. 일필휘지로 '계정혜(戒定慧)'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갔다.

도견왕이 먹을 갈았다

"이른바 계(戒)는 그릇된 것과 악을 방지하여 일종의 평안함과 상서로움 그리고 조화로움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고, 정(定)은 마음이 깨끗하여 어떤 환경 아래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혜(慧)라는 것은 진리를 실증하여 의혹이 없음이니, 여러 경계에 대한 감수(感受)와 이해 능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도견왕은 마치 생동하는 불과(佛果)를 듣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눈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분과 감사의 마음에 휘감겨 숙부 앞에 부복했다.

'좋은 글 영원히 간직하겠나이다. 날이 저물었으니 숙부께서는 이제 그만 편히 쉬시지요. 내일 떠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되도록 큰배를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까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가 합장을 하며 읍을 했다.

'조카를 너무 수고스럽게 하는군요. 아미타불!"

드디어 새벽이 밝았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우유빛이 감돌았다. 그 우유빛은 순식간에 분홍의 둥근 원으로 변하여 빛을 발산한다. 금빛 찬란한 햇살이 바다의 수증기를 뿜어 올리며 붉게 타올랐다. 파도는 마치 합창하듯 고요를 깨트린다.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한 척의 나무배는 햇빛과 파도의 합창을 감상이나 하듯 율동을 거듭한다. 배 안에는 벌써 말린 과일과 병(餠)이 가득 실려 있었다. 큰 물통마다 깨끗한 식수가 채워졌다. 이제 수천 길이의 돛만 올리면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나는 셈이다.

이윽고 아침의 정적을 깨고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달마와 국왕 일행이 바닷가 목선 앞에 도착했다. 왕숙을 동쪽으로 떠나보내는 준비 못지않게 의식도 대단했다. 왕과 태자뿐만 아니라 대소신료들도 모두 관모를 쓰고 화려한 관복 차림으로 전송의식을 장중하게 치렀다.

보리달마는 배에 오르기에 앞서 도견왕과 신하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국왕과 여러 대신들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소승을 배웅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도견왕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여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숙부님께서 이번에 가시는 저 바닷길은 광대하고 풍랑 또한 거셉니다. 각별히 몸조심하십시오."

중신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입을 모았다.

"조사님 가시는 길에 내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절을 끝내고도 도견왕은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그때 갑자기 바다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마치 포효하듯 파도가 모래사장을 덮쳤다. 바닷가 바위에 묶여 있던 목선의 밧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풀렸다. 미처 달마가 배에 오르기도 전에 목선은 파도를 따라 바다로 미끄러져 나갔다.

"큰일났다!"

도견왕이 놀라서 소리쳤다.

"빨리, 빨리 밧줄을 잡아라!"

대소신료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밧줄을 잡으려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신하 한 사람이 겨우 밧줄의 끝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달마는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이 얼마나 착한 조카고, 이 얼마나 훌륭한 대신들인가! 또, 얼마나 착한 백성들인가!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달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여러분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승은 이만 떠나겠습니다."

망망대해 위 일엽편주

보리달마는 껑충 몸을 날려 배에 올랐다.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배에 사뿐히 내려서는 달마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전송하던 모든 사람이 새삼 혀를 내둘렀다.

"정말 예사로운 어른이 아니시다."

"살아있는 부처님이 틀림없으시다."

달마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환송나온 사람들을 향해 합장

달마는 배에 오르기가 무섭게 돛을 한껏 펼쳤다. 돛에 한껏 바람을 받은 목선은 쏜살같이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갔다. 목선은 어느새 해안에서 멀리 떨어졌다. 배웅 나왔던 도견왕과 여러 신료들의 모습이 마치 한 점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갔다.

망망대해 위의 일엽편주라고 했던가. 목선은 바람에 밀리고 파도에 흔들리면서 흘러 흘러 동녘 땅 진단을 향해 나아갔다. 아직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수평선뿐이었다. 그 수평선은 영원히 끝이 없는 듯싶었다. 배는 서남풍에 실려 계속 해 뜨는 방향으로 전진해 갔다. 그러나 바다의 해류는 일정치가 않았다. 때로는 역류(逆流)를 타 하루 종일 항해했는데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거대한 파도는 마치 높은 산의 절벽처럼 목선을 때리기도 했다. 이럴 땐 배가 파선 직전까지 몰리기 일쑤였다. 광풍에 돛이 갈기갈기 찢기고 돛대마저 부러질 지경에 이른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달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워하거나 조급해 하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에 걸친 면벽과 참선을 통해 달마는 이미 모든 것을 초탈해 있었다. 곧은 성품과 조용한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바탕을 이루었다.

폭풍이 몰아쳐 오고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쳐도 달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달마 자신이 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바다가 고삐 풀린 야수처럼 언제든지 배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달마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달마는 해탈을 얻게 되겠지만 동토에 가서 법을 펴고 선종을 빛내는 일은 영원히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하지만 달마는 믿음이 확고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침착하게 물길을 살피면서 육지에 상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곰곰하게 검토했다. 그는 해 뜰 무렵이면 언제나 선실 안 나무 판벽에 금을 그었다. 항해의 일정과 시간 계산을 위해서였다. 식량과 식수의 절약에 특히 신경을 썼다. 때로는 며칠씩 단식을 하기도 했다. 달마의 단식법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좌정하고 조식을 올바로 하면 입 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된다. 이 침을 일컬어 금진옥액(金津玉液)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로수(甘露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침을 입 안에서 호흡에 버무려 단전으로 내리면 조금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바다위에서 어언 일 년의 세월이 흘렀다. 도견왕이 준비해 준 마른 음식과 열매 그리고 대나무통에 저장해 둔 식수는 아직도 반 이상이나 남아 있었다. 그만치 달마의 계획은 치밀했다. 달마는 앞날의 광명과 희망을 꿰뚫어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고생과 고통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실로 위험천만한 순간

겨울과 여름이 어느덧 세 번이나 바뀌었다. 이 날도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달마는 선미(船尾)에 앉아 한 손으론 방향타를 잡고 한 손은 돛을 올리는 밧줄을 꼭 쥐고 있었다. 파도의 물벼락에 휩쓸려 달마의 온몸은 흠뻑 젖어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달마는 애써 배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럴 때마다 배는 파도에 놀아나듯 곤두박질쳤다. 이 바람에 달마는 몇 번이고 바다 속으로 던져질 뻔했다.

달마가 뱃길을 떠난 후 이번처럼 호된 시련을 겪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악천후는 기세가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드세졌다. 바위덩이같은 달마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다. 일말의 불안과 초조가 그를 허둥대게 했다. 그러나 달마는 곧 마음을 집중했다. 방향타를 꼭 쥐고 바다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다행스럽게도 바람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달마는 성난 파도 때문에 잃어버린 방향감각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언제 그랬냐싶게 햇빛이 내리 쪼였다. 달마는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을 등지고 동쪽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그러나 밤이 되자 날씨는 더욱 더 무섭게 표변했다. 빗줄기는 계속 굵어지고 바람 또한 더욱 거세졌다. 밤은 마치 악마처럼 검었다. 갑자기 태산같은 파도가 밀려왔다. 배는 순식간에 파도 속에 자취를 감췄다. 큰 돛대는 우지끈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가 나고, 방향타마저 온데간데없었다. 배는 균형을 잃고 파도에 말려 회돌이쳤다. 침착하고 용의주도한 달마조차도 대처할 겨를이 없었다.

달마는 어떻게 해서든 밧줄을 잡고 배의 나무판에 자기 몸을 묶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한 무더기의 파도가 다시 한 번 배를 강타하자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달마의 몸통이 파도에 실려 날아갔다. 실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달마는 시커먼 파도 속에서 분명히 죽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끝장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미타불!"

달마는 계속 "아미타불!"을 입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여 곧 극락세계로 가서 왕생정토(往生淨土)하게 될 것을 염원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극락세계란 즉 '정토'를 일컫는 것이다. '아미타경'에서 말하기를 "서쪽으로 불토 십만억을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이 극락이며 그 땅에 부처가 있어 아미타불이라 칭한다"고 했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아름답고 신묘한 경치를 묘사해 놓았다. 또한 아미타불을 믿고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관상(觀想) 혹은 염불(念佛)하면 죽음 뒤에 부처의 원력과 감응으로 왕생정토되어 "여러 선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 지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정토는 함부로 왕생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세상에 남아 업보를 더 치러내야 하는 것인지 파도는 달마를 삼키지 않았다. 거센 파도에 실려 달마의 육신은 갈색의 암초 위에 던져졌다. 달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적광 스님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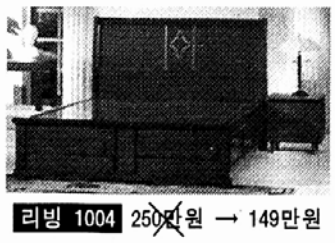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깊은수면중에 기(氣)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 건강한 잠! 개운한 잠! 이제 돌침대 를쓰셔야 합니다.

폭탄세일

일반 옥매트가 전기장판을 대신 할 수는 있으나
전통온돌방을 대신 할 수있는것은 전통 원적외선
온열요법의 리빙스톤 돌침대 뿐!

침대(잠자리) -
이제 건강 (척추, 혈액순환),
위생(세균,진드기)을 생각할때 !



리빙 1004 250만원 → 149만원



사군자 330만원 → 19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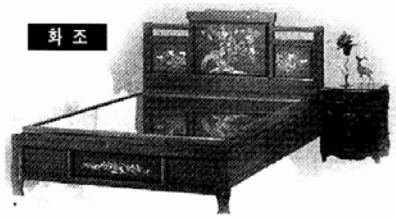
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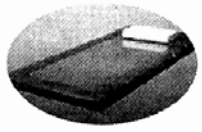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화 조





101 싱글보료

침대의 名家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평상(平床) 제작 전문
(휴식, 작업다이),
사무용 가구 주문 제작 납품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삶, 그것은 수행

강 인 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어디에선가 한번쯤 들은 소리, 귀에 익숙한 소리인 독경 소리를 듣다 보면 아련하게 이끌리는 무엇인가가 가슴속에 메아리 친다. 요즘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독경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태(胎) 속에서, 아니 그 이전의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명 딸이셨던 어머니는 2대 독자인 아버지께 시집오셔서 딸 셋을 낳은 후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기 위해, 아니 당신 스스로 불교경전을 공부하며 한글을 깨치시려고 가까운 사찰에 다니셨다. 그러던 중 원하던 아들을 낳으셨지만 그 아들이 백일도 되기 전에 홀연히 부처님 나라로 떠나셨다. 세상을 겨우 30여 년 사시고 가시다니…, 내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런 어머니의 정성과 끝없는 이끌림이 마음속 한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 봤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인도로 이 교회 저 교회 무던히도 따라다녔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는 '이것은 아닌데, 내 갈 길은 다른 데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삶에는 철학과 목표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잊고 지내던 불교를 다시 찾게 된 것이 재가 신행모임인 '부처님마을'에서 였다. 부처님마을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일부 사람들이 학교 시절 열심히 하던 포교와 수행을 계속하자고 결성한 모임이다. 회원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중산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 사찰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가족단위 여름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같은 뜻을 지닌 법우들과 함께 절하며 참선했던 시간이 인상에 남았다. 또 체계적인 불교 교리를 배운 것이나 스님들의 수행 경험담을 들은 것도 신행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연례행사처럼 한 해 두 해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다.

이재의 소중한 경험들이 성인이 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르고 후회없이 사는 방법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곧 태어날 아이들, 나 하나만 보고 시집 온 아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 등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마을' 지역모임을 결성하고 가정 법회를 개최하며 이웃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이런 기도가 관음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관세음보살님, 어머니가 그리워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했다. 거실에다가도 관세음보살을 탁본한 사진을 구해 모셔놓고 조석으로 절을 올렸다.

나는 매일 출근하기전 관세음보살님을 향해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처님 오늘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행복으로는 아쉬워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하루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고하며 참회하는 것이 주된 일과가 되었다. 이러한 일을 15년동안 반복하다보니 저절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되었고 그러다보니 내성적이고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나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요즘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되어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인다. 그러면 가끔씩 꿈에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며 어릴 적 살던 고향집과 산과 들판 등이 보이곤 한다.

>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에 미약하나마 용기와 힘을 주는게 얼마나 보람있고 정법을 실천…"

아침에는 예불을 올리고 〈천수경〉을 독송한다. 또 시간이 없으면 아침 운동 시간을 이용해 집 근처 약수터에서 입을 깨끗이 씻고 물 한모금 마신 후 예불과 천수경을 올린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절에서 예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새벽 일찍 관악산 연주암에 올라 예불을 드린다. 기도가 끝나면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 달 계획을 구상하고 직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출장이나 집안 행사 등으로 몇 번씩 거르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허전한 마음이 들 정도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직장내 불교 신행모임을 결성해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고 성지 순례까지 주선하고 있다. 처음엔 몇 명 안되던 회원들이 이제는 제법 많아져 서로 만나 얘기할 때도 경전이나 사찰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곤 한다.

가정에서는 지중한 인연을 통해 내게 온 두 딸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항상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다.

또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수보살님의 대 지혜를 얻고 보현보살님의 행을 따라 맑고 티없이 명랑하게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수 보현 보살님의 모습을 그린 병풍을 애들 방에 놓아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시행을 베풀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발원하는 것이란 것도 빼놓지 않고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소년원 법회에도 참석하게 해 피아노 반주를 하며 소년원 언니들과 함께 찬불가를 부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 또 이렇게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약한 힘이나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부처님 정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길인가도 설명해 주곤 한다.

그래서인지 두 아이들은 요즘 청소년 답지 않게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안다. 또 열심히 독서하고 사고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잘 어울리고 친구에게 양보하는 이타행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 학교 성적도 뛰어나 선생님은 물론 주변 이웃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해 부모로서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한다.



그림 · 이준석

10년동안 소년원 아이들과 아픔을 나누며 살아왔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는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를 앞두고는 온 가족이 모여 "경민이가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해 평소 몸이 불편한 스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픈 중생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온 정성을 모아 기도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도 많아져 예전보다 더 화목해 졌다. 온 가족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공동으로 발원하는 행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합도 도모시켜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게됐다.

기도도 성적을 올리게 해달라는 내용보다는 "큰 딸 경민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합심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이 많아 공부와 성적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온 가족의 정성을 알았는지 경민이도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1학기 성적보다 2학기 성적이 조금 나아지고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험상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기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로 목적을 바라는 기도를 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만일 '성적을 올려달라' 든가 '일류대학에 가게 해달라' 고 기도하면 본인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돼 오히려 탈선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91년부터 재소자 청소년 교화 차원에서 소년원에서 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소년 소녀들에게 불법을 알려 그들이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 다. 특히 수원 소년원이 안양 석수동에 신축 이전되면서 종교실을 배정 받아 매주 일요일 마다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조그만 법당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소년원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절도, 유해물 취급,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이곳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놀기 좋아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포교 하기가 일반 청소년들보다 몇배나 힘들다. 하지만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노라면 모두가 내 자식같아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든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화두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결손가정의 아이, 편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 할머니나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 부모가 있어도 대화를 거의 해본적이 없는 아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정의 아이, 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 등 천차만별 이었지만 공통된 현상은 부모로부터의 애정 결핍이었다.

이들을 만나보니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나의 유년시절이 생각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원을 세워 기도했다.

매주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소년원 아이들을 내 딸들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친아빠가 되주려고 노력했다. 또 그들이 부처님 법에 의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법당에 모실 관세음부처님을 전남 나주에서 모셔와 법당을 꾸몄다.

아이들과 같이 법회때마다 관음정근도 하고 틈나는대로 찬불가 배우기, 108배 참회기도, 경전 퀴즈대회, 연등 만들기 및 반야심경 염송대회 등도 열어 부처님법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요즘은 한 달에 두 번 밖에 소년원 선재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10년동안 열심히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포교했다. 그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선재법당을 거쳐갔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

10년 동안 소년원 포교를 하면서 우리 가족도 사회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며 살아왔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가족을 위해, 주변의 동료와 이웃을 위해, 온 우주의 생명체를 위해, 찬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끝없는 정진의 시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기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청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3.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5.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화제의 신간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 〈태몽,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삶풀이〉
■ 부록 〈길흉 부부궁합〉
정현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梓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운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불교수행의 길잡이 1
절을 通한 氣차게 잘하는 법
헐떡이지 않고 절대 숨차지 않으며, 3천배를 하여도 지치지 않는 절 수행 秘法書 —
회/제/의/신/간
청견 스님 지음
값 6,500원
하루에 3천배씩 3년간 목숨을 담보한 절(拜) 수행결사 끝에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된 比丘 청견 스님의 절 수행 秘法과 생생한 수행 체험담이 담긴 이 책은 절을 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과학적으로 行할 수 있는 절 수행 지침서로써, 불자들의 가슴에 신선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 할 것입니다.
500만배의 절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 수행에 염불 대입법 / 온몸에서 빠져나간 약물 / 90세에 다시 찾은 젊음 / 절 수행으로 업장 소멸 / 카톨릭 신자의 절 수행 / 절 수행으로 당뇨병을 극복하다 외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절 수련 문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리산 천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031)771-7745. 6736
붓다의 마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 象갤러리 405호
전화 (02)722-0292. 722-0293(팩스겸용)
E-mail : BDland@chollian.net
■ 불교대학,군부대,교도소 등으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현대불교 제 303 호
서기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무조건 좋게 살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오늘은 한자리 한 분들이 모두 청년들일세. 법당뿐만 아니라 강당에 앉아 계셔도 모두가 한자리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니까 더 더욱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깊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렵지 않게 살면서도 한 번 뒤집는 거를 생각해 봐요. 뭘 가지고 뒤집는다고 그러느냐 하면, 항상 얘기하듯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될 때에 '잘될 거다' 하고 뒤집는 거 말이야. 번연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무조건 잘될 거라고 뒤집는 거. 이건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도 아주 필요해요.

우리는 과거 정신계하고 현실 물질계하고 포함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갈망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짓고 일을 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 모레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란, 살아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정을 짓고, 모든 거를 바꿔서 일을 하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뿌리, 나무의 뿌리와 같이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아닌 자기있어

그런데 지금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된 거다 하고 똑똑하게 따지는 것을 사회인이라고 하죠, 똑똑하게 못 본다면 사회인으로서 못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위기에 처해 있다. 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회사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건 왜냐하면 피바다를 일으키고 싸우는 싸움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회사 하나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 못해 애들까지도 살수가 없이 가정에서 울며 기가 막혀서 가슴에 멍이 들어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받을 돈은 많지만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무슨 이게 옳고 그게 옳고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성불이 통신을 해서 아래의, 즉 말하자면 하늘과 땅, 풍신, 용신들이 한데 합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돈 못 받던 사람도 받게끔 일이 펴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해야 회사뿐이 아니라 사회뿐이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자리를 잡아야 저 불국사의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기 몸 안에 다보탑이 되어 있다. 아주 맥반석처럼 튼튼하게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한자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이죠. 무조건 결정을 지어야죠. 그거는 사람이 한 두백이 아니라 가정도 한 두백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결정을 지어야죠. 군소리가 필요 없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생각이 천지를 진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실하게 다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하고 용신을 통하고 전부 통해서 통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순간이죠, 한 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옳고 그르고를 다 놔 버린다면 뭘로 사느냐' 이러겠죠? 뭘 가지고 사느냐고 하지만 놓으라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든가 밥을 굶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굶지 않고 꼭 먹어야 돼 하고 아예 결정을 지어 버린다면 꼭 먹게 되죠. 그런데 못 먹게 결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참 위대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다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도 못 벗어나서 어찔어찔하고 피곤하게 산다면 그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자기 기를 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쓰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악한 일이 상대방에 있다거나 어떤 거를 해결을 해야 한다면 선하게 주인공자리에서 해결을 하도록 항상 뭐든지 놓고 믿어야 되겠죠. 이 소리가 우습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세세생생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는 분들은 식구들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지는데도 능력이 주어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생각하세요. 차근차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이유를 따지지 말고 자기 앞에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맡겨 놓되 결정지어서 잘 되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얘기입니다만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사람은 참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해라. 무조건 된다고 한다면 그 쪽의 마음도 달라지고 너의 마음도 달라지고 결정적인 일이 성사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 쪽에서 상황을 다 조사해 보고는 보시한 셈 친다고 하고선 받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지 않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을 지으면 그 쪽 마음도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살아온 습이 있어서 화를 내기 좋아하는데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화내는 자리가 잡혀 있어서 아무리 화내지 않을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안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왕창 무조건 끊어요. 그냥 끊어 버려요. '화 안 내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너야' 하고선 그냥 끊어버려요. 잘 되게 하는 것도 잘 못되게 하는 것도 양면이 다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결정을 짓고 그냥 그냥 끊어서 결정을 해요.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공부하는 스님들은 더 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완전히 잡혀야 무심코, 공부가 다 되면 누구한테나,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냥 마음이 그 쪽 생각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을 지어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쪽의 원소는 다 알고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이, 정신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를 따진다면 공부 못해요. 진짜 사람이 못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잘못되면 식구 전체가 거지가 될 판인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발발발발 떨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공부하는 동생이 "형이 안되면 누가 돼. 식구가 다 굶을 거야. 돼야해." 하고 결정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주 웃음이 만발해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형 됐지." 벌써 이런 소리도 안하고. 믿으니까 "형 잘 다녀왔어?" 하니까 "잘 다녀오고 말고 무슨 덕인지 몰라. 그냥 어떻게 쉽게 됐는지 몰라." 결정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건데 결정이 저쪽에서부터 그렇게 쉽게 나오니깐 무슨 백을 가졌길래 그러냐고 그러고 위에 대통령 백을 가졌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 못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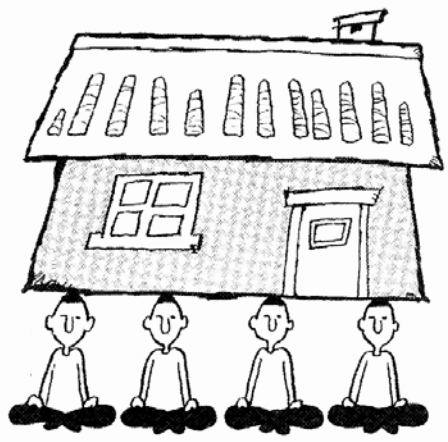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못될 것 같은 생각들때 잘 될거라고 뒤집어 보는 묘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법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급하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루종차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유전이 된 문제들은 해결 못해요. 그러고 말도 못한다고요. 그거 말을 하면 무꾸리쟁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이 해 줄 때를 바라는 건 안되죠. 누구든지 대신 못 살아준다는 건 아시죠.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될 거를 뒤집는다고 되느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됩니다.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로는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해요. 자기 주인공이 자볼이라고 그러죠. 주장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느라고 10년 20년 30년 4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돼서 자기 동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죠. 믿지 못해서 생각을 옳게 했다가 다시 돌려서 옳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만 못 나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허다 많아요.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부처님들도 깨우친 선사들도 다 계십니다. 안 보이시죠. (대중웃음) 주장자를 탕탕 벌써 세 번이나 울렸어요. 똑바로 먹게 하려고요. 집어먹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제일 으뜸가는 공부죠. 달마대사가 죽지 않을 건데도 죽어줘야 그 사람들이 편하겠으니까 우정 죽어줬죠. 그래서 갖다 묻었어요. 갖다 묻었더니 그걸 가르칠 수가 없죠. 보여줘야 될텐데. 그래서 신발 한 짝은 거기 남겨 놓고 신발 한 짝을 주장자에다 걸고 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물질계의 자기를 기르면 발 두짝이 한 짝으로, 하나로 돼요. 손도 한 손이 되고요. 여러 말을 해서 안됐지만 잊어버릴까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좋게 살 수 있게 결정을 지세요. 모든 거를 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짓고 살수가 있겠나 하겠지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안되든 되든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 나가면 몸에 마음에 배이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법이 있었던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울다가 땅을 내려다보고 웃었대요. '이런 근중한 법이, 남도 모르는 법이 있었을까?' 하고 쳐다보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다가 물 흐르는 걸 보고 너무 웃음이 나서 웃었대요. 이렇게 인생이 물 흐르는 거와 같은 거를 내가 발버둥을 쳤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살 때는 미래도 생각지 않고 이 공부가 뭔지도 생각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도예요. 삶이 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딱 자리가 뒤집어진 사람은 바로 가는 거죠. 바로 놓는 거예요. 뒤집어진 자리를 제자리에 바로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돌에도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보면은 그걸 알게 되요. 물에 사는 생명들도 꼭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지으면 거기에 관리를 다 하시고, 그래서 해수관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무조건 큰돌이 물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해수관음으로 계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쪽으로 들어가면 그 쪽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쪽으로 하나가 돼요. 이해가 안가시죠. 영이 만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개를, 만개가 각각 화해야 되는데 가진 각색으로 건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바뀌지지 않으면 안되죠. 그래서 찰나찰나 화해서 바뀌어 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살의 응신이 되실 수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빼고 낄 수도 없고 문도 꼭 열고 들어오고 육안으로 열고 들어오고 하지만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봇장도 문이 되고 옆도 문이 되고 다 문이 돼요. 사람의 털구녁도 문이 돼요.

말로만 듣고 경험을 못하신다면 참 억울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무조건 열심히 해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조건이에요. 나는 그냥 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 동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 자기가 자꾸 해봐야 키워지죠. 그러니 그 동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데 다 통해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죠. 물에 있는 용신도 내가 되고 내가 용신도 되고, 바꿔서 개구리가 되려면 개구리가 되고 건지려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진행을 안 해봤으면 이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 봐야 '이렇구나' 하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서 껄껄댈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도 짐승들의 삶이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좀 진화돼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죠.

질문1: 저는 예전에는 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경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몰라 답답해하며 때로는 남의 탓을 하고 나중에는 문제를 피해버리고 그런 내 자신이 싫어 계속 나를 구박하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반대로 모든 근심 걱정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경계들이 나를 성숙시켜 주는 나툼임을 알고 돌 아니게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고 또한 경계를 통해 내가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두통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 청년연합수련회 이틀 전에 갑자기 병원의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결과는 뇌하수체종양이라며 종양 크기로 봐서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뇌를 수술해야 한다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웬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뇌 사진을 다시 병원과 인연되는 사람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수술을 안 하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되며 지금보다 더한 두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되면은 동맥근처로 더 커지게 되면서 수술조차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실천해야 진화

예전 같으면 수술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수술을 받았겠지만 이 법을 공부하면서 수술 여부에 대한 생각을 신중히 잘 결정해야겠다 싶어 선원에 계신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저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몸은 마음의 표현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병은 이름일 뿐이고 불편하고 힘들어진 이 마음이 해결이 안되면 누적이 되어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병이라는 이름에 휘말리지 말고 병이 생기게 한 그 근본원인을 알아 해결하게 됨으로써 병이 난 원인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지금 내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이 난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가정문제나 대인관계에 순응하지 않고 저의 좁은 식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는 풀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을 보며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게 이끌어온 의식들이 안으로 응어리져 종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란 이름일 뿐이고 제 안에 잠재된 원인들이 그대로 남아 뭉쳐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술로 결과물만 떼어 낸다면 근본원인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화두로 삼아 공부한다면 병고가 아닌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사보살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성과 하나돼 슬기롭고 멋지게 살라

☞ 19면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병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려 하는데 저희 식구 중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식구가 하나도 없고, 또 제가 종손이라서 집안의 어른들이 수술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공부한다고 식구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식구들이 편할 수 있도록 냥 수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식구들의 걱정은 대단했습니다. 가족들과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병의 원인도 모른다고 했고 종양을 제거하면 완전히 치유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으니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겠노라고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아픔 거부않고 수용

병의 원인도 모르고 완전한 치유의 보장도 안되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와 병원에 내 몸을 절대 맡길 수 없었고 만약 수술을 할 경우 잘못될 수도 있고 종양이 생길 때마다 수술을 해야 하고 때로는 호르몬 생성제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술하는 날로부터 평생 병원 신세를 지며 아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프면 아픈 데로 주인공의 나툼임을 믿고 받아들여 사는 날까지 짧고 굵게 살아야겠다며 병과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하루종일 머리가 아팠지만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 아파야 하는 것이니까 아픈 것이지." 하며 아픔을 받아들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자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거의 울다시피 잠에서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이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내 몸 안의 아픈 세포들을 봤는데 그 때 너무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래, 이 법을 몰랐을 때는 단지 아프다는 것이 싫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고 약을 써서 잊으려고 했고 짜증나는 마음도 냈었지만 이제는 둘 아님을 알게 되어 하나되고 싶구나." 하며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그런 편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런 두통이 느껴지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인공 자리에 몰록 던져 놓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법을 모르고 이런 경계를 겪게 되었다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법을 만나서 흔들림 없이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심으로 관하며 백마디의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행을 실천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다가올 경계들이 많겠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물러섬이 없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법우 말마따나 그거를 그대로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생명들이 다 죽어. 그러면 아귀를 짓지 못해. 더 퍼지게 돼. 그것들도 살 량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와 둘 아니다 하면은 오히려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게 둘이 아닌데 뭘. 참 큰일을 했는데 전부 해보다 보면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해.

질문2: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가르쳐 주신 스님과 부모님 조상님들에 대한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원에 영탑공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직 이 공부와 인연이 닿지 못해서 저라도 영탑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원을 성취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냈는데 조상님들도 함께 마음을 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탑재를 지내면서 부모님도 함께 한자리하시라고 마음을 지극하게 냈더니 다행히 아버님께서 함께 한자리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아직 이 도리와 인연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한자리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스님들께서 정성껏 재 지내시는 것을 보고 아버님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스님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같이 공부하다가 인연을 저버리는 도반들이 있는데 인연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 하셨지만 과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자꾸 불들면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둘이 아닌데 하고 결정을 지어놓고, 보이는 데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하게 그냥 해버리면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알게 돼. 그 마음이 알게 돼서 점점점점 달라지고 결국은 같이 친밀하게 되지. 그게 말을 안 듣는 것도 친밀하질 못해서 그래. 그렇게 친밀하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인정이 많아서 블쌍한 생각 안된 생각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면의 주인공하고 같이 둘 아니게끔 해야 그 사람의 껍데기가 들게 돼. 그래 건지려면 내면부터 건져야 거죽이 건져진다 이런 말이야. 또 금방 들으면 금방 건져질 수 있고. 참 착해요. 조상님의 탑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다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조상들이 아니라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라고요.



그림 · 최주현

사람 건지려면 업식자리 그냥 끊고 주인공이 해결토록 놓고 맡기세요

하나돼야 살기 편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라는 거를 다 놓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야. 아주 슬기롭고 멋지게 살라고. 사는 데 사는 그 자체 도리가 바로 내 과거 불성이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주 과거의 자기 동자도 싱긋이 웃으면서 잔뎅이 만지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고 좋아진다고. 아주 가까운 것이야. 자기 불성은, 자기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진화해서 자기가 그 원소를 가지고 태어날 때 생명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다시 바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친구야. 그건 친구이기 이전에 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면 둘이 아니게 돼서 하나로, 모르면 항상 둘이 돼서 살지.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살기가 참 힘들어.

지금뿐이 아니야. 이걸 모르면 요 다음 생에도 그렇고 자유자재할 수 없어. 식구들도 돌봐 줄 수 없고, 어디 갇혀 있어도 꺼내 줄 수가 없고, 길에 다니다가도 차에 치어죽은 사람, 혼백이 갔다가 와 보니까 자기 육체가 없어서 거기 앉아서 딴 육체라도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건지고,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은 건져서 좋은 데로, 모르니까 가질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새 집이나 쥐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길에 오다 가다가도 그런 인연을 만난다면 정말 대덕이지.

사람은 항상 웃고 살아야 돼. 그리고 속이 웃지를 않으면 거죽으로 아무리 웃어도 속에 진티가 있어서 금방 찌푸리게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없이 선이 자리를 잡아야 돼. 악과 선이 없이 그냥 자리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그냥 스스로 사는 게 악이 되질 않고 선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나 했는데 자기가 보이지 않는데서 다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 쪽 몸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쪽도 좋게 하고 저 쪽도 좋게 하고 죽게 된 사람들 다 살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어디가 좀 못생겼으니까 뜯어 고쳐야겠다 이런다면 요 다음에 잘 생겨 가지고 나오게끔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뭐든지 자기가 지금 살면서 부족했던 거를 요 다음 생애에 가지고 나와도 좋은데, 이 공부하고 나면은 그것도 저것도 그냥 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니깐 뭐 그렇게 대단치가 않고, 하여튼 정말이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예전의 부설거사처럼 그렇게 선지식이 돼서 정말 어디가나 죽어서 걸음을 걸어가도 "아이구, 저 분 좀 붙들어야 내가 살겠다." 이러고 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 그런 영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때로는 열명도 좋고 스무명도 좋고 삼십명도 좋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을 그 쪽 신도들이 다니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되지. 그때 어느 골짜기의 문제들이, 이 공부 못하면은 죽어서도 고생이야. 죽어서도 더 갈 수도 없고 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차에 치어도 그냥 딴 데 가서 태어나면 될 거를 그거를 몰라서 그냥 거기 쭈구리고 앉아있어. 거짓말 아냐 이거.

나부터 알아야 불교

예전에 차에 치어서 죽는다고 그래. 그래서 거길 가 봤더니 정말 쭈구리고 애하고 어른하고 앉았어. 그래서 그거를 좀 환생시켜줬는데 그거 환생시켜주고 난 뒤는 아예 그런 소리가 없더라고. 그러니 모두 사람의 마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다 못해 생선을 하나 먹더라도 그 모습을 약으로 모두 먹게 하고 그 흔백을 화현을 시킨다면 우리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이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묘법이야. 보살행이라고 하고. 보살행하는 거를 응신이라고 하지. 응해 주면은 응하면은 그냥 이루어지니깐 여북하면 응신이라고 그러잖아. 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거를 다 배우려고 다니지만 나부터 배워야 돼. 모두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인데 전부 합장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합장할 줄을 모르잖아. 그런데 전부 합장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고 야단들을 한다는데 조용하고,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안돼서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들어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강에 나가서 생선을 한 마리를 샀는데 생선이 울고 있는 거를 봤나 봐. 울고 있는 거를 보고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지. 옆에 사람이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때에 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는 이 고기는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고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방생을 했다고 좋다고 그 쪽 스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 고맙기도 하고 외국 사람인데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퍼뜩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고생을 너무 안 해도 남이 고생하는 걸 몰라서 구석구석을 모르고, 고생을 너무 해서 찌들으면 좀 선선하고 좋은 거를 모를 거고, 좀 삐뚤어지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각을 잘해서 어렵든 어렵지 않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잘 살아도 모두 자기 것이 아니거든. 자기는 몸 하나 뿐이야.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덕으로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잘 산다고 해서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아주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서 이 쪽에 맞춰서 잘 되게끔 돼. 그러니까 모두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 원소라고 할까 자기 불성이라고 할까 자기 자불이라고 할까, 그거를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로 믿어야 돼. 자기가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깐 과거 동자야. 지금 있는 자기는 물질적인 자기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없다면 과거의 생명력도 없어. 생명력이 에너지야 결국. 에너지 통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에너지 통이 주장자가 돼. 주장자로 화해. 그래서 그 주장자가 조금만 스쳐도 그건 결정적인 법이 돼. 그러니깐 우습게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들 배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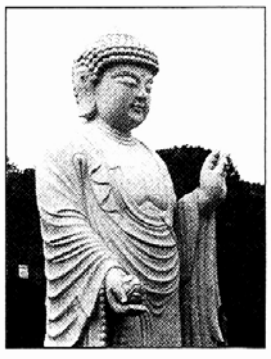
(청년법우들의 합창과 연극공연을 보시고)

스님: 여러분 잘 봤습니다. 잘 듣고 재미있게 웃었고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 자리를 하면서도 모습은 헤어져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같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급하면 부르세요.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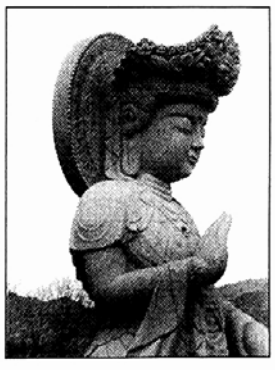
※위 법문은 2000년 12월 3일 전국연합 청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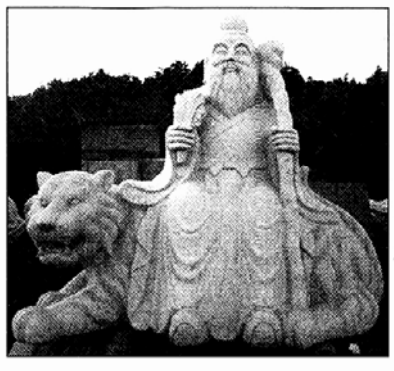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모집 】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체계적인 구독확장과 광고수주를 위해
21세기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할 창신하고 역량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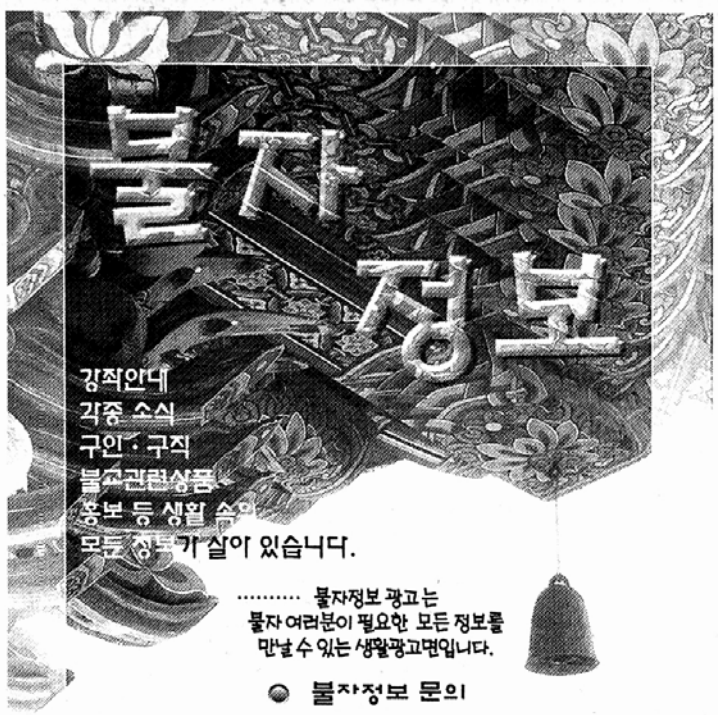
1. 지사지국모집 대상지역 (10개지역)

구 분	관 할 지 역	비 고
강원 1	강원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신 설
강원 2	강원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신 설
경 기	경기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신 설
충 북	충청북부 - 충주/제천/음성/진천/괴산 일원	신 설
충 남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 일원	신 설
경 북	문경/상주/예천 일원	신 설
경 남	산청/거창/함양/합천 일원	신 설
전 남	순천/보성/고흥/여천/광양 일원	신 설
전 북	전라북도 전지역 (전주)	신 설
제 주	제주도 전지역	신 설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사업 전개.
- 본사 주최 수익 사업활동 진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 2001년 2월 17일(토)
- 제출방법: 우편(17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문의전화 : 02) 737-0090直 02) 737-8881代 팩스 : 02) 737-0697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최대의 관계 개선장 · 최상의 참나 깨침길 · 최고의 결혼 여행지
하나한
마음을 마음대로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heretruth.com
홈페이지만 정독해도 뚜껑이 열립니다
敎×學△(016-206-1001)道△生○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 사주, 작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 (사주비전外 100여권 저술)
사주 · 감정 의뢰하실분 (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 012-027395-01-017 달마사
卍 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2)999-5551 · 999-4804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 108 염주 150,000원 고급기공 케이스포함
· 매듭합장주 30,000 (10mm)
서울판매처 길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영가 천도
대한불교 조계종
성거사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근처)
041) 567-6820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신년운세 / 삼재예방(돼지토끼양띠)
30년간 人公山 갓바위에서 기도공부중 전수받은 특수구궁법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속시원히 밝혀드림 (※개인 전수 가능)
◈ 금전문제, 부부불화, 자녀문제, 결혼, 매매성사, 송사 신규사업, 각종택일, 작명, 교통사고 예방, 건강문제, 꿈해몽
감정료 1인 2만원(감정료 후불) 3일이내 상세한 감정서를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 011) 813-3697 **지장선원**

佛舍廊 (불사랑)
(각종 불교용품 전국 도매)
직원모집
모집인원 : 男 약간명
나 이 : 25세~33세
※전국 출장 가능한 자
문의 011)9355-1328
031)858-8661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혹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앎은 깜깜하고 올기미는 단단하며 벗어나 갈 길이 아득하네
生死는 무상하여 바람앞에 촛불이니 이몸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기약할 수 없음이라 이제 해탈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뼈골이 바수어지고 나의 모든것 다버린들 두렵고 아쉬울 것이 무엇인가 승속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뜻이 투철하며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031) 584-2818
011) 272-6478 **혜 연**

배우자 구함
- 여 47세 전직(공무원) 자녀무. 착실한 불자, 어느 누구와도 융화가 잘되며 사람이 많이 따르는 성격

053-982-8045
011-9353-60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서광사
053)981-7276

공양주 모십니다.
061)
337-3440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80)752-9013

청운역리 학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해남사
052)212-3340

男 60세
- 사무직 · 종무직을 구하는 불자입니다.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17)655-8590

이름 계명
정상녀
↓
정효원

사리함(벽조목)
- 부처님 복장 사리 봉안함
- 8cm×21cm 정교한 조각
- 진귀한 명품 예술적 가치 높음
-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053)982-4976
011)813-3679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11) 410-1387 (창건주 직접)
일반 부동산과 일부 교환 가능

동반자 원함
신체 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자비여성으로 56세 술생 개띠생 여성을 원하며 중생에 길을 포교로써 남은 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현 55세 해생의 남자로써 신체 건강하고 포교원 운영중입니다.
054)751-8225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 60만원
031)952-7905

급 백일지장 기도할 사찰이나 조용한 곳을 도와 주실 분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보존의 급박한 문제인 매장의 개혁의 대서원을 세운 53세의 묘 지산입니다.)
053)616-0798

사찰안내 (전세)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현, 단독주택)
- 대 지 : 100평 ● 건 물 : 40평
- 과거 절로 사용한 적 있음
- 전세 보증금 1억 2천 (절충가)

02)379-7139
011)459-2972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19)545-296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2)993-306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현리
- 부지 : 242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 상담 후 결정

055)391-5369

사찰 (급) 안내
- 소재 : 대구 시내 중심가 (2층 3층 각 48평)
- 2층 : 법당1, 큰방 2, 부엌, 화장실, 사워장
- 2층 : 보증금 6백 (월 40만원)
- 시설비 : 1천 9백만원

3층은 별도 협의 - 큰방2, 회장실, 사워장 넓은마당있음
※ 특 : 2층 보증금 없이 (1년선세 840) 가능
053)255-66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전세 3천 시설비와 물품은 답사 후 절충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포교원 안내
- 각종시설완비, 방2, 주방, 총 50평
- 부천시 소사구 소사분 3동 대로 변
- 보증금 : 1,500 월 80만원 합 3,500만원 협의가

031)977-6117
011)405-326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동
- 부지 : 대지 73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 후 결정
- 특징 : 법당 뒷 산 실평 120평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011)877-90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월 1,000 50만 월 2,000 30만
- 시설비 : 1,700만원

051)581-8652
011)9790-1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위치 : 청주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 법당 : 18평	• 법당 : 11평
• 요사 : 35평	• 삼성각 : 5평	• 삼성각 : 2평
• 부지 : 220평	• 요사 : 10평	• 약사전 : 7평
• 가액 : 2억 5천	• 부지 : 500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평
	• 가액 : 9천 5백	• 가액 : 2억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개인 사찰 및 부지 매매 알선 (암자, 토굴, 포교당)
※ 사찰 신축 및 증축 - 토목공사, 도로개설, 조경
※ 납골당 조성, 인허가 업무
※ 부전 공양주 건강보조식품
○ 전국 지원 모집 ○
서울, 경기, 강원, 춘천, 충청,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전주, 제주, 전국, 각, 시, 도, 단위
○ 부산지원 011-554-9359
○ 인천지원 011-702-3202
○ 초보자 가능 철저한 영업지도
전국사, 암, 토굴, 부지, 포교당, 양도하실분 / 인수할 분 대기중이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재
- 부 지 : 1,700평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35평 (현대식)

※ 산세좋은 기도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1억 5천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소재
- 대 지 : 25평
- 건 물 : 20평 (단층 주택)

※ 역시깊은 도심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6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임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19)545-296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소재
- 부지 : 약 4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층)
- 요사 : 60평 ● 토굴 : 40평(황토+목조)
- 가액 : 6억원 ● 기타 : 칠성각, 산신각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수려한 대작불사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좋음

※ 전국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53)964-0455
좋은 인연됩시다. 서울 02)326-1060
동진불사 대구 053)655-1062 · 1063 휴대폰 018-334-9021

사찰부지(급)안내
- 충남 금산 진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준농림 9000평 (대지, 전, 답, 임야)
- 가액 : 3억 5천만원
- 상업적, 투기목적 매수 사양

011)826-6888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용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천평, 법당, 요사 2동, 주차완비
- 가액 : 7천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약 천 사

사찰부지(급)안내
- 청정지역으로 좌청룡, 우백호 산수 수려한 곳임

卍 충남 천안시 병천
卍 전, 답 9272평방미터
卍 가액 약 1억원
卍 주인 연락처 :
041)577-4747

사찰 안내
- 위치 : 회천군 감동면 소재 (천천에서 30분거리) 파로호 국민 건강지 옆
- 대지 + 전 = 761평
- 가액 : 5천만원

016)285-3275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동서화합·생활불교 초석 놓아야죠"

광주사암련 회장 성호스님

"연내에 광주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착수해 호남불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갖추는 한편 광주불교계가 환경·인권·동서화합 등 지역현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를 향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13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성호스님(관음암 주지)은 "시대가 불교계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이와 함께 상반기내에 광주시청불자회와 각 구청불자회를 창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불자협의회나 사찰 신도회 등 유명무실해진 재가조직을 추스리고 시민선방을 개원해 재가불교의 신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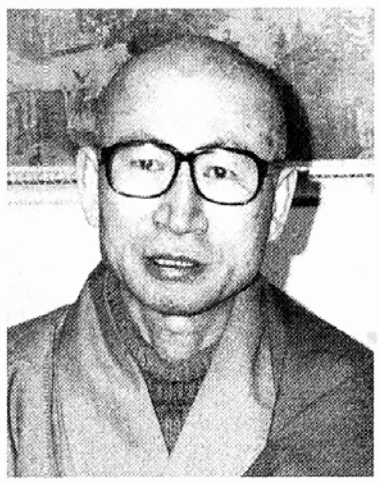
또 무등산 운림온천개발 완전 백지화, 전남도청 이전반대운동 등 각 사암간 화합을 통해 지역불교계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내달중 대구에서 대구불교사암연합회와 함께 합동 방생법회를 개최해 오래된 지역감정을 불교계가 앞장서 풀어나갈 계획이다.

99년 발족한 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서는 지역 인권·환경·여성·낙태문제에 공동대처하고, 올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광주지역대법회를 공동주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성호스님은 이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호남 불교계의 단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무각사 공원구역내에 광주불교회관을 건립, 지역 불교단체들의 신행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26년의 전통에 각 종단 소속 150개 등록 사찰을 확보한 사암연합회지만 불교회관이 없어 불교 붐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대둔사 선암사 등 인근 5개 본사와 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기금 마련을 위해 선화(禪畵)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은 스님이 30여년간 직접 그린 달마도와 사군자 등이다.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및 산하 단체 활성화와 행사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구청 불자회 창립
신행거점 불교회관 건립



성호스님은 일반 시민에게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불교교리서 발간도 추진중이다.

"올 한해는 시민을 위한 불교, 시민을 위한 말씀"이란 주제로 회원 사찰들이 기존 불교 신도외에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도록 하겠다"는 성호 스님은 "대중포교를 위한 쉬운 불교 소책자를 발간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광주지역 불교세가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강점이 있는만큼, 스님과 지도교사들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 구체적인 새싹포교 청사진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산 종교인 "낙태반대"

4개단체·시민등 '태사모' 창립
성교육강좌·미혼모 쉼터 개설

부산지역 종교인들이 낙태의 비인간성에 경종을 울리고 낙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 천주교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규정), 원불교 부산교구 교의회(회장 이운조), 부산기독교 교회협회의(총무 김홍술) 등 4개 종교단체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이사장 김희로)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태아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15일 오후 6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식을 갖고, "태아의 생명보호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그 부모의 권리를 초월한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며, 낙태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모임은 종단 의료·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성직·수도자로 구성된 지도위원회, 교육·총무·홍보분과를 갖춘 사무국을 설치하고 낙태방지 활동부터 낙태금지법 효력발휘 서명운동과 미혼모의 쉼터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낙태방지 활동에는 청소년 성교육과 자연피임법 강좌, 올바른 사랑관과 가정관을 위한 부부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단체는 낙태를 많이 시키는 병의원을 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교계 언론계 등을 통해 낙태 및 제왕절개 방지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 압력단체로도 활동할 방침이다. 특히 사문화한 낙태금지법의 효력발휘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1004(천사)후원단' 모집을 통한 모금으로 미혼모 쉼터도 운영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낙태 시술이 1년에 150만건이나 이루어져 세계적으로 '낙태국'이란 오명을 들고 있다. (051)469-5449.

김재경 기자

中 하이난섬에 한인 추모공원

납골당 낙성…1천여 징용희생자 위령

중국 하이난(海南)섬에 일제 징용 한국인을 추모하는 공원이 건립된다.

16일 중국땅 최남단인 열대 하이난섬 남부 싼야(三亞)시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제(日帝)에 끌려가 집단 노역을 하다 숨진 한국인 징용자들이 안치될 납골당 낙성식 및 추모제가 스님 20명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직경 8m 높이 4m 크기의 납골당에 안치될 유골의 발굴은 10일부터 충북대 발굴팀이 맡는다.

납골당 인근 4백만평에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신우농장 대표 서재홍(63)씨는 1999년 9월 추모비를 건립한데 이어, 연말까지 7억원을 들여 3만평 규모의 추모공원과 전쟁유품전시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정치범 등 1천2백50명이 '남방보국대'란 이름으로 섬에 끌려온 때는 1943년, 이들은 일본군 군수물자를 위한 철광석의 채광과 철도로 건설에 시달리다 굶어죽거나 일본 항복 직전 대부분 학살당했다고 현지 역사는 적고 있다.

당시 10여가구에 불과했던 원주민 여족(黎族)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 현지인들은 이곳을 '조선촌(朝鮮村)'이라 불렀었다. 묘비 하나 없이 집단 매장됐던 그 원혼들이 반세기 만에 한국 스님의 염불을 들으며 편안히 잠들게 된 것이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천태종

2월 27일까지 동안거

총무원은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보름동안 신도들이 매년 정초에 하는 충북 단양의 구인사 참배를 실시한다. 또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스님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는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관음종

새해예산 36억 확정

제36차 정기 중앙종회가 10일 천안 보명사에서 개최돼 2001년도 종단 예산 36억8천5백만원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해 종단의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 활동 확대, 총무원사 복원불사 회향, 국제학술강연회, 대북 교류 강화 및 지원 등을 확정했다.

대한법화종

신년 하례법회

신사년 새해 맞이 신년하례법회가 종정 금파스님, 총무원장 법홍스님, 포교원장 혜도스님과 각 부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 선광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금파스님은 "지혜가 있든 없든 죄는 멸하고 선은 남으니, 믿든지 비방을 하든지 함께 부처의 도를 이루리라. 삼계의 화택에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대적광명으로 모든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이루리라"는 요지의 법어를 내렸다.

법륜종

일화스님 49재 20일 봉행

12월 3일 입적한 제2세 종정 혜련당 일화대종사의 49재 법회가 20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금학동 원효사에서 봉행된다. (041)855-2839

총화종

사미(니) 23명 배출

구랍 31일 수진사에서 월운·남정·각하 스님을 3증사로 건당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현오스님등 사미(니) 23명이 새로 배출됐다. 한편 총화종은 신사년 새해를 맞아 1일 자정 남양주시와 함께 수진사에서 범종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정 동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김영희 남양주시장, 김학배 남양주경찰서장 등 지역기관장, 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해 국가발전과 종단중흥을 기원했다.



국가발전기원 법회 원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운봉스님)는 5일 원주시 웨딩 무궁화홀에서 '국가와 지역발전·화합을 위한 원주 불교지도자 신년하례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주사암련 회장 운봉, 구룡사 주지 원행, 성불원 주지 현각, 극락암 주지 정선 스님과 한상철 원주시장, 함종한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안정신 원주시의회의장, 김규철 원주경찰서장, 박형진 원주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석굴암 유물관 건립

200억 들여 다라니경등 국보급 문화재 전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성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의 역사유물관을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착공되는 불국사·석굴암 유물전시관의 총공사비는 약 105억원과 94억원으로 모두 200여억원이 소요되며, 자체예산 40% 정부예산 60%가 투입된다.

불국사 역사유물관은 연면적 551평에 건축면적은 351평,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지어진다. 석굴암 유물전시관은 연면적 537평에 건축면적 240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며, 모두 콘크리트 및 목조 구조물 혼합으로 건립된다.

전시유물은 불국사 복원공사 때 나온 일부유물과 현재 국립서울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국보급 유물들, 소장자들의 기증유물 등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석굴암은 본존을 비롯한 십일면관세음보살 십대제자 사천왕상 등의 모형과 관련유물등을 전시하게 된다.

불국사는 관광객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적 설명이 가능한 박물관·영상자료실·세미나실도 갖출 예정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양산 통도사 뒷산 이름 '영축산'으로 통일

'영남의 알프스'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뒷산(해발 1,058m)이 앞으로 '영축산'으로 불리게 된다.

양산시는 9일 지명 위원회(위원장 안종길 양산시장)를 열어 통도사 뒷산을 영축산으로 이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산은 그동안 영취산 취서산 영축산 등으로 불리면서 혼선을 빚어 이름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결정된 지명은 도 지명위원회와 국립지리원 소속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6월중 최종 확정된다.

지명 심의 위원장인 안종길 시장은 "우리나라 삼보사찰중 하나인 통도사를 품고 있는 산의 이름이 통일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화합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재경 기자

"한라산 케이블카 철회" 제주범불교대책위 성명

'한라산케이블카설치반대 제주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광조·관음사부주지)는 5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제주 불교 승려들의 인식과 입장'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 범불교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한라산도 보호하고 관광과 제주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전문가들의 종합적 연구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선전"이라며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존자암지 등 문화우적을 훼손할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이비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개 불사의 모든것 일 심 불 원

◈ 일심불원에서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인사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조계사 인근에 '일심불원'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0년 12월 일심불원 대표
김 기 문

· 불 상
· 목불, 동불, 특수불
· 순금개금, 당채
· 大佛, 小佛 (동불, 특수불, 석불)

· 불 단
· 홍송 · 스프르스
· 다그라스 · 알마시카
· 목재 일체
· 조각불단, 수미단불단, 채색불단
· 법상, 경탁, 연, 불장, 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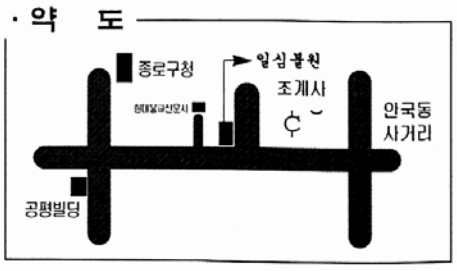
· 닫 집
· 내외 13포 용반자 학 용두
· 내외 11포 용반자 학 용두
· 내외 9포 용반자 학 용두
· 조각 운각, 미니 운각 (석가래, 부연)

· 불교용품 일체
◈ 각종등
- 비닐만월등 丸, 長
- 공단등, 수입사등
- 예수재 용품
- 불교 달력
- 청동 촛대, 향로
- 각종 방자 유기
- 각종 염주 (합장주, 백팔염주, 천주)

· 사찰건축
· 고건축 (목재)
주삼포, 주심포
내 11포, 외 9포
내 9포, 외 7포
내 7포, 외 5포
내 5포, 외 3포
· 대웅전, 요사채… 현대 건축

· 탱 화
· 조선불화, 고려불화 (석채, 분채, 안료)
· 홍탱화, 흑탱화, 채색탱화
· 목탱화, 청동탱화,
· 특수불탱화

· 단 청
· 금모르 단청
· 벽화
· 금단청
· 얼금 단청
· 긋기 단청

· 약 도


一心佛院 전화 : 02) 725-2030 · 725-2040 팩스 : 02) 737-529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110-39

"마음이 왜 중요한가요"

부산불교교육원 '부모와 함께 하는 참선교실'

초·중·고생 10여명
매주 토요일 부모동행
참선한후 속내 나눠



◇참선교실에 참여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참선을 계속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에는 해본 적이 없는 깊은 호흡을 하려니 조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또 평소에는 마음에 대해 별로 생각안했는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이 1월 한달동안 개설한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참선교실'에서 참선을 배우는 석 윤(낙동 초등6)이의 말이다. 어리게만 보이는 윤이지만 참선할 때는 제법 어른스러움이 묻어난다. 윤이를 참선교실에 데리고 온 강순금 보살(41)은 "제 자신이 참선을 해보니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 아이들이 하면 정서순화나 집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같이하자"고 권했다고 한다.

"들이 쉬고 내 쉬고 하나 둘 셋 넷…"

6일 부산불교교육원 법당. 성원장의 지도에 따라 가부좌를 하고 두 손을 아랫배 단전쯤에 모은 아이들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부모들은 제법 의젓한 아이들의 자세를 고쳐주기도 하고 함께 참선을 하기도 받으며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죽비 소리에 맞추어 참선에 들자 부모와 아이들의 호흡이 길어지고 눈동자가 그윽하게 깊어진다. 잠시 시공을 잊고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이 영원인 듯 흐른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참선교실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과 부모가 같이 참석해, 앉아서 누워서 하는 참선법을 배우며 참선 삼매를 익혀가고 있다. 4년 전부터 개설돼 온 청소년 참선교실에 부모들이 참석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 기초를 가르치고 참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 달의 참선이 생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찾아낸 묘책이 바로 부모와 함께 참선을 하도록 한 것.

성원장은 "부모와 학생들이 성적 위주의 공부에만 중요성을 두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든 것의 근원을 풀 수 있는 마음에 관심을 갖는 참선 공부, 마음공부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선공부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참선에서 바르게 앉는 법, 복식 호흡을 배우고 나서 자세가 많이 바르게 되었어요." 박다운(사하여중 3) 박고운(초등학교5) 두 딸과 함께 참선교실에 참석한 김순이(41) 보살은 벌써부터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보인다고 자랑이다.

"참선을 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다"는 다운이는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씩 하면 집중이 잘되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참선 공부의 이로움을 제법 정연하게 일러준다.

부산불교교육원의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참선교실'은 부모들과의 열린 대화를 갖는 시간도 되고 있다. 참선이 끝나도 둘러앉은 부모와 아이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한참을 일어설 줄 모른다. 학원과 과외로 학기 때보다 더욱 바쁜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참선교실은 몸과 마음을 푹 쉬는 에너지 재충전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명상하면 집중력 강화"

최시선교사 파라미타 세미나서 주장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집중력도 강화된다."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연구소(소장 이학송) 주최로 9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명상 교실 운영을 통한 청소년 포교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최시선 교사(충북 증평상고)는 "명상은 마음을 깨끗이 해 주기 때문에 고뇌, 망상, 불안, 초조 등 부정적인 심리상황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명상을 하면 감정지수(EQ)의 향상뿐만 아니라 두뇌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향상돼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명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활동이나 사찰 수련회를 통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법사들이 일선 포교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발굴한 '마음 비우기 명상' '명상 음악에 의한 명상' '경전 말씀에 의한 명상' 등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명상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학송 소장은 "명상을 수업과 연계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대학 장기기증동아리 설립"

생명나눔회 올 사업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대학 내에 장기기증동아리를 설립하는 등 장기기증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한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여온 생명나눔실천회는 올해 각 대학내 불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기기증동아리'를 만들어 대학 자체캠페인과 장기기증 저변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회는 우선 동국대를 비롯해 연내에 서울지역 3~5개 학교에 설립한 후 연차적으로 지방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생명나눔회 박찬주 간사는 "장기기증동아리는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학생 포교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교원, 대불련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외에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인터넷 홍보 강화, 공공지원사업 참여, 회원 배가 운동, 후원회 활동 활성화 등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지리산 살리기' 17일 범국민 토론회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17일 오후 2시 원불교 종로교당 3층에서 2001년 정기총회 및 '지리산 살리기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재현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과 이규용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발제하며 김석봉 경남환경연합 사무처장, 양재성 지리산을사랑하는열린연대 사무국장,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석한다. (02)741-1915

김재경 기자

경불련 '어머니 환경위' 내달 1일 창립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흔)은 내달 1일 주부 환경모임인 '어머니 환경위원회'(위원장 정법련화)를 발족, 생활 환경운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연 '어머니 환경교실' 수료자 23명을 시작으로 출범하는 이 환경모임은 사찰에 꽃·나무 심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환경교실을 열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단체 회원들도 점차 늘려 보살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경불련의 환경모임 발족은 지난해 7월 재활용 알뜰가게인 '내 친구 초록이' 오픈에 이은 두 번째 환경관련 활동이다.

경불련 위정희 사무국장은 "어머니 환경위원회 창립이 불교환경운동의 실천력 담보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복지관 떡국행사 사찰은 합동차례

24일은 민속명절 설. 교계 각 복지시설들과 사찰들이 불우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거나 합동차례를 지내는 등 '훈훈한 설맞이' 행사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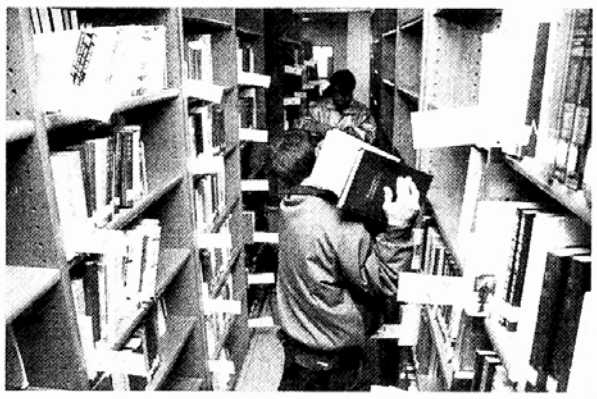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02-989-4214)은 17일 강북구 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쌀과 가래떡, 의류 등을 지급하며, 은평노인종합복지관(02-385-1351)도 16일 관내 무의탁어르신 240여명에게 생필품 선물셋트를 전달하는 '설맞이 사랑의 선물 보내기' 행사를 갖는다.

본동사회복지관(02-817-8052)은 19일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떡썰기 대회'를 열고 명절분위기를 함께 나누며, 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02-365-3677)는 22일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설잔치를 개최한다.

이밖에 한솔·덕유·길음·속초·구로·청담·옥수·삼전·자양·구미금오복지관 등도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떡국나누기 및 생필품 지원행사를 벌이며, 부천 석왕사(032-663-7771)도 지역의 불우이웃과 외국인근로자, 인근 군부대 등에 쌀떡을 지원한다.

한편 조계사·봉은사·도선사·구룡사 등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은 24일 오전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한명우 기자



'드디어 이사' 조계종 승가교육의 새장을 열어갈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이 12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0일까지 김포학사로 이전하는 중앙승가대는 2월 입주식을 갖는다. 사진은 12일 중앙도서관의 짐싸는 모습.

'기획실장 사퇴 촉구' 재가연대, 호소문 발송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12일 출·재가 지도자 2,000명에게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재가연대는 자료집 형식을 갖춘 호소문을 통해 "최소한 중앙종무기관 고위 공직자의 청정성은 유지 되어야 한다"며 총무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재가 지도자 300여명의 연대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독거노인 주머니속 소쩍새 후원 영수증

지난 9일 오전 소쩍새마을에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날 연신내 청구성심병원에서 사망한 한 독거어르신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사망자의 주머니에서 소쩍새마을 후원금 영수증이 나왔다고 했다.

사망자는 김태중씨(67·서울 은평구 갈현동)로 밝혀졌다. 김씨는 96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 매달 1~3만원의 후원금을 꼬박꼬박 소쩍새마을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쩍새마을의 묘전·동준 두 스님은 입관이 진행되는 동안 염불을 하면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삶은 물론 죽음의 순간까지도 불행했던 어떤 사람이 자신과는 또다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베푼 자비에 대한 답례였다.

한명우 기자

대불련 자비실천보살단 '보시행'

결식아동·북한동포·무의탁노인에 관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자비실천보살단은 6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둥지청소년의 집(주지 법현스님)을 방문해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45만원을 기탁했다.

자비실천보살단은 대불련 서울지부 학생들이 주축이 돼 봉축행사 및 모금활동 등 보시행을 주로 펼치며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 특히 자비실천보살단은 지난해 5월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쳐 기금을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봄부터는 대불련과 연계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승수(인천지부 92학번)법우를 위해 기금 440만원과 헌혈증 200여장을 모아 주었다.

대불련 이승배 회장(충남대 정밀공업화학과 3년)은 "결식아동돕기, 북한동포돕기, 무의탁노인돕기 등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청년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최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奉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堂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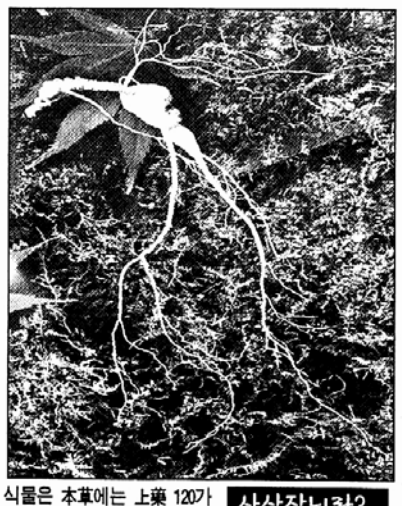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004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절에 가면 편안한 이유는

감성으로 보는 절

<1>왜 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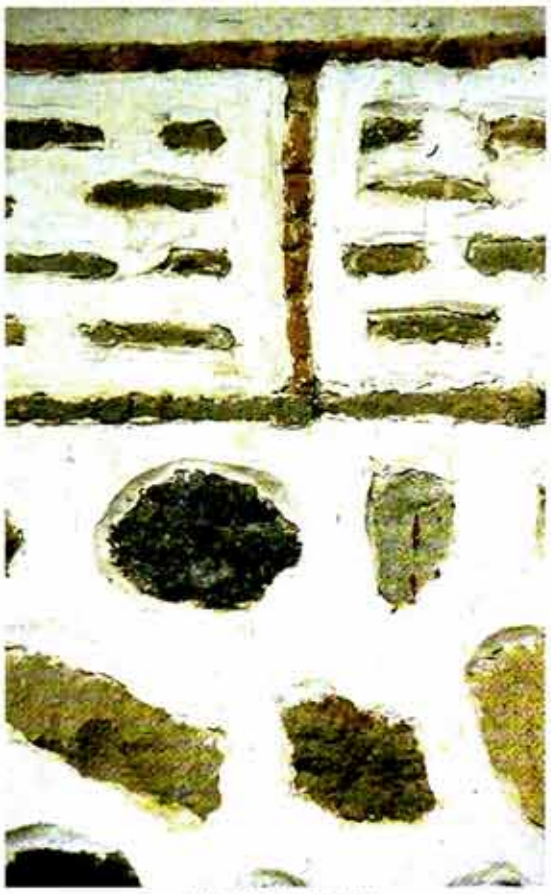
늘 신사복에 넥타이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어떤 은퇴 목사 한 분이 나에게 사진을 배운 적이 있다. 한번은 경북 청송의 주왕산(주왕산, 얼마나 멋진 산인지!!)으로 촬영을 간 적이 있다. 때가 가을이라, 주왕산의 아름다움은 나같이 겉 아름다움엔 목석 같은 사람도 기절할 만큼 멋졌다. 그러나 나는 사진을 예쁘게 찍을 줄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왕산의 아름다움을 찍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산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 목사분이야 아직은 사진의 초보자도 안 되는 분이라, 뭐를 찍든지 나는 관심도 안 갖고 있었는데, 한참 주변을 어슬렁, 두리번거리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산은 참 좋은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구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듯 하는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나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산의 아름다움은 알겠지만, 그 절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은 구원을 못 받으니 불쌍하다는, 지극히 목사(?)다운 이 말에 왜 내 가슴에 있던 불빛이 모두 꺼져버리는 듯 캄캄해지는 걸까? 산의 겉 아름다움

낯익은 '우리의 얼'이 있고
잃어버린 심성 찾을수 있어

은 가슴에 와 닿았는데, 그 속에 깊이 속살을 이루어 있는 참 삶의 '나'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목사(?)님의 안목이 내 가슴을 메어오는 게 아닐까?

나는 사진을 찍고 가르치는(사진을 가르친다? 사진은 가르치는 게 아니지!!)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난 누구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 이것은 차츰 말할 기회가 있겠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절을 찍는 것이야 별다를 바 없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절'을 찍는다 하면, 우선은 대개가 신기해하고, 이상해한다. 그리고 기독교인, 그것도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은 대개 이맛살을 찌푸리는 때가 많다. 그리고 묻는다. 왜 하필이면 절을 찍지? 그때 나는 반문한다. 절을 찍으면 왜 안 되지? 절이 무슨 죄라고? 글쎄, 난 그게 당최 이해가 안 간다.

구태여 어렵게 문자 쓰며 '다원문화시대'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각기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문화에까지 배타적인 '심보'를 가져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종교적 신념일까? 교리나 종교적 신념과 그 문화의 차원을 구별할 줄 모르는 데서 그런 '막힌 사고'가 횡행(?)하는 게 아닐까? 나의 생각으론, 종교는 퍽 자유스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독트린 또는 제도화될 때 인간의 사고를 석고화 시키고 무한히 넓고 뭅처럼 자유스런 인간의 의식세계를 그릇에 담아 경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아니 발생하면서부터 타 문화권의 수용능력이 자유자재였다. 그러므로 불교 문화는 엄청나게 풍요한 자산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절을 다녀 보면서 크게 깨닫고 느낀 점이다. 이것을 한국 문화



◇해남 대둔사 침계루 벽면

권에 들어와 200여 년이 된 기독교가 아직도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비교해 본다면, 불교 교리의 탄력성이 기독교에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인 내가 '절'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절에 가면 편하다.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예천부터 살면, 아주 낯익은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서 용해돼 있기 때문이란 걸, 나는 절을 다니며 알았다. 그래서 절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얼'이다. 우리의 '얼', 우리의 문화가 절의 곳곳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얼을 되찾기 위해 안달이 난 내가 절을 다니며 사진을 찍지 않으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절은 우리 문화의 보고다. 잃어버린 우리 얼을 찾아 나는 절을 다닌다. 잃어버린 나의 심성이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감성이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감성이, 그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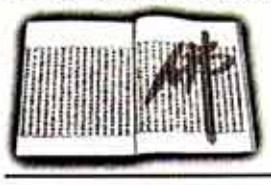


전 생

사진가 전생은 '우리 얼 밝히는 사람들'에서 18년 동안 절 사진을 찍어 왔고,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동아일보사 동아문화센터에서 사진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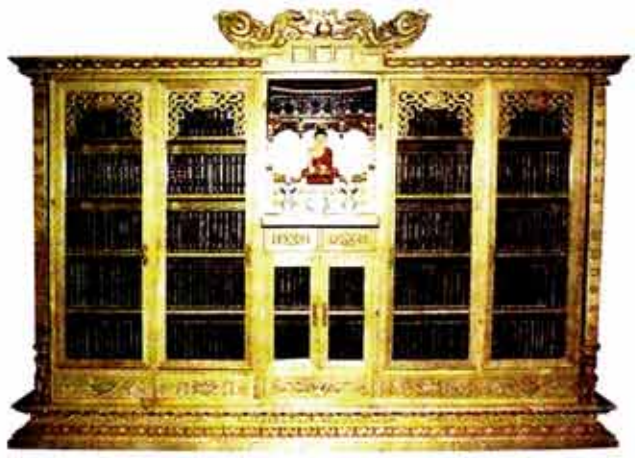
아마도 난 또 되게 아단을 맞을 것 같다. 어쩌면 혼날 일을 저지르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젠 말이 좀 하고 싶어졌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우리글로 탄생한 '법보'



◇현대불교신문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글대장경 봉안전용 장경각. 법보신앙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된 이 장경각(법당에 설치할 경우 법보단)은 장엄미는 물론 신앙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동국역경원과 손잡고 2001년 한 해 동안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벌인다.

■한글대장경 읽기 운동

독후감 공모 시상 · 스티커 배부

32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성된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된 법보다. 그러나 불자들이 대장경을 읽지 않는다면 숨한 난관을 헤치고 만들어진 한글대장경은 빛을 잃는다. 대장경을 읽는 것은 불자의 길을 걷는 가장 기본적인 신행이란 측면에서 대장경 읽기 운동은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글 대장경 읽기 운동을 위해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 독후감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또 캠페인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티커 제작 및 보급, 대장경 신앙에 대한 기획기사 발굴, 대장경 읽기 동아리 구성 등도 전개한다.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

장경각 보급…"1불자 1권 봉안"

대장경은 법신불이다. 사찰에 대장경을 모시는 것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님의 법을 모시는 일이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사찰이 대장경 봉안 불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글대장경 전용 장경각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급한다. 장경각은 단순한 서가의 개념을 넘어 법보를 모시는 신앙공간으로 설계 제작됐다. 장엄미와 예술성 실용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대장경 전용 장경각은 사찰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장경각에는 룸비니 동산에서 자생해 온 살트리 나무(마야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 때 잡았다고 전해지는 성스러운 나무로 현재는 룸비니개발위원회에 의해 베어지고 없다)로 만든 염주알(봉안주 佛眼珠)을 내장(內藏)했다. 부처님의 눈, 즉 지혜의 눈으로 한글대장경을 읽자는 의미다.

사찰의 한글대장경 봉안불사는 '한 불자 대장경 한권 봉안하기' 운동으로 전개된다. 때문에 사찰은 이 불사를 통해 법보신앙을 새롭게 형성하고 경제난 및 불자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원력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역경 후원회 활성화

2500명 후원금…매월 1회 법회

1995년 창립된 동국역경 후원회(회장 석주 조계종원로스님)는 역경원의 역경불사를 지원하는 유일한 단체다. 현재 2500명의 회원이 매달 1천원씩을 후원금으로 자동이체 납부하고 있으며 그간 4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매월 1회씩 법회도 가지며 역경불사를 후원해 온 역경후원회의 수적인 확장은 역경불사를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며 매월 순회법회를 개최해 역경후원회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임연태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숙(석주스님).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신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